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공동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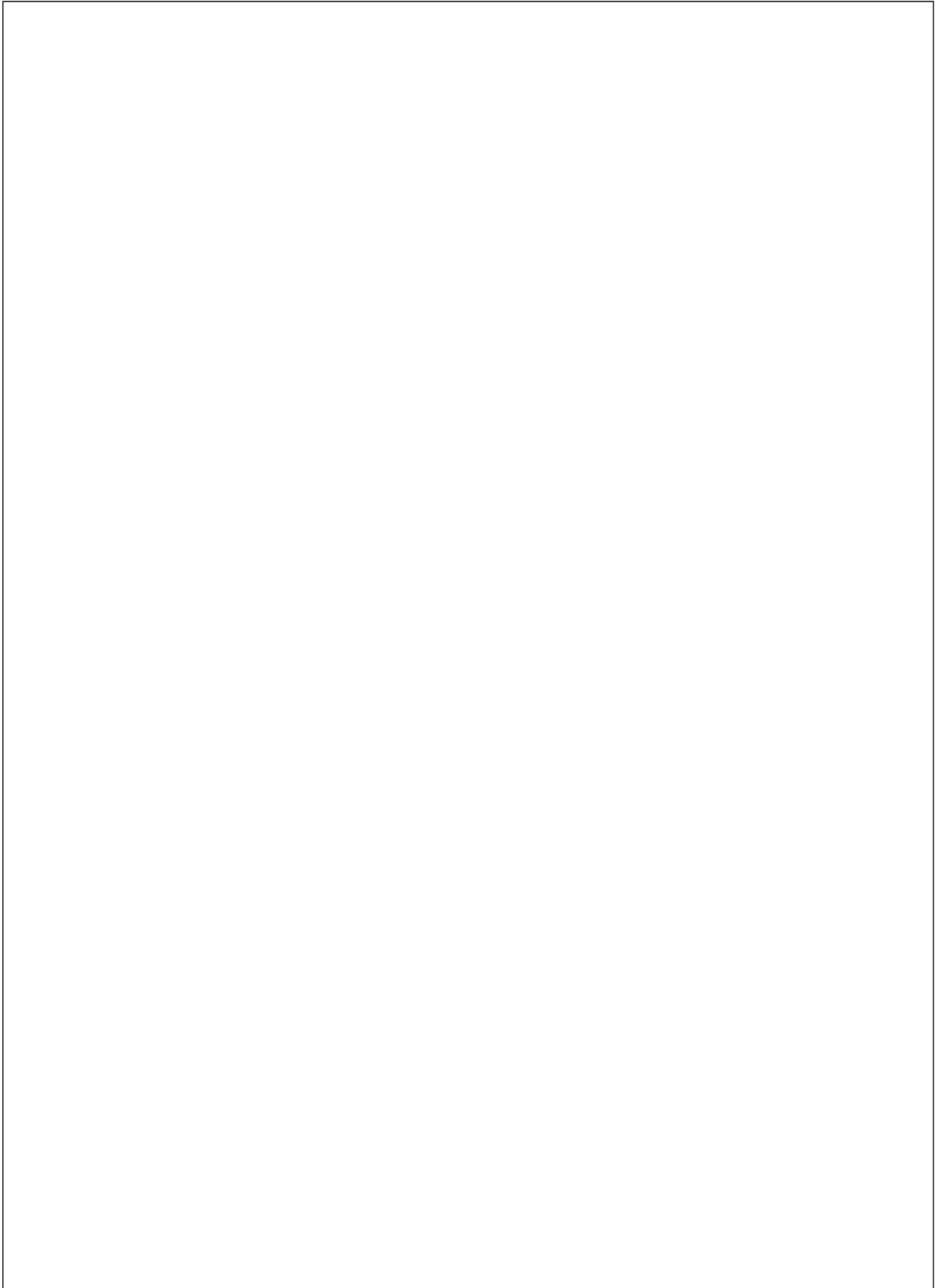
주제 :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미래

||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3:00-18:00

|| 장소 ZOOM(온라인)

|| 주최 아프리카미래학회 & 아프리카미래협회

|| 홈페이지 www.afs.re.kr



2023년도 아프리카미래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3:00-18:00
- 장 소 ZOOM 회의 <https://us02web.zoom.us/j/89632338779>
- 회 의 ID 896 3233 8779
- 참가대상 협회 및 학회 회원
- 주 최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 주 제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미래

개 회 식	
13:00-13:20	사 회 홍진근(백석대학교/정보통신이사) 개회기도 신인호(AFA 부회장/부천영광교회 담임목사) 개 회 사 장훈태(AFS회장/백석대학교 은퇴교수)
【주제발표】 좌장: 황규득(한국외국어대학교/본회 부회장)	
13:20-13:50	발표: 장훈태 박사(백석대 은퇴교수, 본회 회장)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동향에 대한 합의
【주제별 발표 제1세션】	
13:50-14:20	발표: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본회 부회장) 최근 알제리의 언어정책 현황과 쟁점
14:20-14:50	발표: 김유원(동국대학교)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지역주의: 현황과 과제
14:50-15:20	발표: 백영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프리카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유네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15:20-15:30	휴 식
【주제별 발표 제2세션】 좌장: 황규득(한국외국어대학교/본회 부회장)	
15:30-16:00	발표: 김계리(고려대학교)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의 테러와 초국가적 안보위기 : 모잠비크-탄자니아의 다공성 국경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16:00-16:30	발표: 김해영(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케냐 본부장)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미래
16:30-17:00	발표: 진소영(부산외국어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민족집단에서 초국적 공동체로의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 : 무리디야를 중심으로
17:00-17:30	【종합토론】 좌장: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본회 부회장)
17:30-17:35	아프리카미래학회 소식과 홈페이지 광고(www.afs.re.kr/)
17:35-17:40	폐회기도 박해경(한철하신학공관 연구소 소장)
17:40-17:45	폐 회 사 장훈태(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

2023년도 아프리카미래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주 제 발 표	2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동향에 대한 합의	
장훈태	3
주 제 별 발 표 제 1 세 셴	23
01 최근 알제리의 언어정책 현황과 쟁점	
임기대	24
02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지역주의: 현황과 과제	
김유원	37
03 아프리카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유네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백영연	47
주 제 별 발 표 제 2 세 셴	58
04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의 테러와 초국가적 안보위기 : 모잠비크-탄자니아의 다공성 국경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김계리	59
05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미래	
김해영	73
06 민족집단에서 초국적 공동체로의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 : 무리디야를 중심으로	
진소영	88

【 주제발표 】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동향에 대한 합의

장훈태(백석대학교 은퇴교수/본회 회장)

2024년 아프리카의 이슈와 동향에 대한 합의

장훈태(백석대학교은퇴교수/아프리카미래학회장)

I. 들어가는 말

2024년은 아프리카 대륙은 다양한 이슈와 함께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아프리카 54개 국가들은 2014년 아프리카 연합(AU) 총회에서 ‘스마트 아프리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국가 개발 의제 중심에 둔 바 있으며, 이후 ICT 기술 활용과 디지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¹⁾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륙별 의료지원체계에 대한 협력과 다각적 노력에 의해 아프리카에 의한 아프리카를 향한 선언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청정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항공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가 간의 운송, 대중교통 정책 등을 통한 지속적이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지금의 아프리카 각 국가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마련 구축을 통하여 식량 및 생계 안정성, 농업생물 다양성, 지역적·전통적 지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체계 그리고 사회조직이 결합된 농업문화 창출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FAO는 24개국 78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그 중 아프리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을 보면 알제리(고우트 오아시스 관개 시스템), 이집트(시와 오아시스의 대추야자 생산시스템), 케냐(올도니오노키와 올케리 마사이 유목민 유산), 모로코(아르간 기반 농업, 임업, 목축시스템), 튀니지(가프사 전통 오아시스, 제바 엘 올리아 공중정원 등), 탄자니아(앵가레세로 마사이 목축민 유산지역, 심부 주키암바 혼농임업 유산)등이 있다. 아프리카는 지금 농업, 관개 시스템, 의료, 경제, 정보시스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본고는 2024년 아프리카 대륙 전반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슈가 되는 분야 몇 가지를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II. 아프리카의 현재적 이슈

1. 아프리카의 현실적 정계불안과 대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기습침공으로 중동에서 발생한 ‘두 전쟁’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 전투를 치르게 되면서 지상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두 전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구촌의 관심은 전쟁의 향배와 함께 전 세계 군사 대국들의 2024년 선거에 쏠리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역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가들이 많아, 어떻게 두 전쟁의 영향을 방어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적인 군사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2024년에 대선을 치르고, 1년 10개월 가까이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또한 2024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미국·러시아·중국과 함께 세계 4대 군사 대국으로 알려진 인도 총선도 내년(2024년4-5월)²⁾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군사 대국들의 대선의 결과에 따라 두 전쟁의 향방이 판가름 될 것이라는 국제전문가들의 해석도 있다. 이와 더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함께 서방 동맹의 한 축인 유럽 연합에서는 2024년 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 연합과 가까이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역시 최장 민주 공화국인 보츠와나에서 2024년 선거를

1) 이경식, “아프리카 EV 산업 특징과 주목할 만한 기업” The Korea Post. 2023년11월3일. <https://www.koreapo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13> 2023년11월12일 검색.

2) 2024년 글로벌 정치 이벤트는 대만의 1월 대선을 출발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은 취소하고 푸틴과 젤렌스키의 임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2월,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열린다.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³⁾

현재 전 세계의 인류 앞에는 경제보호주의, 경제 축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열려있던 협력을 향한 정치적 역량의 문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반면 과거 트럼프 정권의 국가보호주의와 경제 지정학적 보호주의 경쟁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사헬(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의 쿠데타벨트⁴⁾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말리의 쿠데타 이후 2021년 기니, 차드, 수단에 이어 2022년 부르키나파소의 2차례에 걸친 쿠데타와 2023년의 니제르 등 많은 사헬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현재 사헬지역의 쿠데타벨트는 5천600km에 이르고 있다. 서쪽의 기니에서 동쪽의 수단까지 이어지는 쿠데타벨트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한 쿠데타와 쿠데타로 인한 군부 통치를 두둔하는 현상도 있어, 주변국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의 산유국 가봉의 정정 불안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8월30일 쿠데타가 일어나 알리 봉고(Alain Bernard Bongo) 대통령을 축출하고 브리스 올리기 웅게마(Brice Clotaire Oligui Nguema, 1975~) 장군을 임시 지도자로 세웠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아프리카 중서부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차드, 수단, 니제르, 가봉 등 8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독립 이후 미국과 가깝게 지냈지만 최근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과 중국의 경제지원정책 등의 영향력이 급속히 팽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급변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변동과 함께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대선의 영향은 향후 아프리카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범진보의회당(APC)의 볼라 티누부(Bola Tinubu)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말에 취임했다.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승리하여(16개 주) 신정부의 정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⁵⁾ 티누부 신임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하리 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디지털 경제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티누부 신정부에서 중점과제로 확정됨으로 해당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⁶⁾ 나이지리아 신정부의 주요 정책은 볼라 티누부 대통령의 선거 공약⁷⁾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평화로운 통치와 권력 이양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민주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에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입헌민주 국가인 보츠와나는 단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 최다 득표자는 지역구 의원으로 뽑혀 향후 5년간 지역에서 대표로 일한다. 국가 원수이자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된다. 통신원 모레미(Lerhogonolo Mormi)에 의하면,

“보츠와나는 다당제 민주 국가로, 보츠와나 국민회의(Botswana Congress Party, BCP), 독립 이래 56년 이상 장기 집권한 보츠와나 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 BDP), 보

3) Letlhogonolo, Moremi. “[보츠와나] 보츠와나, 2024년 대선 준비중” 한·아프리카재단. 2023년10월30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0300030&t=KO> 2023년11월9일 검색.

4) 유현민, “아프리카 '쿠데타벨트' 5천600km ...서쪽 기니에서 동쪽 수단까지” 연합뉴스. 2023년8월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152900099> 2023년11월1일 검색.

5) 정민지·박규태,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방향” 「KIEP 세계경제포커스」제6권7호(2023년4월18일), 2; PDP는 10개 주, LP는 1개 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6) 정민지·박규태,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방향”, 2.

7) 정민지·박규태,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방향”, 6. 재인용 :볼라 티누부 대통령의 선거 10대 공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대통령 공약에서 10대 대국민 약속으로 △ 청년 일자리 창출 △ 제품 및 서비스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 △ 수입의존도 감소 및 수출 확대 △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 개선 △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현대화 및 확충 △ 신흥산업(디지털 경제, 엔터테인먼트, 문화, 스포츠 등) 육성 및 청년·여성 지원 확대 △ 취약계층의 교육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 개선 △ 안정적·적정가격의 전력 생산 및 공급 △ 기초 의료·교육·주택 접근성 개선 △ 테러, 납치 등의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 강화정책 및 행동 수립 등을 제시함.

츠와나 민족전선(Botswana National Front, BNF) 등 4개 주요 정당과 그 외 진보동맹(Alliance for Progressives, AP), 최근 결성된 보츠와나 애국전선(Botswana Patriotic Front, BPF)이 있다.”⁸⁾

보츠와나는 다당제에 의한 의회정치를 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훌륭한 거버넌스, 투명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국가이다. 보츠와나 지도자와 국민들은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선하도록 협력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보츠와나는 성 평등 장려 면에서 어느 국가보다 진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여전히 여성 정치인의 수는 적은 편이다.

아프리카의 민주화에 대한 세계의 우려스러운 시선은 1960년대 독립 이후 현재까지 멈추고 있지 않다. 현재 아프리카 민주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할 것인지에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2대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대통령은 불법 자금 은닉혐의가 있어 현재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다.⁹⁾ 짐바브웨는 2023년 8월23일에 총선을 치렀고, 같은 날 2017년 군사쿠데타 이후 두 번째 대선이 실시되었다. 1980년 영국에서 독립한 짐바브웨는 37년간 장기 집권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이 2017년 군사쿠데타로 퇴진한 뒤 부통령이었던 에머슨 음낭가과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고,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집권 중이다. 짐바브웨는 1,600만 명의 인구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등 상당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하지만 만연한 부패로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상태인 동시에 인권 탄압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서방과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¹⁰⁾ 짐바브웨의 대선 이슈는 치솟는 빈곤과 정치 불안정¹¹⁾을 어떻게 안정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가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도 큰 이슈가 된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공자학교의 아프리카 진출과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서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 지원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아프리카 민주 선거를 위해 1억 6,5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2024년 아프리카 대륙은 선거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이다. 세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군부와 시위대이다. 민중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위대는 문민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는 군부가 3년 후에는 권력 이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아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단 군부는 문민정부 수립을 재확인해 주고 있지만, 시위대는 군부와의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튀니지는 총선을 실시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최저 투표율(11.2%)을 기록하고 있어 민주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다. 튀니지와 나이지리아는 민주화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전역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나 분리주의 운동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민주화 운동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강한 관계로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활동이 더 강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안 악화와 폭력행위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3년 2월의 총선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러나 이슬람 인구는

8) Letlhogonolo Moremi “[보츠와나] 보츠와나, 2024년 대선 준비중” 한·아프리카재단, 2023년10월30일.

9) “시릴 라마포사.” 나무위키. 2023년11월8일. <https://namu.wiki/w/%EC%8B%9C%EB%A6%B4%20%EB%9D%B4%EB%A7%88%ED%8F%AC%EC%82%AC> 2023년11월8일 검색.

10) 김미향, “짐바브웨 대선, 80살 현직 vs 45살 야당 대표 초박빙” 「한겨레」, 2023년8월24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5636.html 2023년11월8일 검색.

11) 김서영, “치솟는 빈곤·정치불안정…희망 찾기 힘든 짐바브웨 선거” 「경향신문」, 2023년8월23일.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308231610001#c2b2023년11월8일> 검색.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주화 진통 겪는 아프리카 각국, 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우려스러운 시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1-2.

전 세계적으로 14퍼센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¹³⁾

르완다공화국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르완다의 국가 원수 폴 카가메(Paul Kagame)는 2000년 4월 22일부터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르완다 애국전선 소속이다. 현재 르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1번의 중임이 가능하고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5년으로 줄였으므로, 2017년 대선에 당선된 카가메 대통령은 5년 주기의 대선에 2회 이상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24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¹⁴⁾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 2024년 대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 카가메 대통령은 새로운 르완다, 푸른 르완다라는 이슈로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인기가 높다. 그는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¹⁵⁾ 여성의원 할당제가 실시되어 의원의 56%가 여성인 국가이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영감을 얻어 경제 자유화, 정경유착 감소 등의 정책을 실행하여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의 전산화로 출입국의 편리성을 높여 외국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국가로 선정될 정도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ICT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2,300km 정도의 광섬유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카가메 대통령은 청소년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간 예산 17%를 교육에 할당하고 의무교육을 12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르완다는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로 아프리카에서는 최상위권이며, 치안도 안정되어 있어 여행이 자유로운 국가이다. 2024년 대선을 위해 군 요직 인사에 대한 발령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 중 98%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의 도전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¹⁶⁾

2. 새로운 전략적 가치의 자원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대륙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미래 사회는 긍정론(Africa Optimism)이 더 크다. 최근에도 쿠데타와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내전과 분쟁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¹⁷⁾.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지원¹⁸⁾과 함께 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고,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2.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블루오션의 대륙을 아프리카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1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6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소득증대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신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신세대들은 학력 수준이 높고 인터넷을 통한 세계 정보에 능숙하여 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이들의 성장은 장기독재 혹은 집권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13) Pew Research Center, "Europe's Growing Muslim Population," Pew Research Center, 2017년 11월 29일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7/11/29/europes-growing-muslim-population/>을 참조-2023년 11월 21일 검색.

14) 김영완, "르완다의 발전과 카가메 대통령" 신흥지역정보 지식종합포탈, 2021년 9월 9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19799&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2023년 11월 9일 검색.

15) Odd Arne Westad,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옥청준, 오석주, 김동욱, 강유지 옮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서울: 에코리브르, 2020), 165.

16) 일부 인사들은 카가메 대통령을 향하여 민주적인 사퇴와 권력 이양을 종용하기도 한다.: "폴 카가메"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F%B4%20EC%B9%B4%EA%B0%80%EB%A9%94> 2023년 11월 8일 검색.

17) Odd Arne Westad,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626-630. 에티오피아,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공 등은 냉전 종식 국면의 변화가 거셌다.

18) Abraham S. Becker, "The Soviet Union and the Third World: The Economic Dimension," Andrzej korbonski and Francis Fukuyama eds., *The Soviet Union and the Third World: The Last Three Decad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78-79 참조.

19) Edelman, "Trust in Government Plunges to Historic Low", 19 January 2014. <http://www.edelman.com/news-awards-awards/trust-governmentplunges-historic-low-accessed-7-April-2021>. 2023년 11월 9일 검색.: 국제적인 홍보 회사 에델만(Edelman)은 매년 세계의 신뢰도를 추적하여 발표한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발전, 도시화, 도시인구집중률 증가 등으로 인프라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및 교역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김광수 교수는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⁰⁾

“왜 아프리카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독립한지 63주년이 지나고 있다.²¹⁾ 현재의 아프리카에 대한 답을 내린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빠른 대답이라고 언급한다. 아프리카가 지배했던 국가가 세계사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로마와 카르타고-최초의 제노사이드, 이집트에 대한 서구 유럽 국가들의 관심, 노예무역과 식민지화, 21세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등을 말했다. 21세기 아프리카 위상과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원과 시장,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각 국가의 각축전,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과 자원의 보고, 남남협력, 재난 영화 등을 말하면서 대 아프리카 전략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곳임을 강조한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이 지구상의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차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과, 신흥자원 개발시장으로 다변화, 건설·플랜트 및 정보통신(IT) 수요가 확산하고 있으며,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말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21세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대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화석에너지 생산량의 약 10%, 광물자원은 80%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사회의 새로운 관심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석유²²⁾는 세계 총생산량의 12.3%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천연가스는 세계 총생산량의 6.6%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80%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탄소중립을 위해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급선무로 등장하고 있다.²³⁾ 한국광해공업공단은 “한/아프리카 자원개발협력” 경과를 통해 2006-2011년 11개국에서 25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분야는 에너지, 희유금속 위주 공동탐사·개발·기술협력·정보·포괄협력 등이다. 국가별 건수는 남아공 10, 짐바브웨 3, 잠비아 2, 나미비아 2, DR콩고 2,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카메룬 순이다. 투자 협력 사업을 보면 5개 투자 사업으로 우라늄 2, 석탄,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으로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은 3품목이고 종료중인 것은 1품목, 진행 중인 품목이 하나이다. 2022년 4월에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개발 사업은 해외자산위원회의에서 보유를 결정하기도 했다.

대 아프리카 자원개발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은 56개 사업에 약 25조원으로(전체 198.8억불, 12.6%)을 투자하여 14개 품목이 개발 진행 중에 있다(탐사 5, 개발 5, 생산4). 그 가운데 휴광한 2곳을 비롯하여 23개 사업은 현재 중단 상태이며, 17개 항목은 사업이 종료되었다. 진행사업을 보면, 광종에는 니켈, 우라늄, 동, 유연탄, 연, 아연, 희토류, 금, 주석, 탄탈륨, 크롬 등이며, 국가별로 보면 마다가스카르,

것은 문제다. 젊은 세대는 신뢰문제를 보다 냉철하게 보고 판단한다. Babby Duffy, Generations 이영래 옮김 『세대 감각』 (서울: 에크로스, 2022), 276-277.

20)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동네 청바지인문학-지식나눔-」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1층 금색소극장, 2023년11월8일 강연.

21) Odd Arne Westad,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345-360. 아프리카대륙은 식민지 국가로부터 대부분 1960년-1965년 사이에 독립을 했다. 1960년 식민지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하였다. 1960-1970년대 내내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에서 세력 분쟁의 주 무대였다.

22) Peter Zeihan,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홍지수 옮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서울: 김앤김복스, 2023), 287.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는 외국 석유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항상 불확실한 환경이다. 대체로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의 빈번과 외국인 납치, 종교적 편견과 압제 등으로 안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3)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5.

니제르 탄자니아, 민주콩고,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공, 짐바브웨, 카메룬이다. 한국의 주요기업은 한국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 STX, 포스코 홀딩스 등이다.²⁴⁾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진출기회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으로 보통 수준의 자원경쟁이 벌어지던 상황이 바뀌어, 세계 각국이 자원의 획득을 위해 과열 경쟁 중이다. 과거의 아프리카 대륙 자원개발은 금, 다이아몬드 등에 한정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신항자원개발 시장으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심권용은 아프리카 자원 광종별 부존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광종별 부존 자원	생산 국가
동, 코발트	짐바브웨, 잠비아, DRC콩고로 연결된 ‘카버벨트’에서 주로 생산, 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나미비아 등 에서 산출
우라늄	아프리카 남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와 북서부 니제르에서 산출
유연탄	아프리카 남부 지역, 북동부 해안선을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탄자니아에서 산출
철	아프리카 북서부와 남동부로 한정. 북서부는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가봉 등. 남동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등.
크롬, 니켈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편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등. 니켈은 보츠와나에서 산출.
연, 아연	마그레브 알제리, 모로코로 연결된 연-아연 탄산염암 벨트에서 산출. 기타 산지 DR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등.

<표 1> 심권용의 한/아프리카 자원개발협력 과거, 현재와 미래의 것을 표로 작업함(23쪽)

한국 정부는 자원부존이 풍부한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다양한 광물들을 산출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최대 가스 화력발전소 60%를 건설하여 2024년 가동하게 된다. 모잠비크 광물자원에너지부 장관 카를로스 자카리아스(Carlos Zacarias)는 최대 가스 화력발전소 테마네 화력발전소(CTT, Temane Thermal Power Plant)를 방문하여 건설이 65% 진행된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테마네 화력발전소에서 이어지는 송전선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모잠비크 국민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²⁵⁾ 케냐 정부는 상향식 경제전환 아젠다(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의 일환으로 국내에 더 많은 댐을 건설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해 25개 중규모 댐 건설과 총 3억 5,300만 리터의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케냐 정부의 워터팬은 하천 정비, 댐 건설이 어려운 국가에서 수자원을 저장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²⁶⁾ 이외에도 케냐 정부는 1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지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아프리카 대륙은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자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

24) 심권용, “한/아프리카자원개발협력 과거·현재와 미래” 「국회아프리카포럼/한-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 (2023), 5-6.

25) Lusa, “Mozambique: Country’s biggest gas-fired power plant 60% ready, on line in 2024 - minister” clubofmozambique, 2023년11월6일. <https://clubofmozambique.com/news/mozambique-country-s-biggest-gas-fired-power-plant-60-ready-on-line-in-2024-minister-248194/> 2023년11월9일 검색.

26) KBC, The Star, “케냐정부, 국내 더 많은 댐 건설 승인”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23년11월7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mid=a10500000000&systemcode=05&brdctsNo=356137> 2023년11월17일 검색.

27) KBC, The Star, “케냐정부, 국내 더 많은 댐 건설 승인”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23년11월7일.

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14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²⁸⁾ 이처럼 아프리카 자원개발과 산출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개발 장애요인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첫째,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19 팬데믹과 2년 가까이 진행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항목 가운데 특히 식량 및 수입 물가 상승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10년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화되고 있고, 2022년 특히 소비 바스켓 내 비중이 큰 식량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자원보유량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나이지리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나이지리아의 적자 감소에 따라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을 작년 2023년 평균 24.8%에서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21.1%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⁹⁾

둘째,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기후변화, 분쟁 등과 같은 국내 요인에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대외 요인이 결합하여 심화되고 있다.³⁰⁾ 아프리카 대륙은 지역별, 국가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가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아 빈곤자들의 삶이 퇴보하고 있다.³¹⁾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인해 에너지를 비롯한 식량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무력과 자원민족주의 및 자원 국유화 현상으로 국가 간의 경쟁과 함께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광물을 차지하려는 분쟁과 불안한 정세, 전 세계적인 긴축 강화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채무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어 부채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개발 장애요인이다.

넷째, 최근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은 아프리카 대륙 내의 다양한 종족사회의 위생, 안전,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더해 관료사회의 부패가 성장의 축을 약화시키고 있다.³²⁾ 부정부패의 경우 개발과 사업가들에 대한 주요 인허가 지연, 취소 및 변경으로 사업 흐름에 장애를 일으켜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자원 보유 강국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현황과 핵심광물 현황 조사를 통하여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정부의 숙원사업인 도로, 운송, 전력, 인프라 재건, 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과 함께 최근 10년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도출해 낸 방안을 실행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모로코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 투자국이다. 모로코는 30년 만인 2017년에 아프리카 연합에 다시 가입했고,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CEDEAO)에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 연합의 성장 둔화가 일어난 글로벌 환경에서 모로코 경제는 2000년-2019년 사이에 연간 평균 4.2%의 속도로 성장했다. 거기다가 모로코의 인구는 매년 1.25%씩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GDP는 2017년에는 3292,44달러로 연간성장률이 2.8%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전체 성장률이 66%에 달한다.³³⁾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3.42) 가운데 모로코는 꾸준히 경제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준

28) 심권용, “한/아프리카자원개발협력 과거·현재와 미래”, 25.

29) This Day Live, ARISE News, “피치, 나이지리아 신용등급 안정... 인플레이션 21% 미만 전망” 신홍지역정보 지식종합포탈, 2023년 11월 8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_Detail.es?brdctNo=356183&mid=a10100000000&se_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tPage=1&pageCnt10; 2023년 11월 9일 검색.

30) 한선아·김예진·정민지·박규태,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23권 2호(2023년 1월 18일): 2.

31) 한선아·김예진·정민지·박규태,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23권 2호(2023년 1월 18일): 2-3.

32) 심권용, “한/아프리카자원개발협력 과거·현재와 미래”, 25.

33)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단국대학교 프랑코포니연구소 2020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0): 24.

의 증가는 주로 관광 수입과 이주자의 송금과 부분적으로 상쇄는 석유 및 수입정책으로 인한 것이다.³⁴⁾ 모로코의 또 다른 경제 성장의 초석은 농업 부분으로 12.58%, 산업부문이 25.93%이나, 서비스 부문이 51.17%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³⁵⁾ 그 외에 모로코는 비즈니스로 경제 성장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의 무역 변화가 발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모로코는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종교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와의 무역변화(CEDEAO)에 대한 관계도 좋은 편이다. 모로코의 주요 공급자는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기니 순이다. 모로코에서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를 통해 수입하는 품목은 커피, 카카오, 면화, 목재, 석탄, 광물연료 뿐 아니라 모로코에서 생산하지 않는 과일 등이다.³⁶⁾ 모로코의 경제 성장은 외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서아프리카 국가와의 강한 유대관계, 유럽 국가와의 통합을 강화할 때 발전할 수 있다.

3.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팽창 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현재까지 목격할 수 없었던 큰 변화(big change)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세계인구 절벽 논쟁에 서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³⁷⁾과 한국의 인구 감소세는 세계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저개발국 등 제도권 밖에 있던 노동력 공급이 정체되기에 이르렀다.³⁸⁾ 하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은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2023년7월11일 국제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구 증가를 추동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UN은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가 세계 인구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2022년 세계인구 전망에서 UN은 2022년11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³⁹⁾ 그리고 인구 성장 추세가 과거와 같이 빠르지 않을 뿐 아니라 1950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라고 덧붙였다.⁴⁰⁾ 그럼에도 아프리카 인구 성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⁴¹⁾ 2023년 현재 14억7천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세계 2위의 인구 대륙이고 2023년 전 세계 인구의 약 17.89%를 차지하고 있다.⁴²⁾ 제니퍼 D. 스쿠바(Jennifer D. Sciubba)는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의 도심 지역에 간다면, 시끄럽게 떠돌고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뒤덮인 거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나이지리아의 인구 절반 이상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 한다. 이 거대 집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될

34)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9.: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25 재인용.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27 참조.

35) GDP성장률에 부가된 부문가치이다. Données couvrant la Période 2000-2018 de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25 재인용.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29-30.

36)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25 재인용.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31.

37) 노정연, “중국 초혼자 수 37년 만에 최저…유치원도 줄줄이 폐업” 「경향신문」, 2023년11월21일. : 중국은 연간 신생아는 2016년 188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난 연평균 15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신생아의 감소로 중국 전역에서 유치원들도 문을 닫고 있다. 중국 1600개 현 가운데 가장 많은 인후이성 린취안현에서 사립 유치원 50개가 문을 닫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치원의 폐업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38) 한상춘, “인구절벽 원년이 될 2024년 세계 경제…과연 복합 불황에 빠지나” 「한국경제TV」, 2023년10월30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0300030&t=KO> 2023년11월9일 검색.

39) 광노필, “‘인구 폭탄’은 터지지 않는다…30년 안에 세계인구 정점” 한겨레, 2023년4월17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88129.html> 2023년11월9일 검색.

40) Anmar Frangoul. “India set to overtake China as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in 2023, UN says” CNBC. 2022년7월11일. <https://cnb.cx/3P2j6CU> 2023년11월9일 검색.

41) C. Boehm, A. Flaaen, & N. Pandali-Nayar, *Multinationals, Offshoring and the Decline of U. S. Manufactur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5824)(2019).

42)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12.

것이며, 그중 일부는 이미 많은 아이를 낳았다.⁴³⁾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테러와 폭력적인 이슬람교 지하드 집단 보코하람(Boko Haram)의 활동무대인 나이지리아는, 2025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2배인 4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⁴⁴⁾

한편 아프리카 대륙에서 매년 인구가 3%씩 증가하는 곳은 콩고민주공화국이다. 국내 총생산(GDP) 규모가 580달러에 불과하지만, 부패와 인권 유린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있고 반정부 세력들이 동부와 남부 주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다.⁴⁵⁾ 어린아이들은 소년병으로 차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은 르완다를 비롯하여 유럽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는데, 콩고민주공화국 인구가 9천만 명에 이르는데 2019년에는 그 중 167만 명이 난민이 되어 방황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알 샤바브(al-Shabaab) 같은 테러집단들은 어딘가에 소속될 곳을 찾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케냐와 우간다, 탄자니아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동·서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이슬람교 극단주의 지하드 테러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변화 속도가 인구학자들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감소하지만, 향후 수십 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이 증가할 것이다. 제니퍼 D. 스쿠바는 미래 지향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금세기 중에서 6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2020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역들의 합계 출산율 부분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4.72%나 증가하고 북아프리카는 2.93%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⁴⁷⁾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국가별 인구 증가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생활 수준과 사망률 감소, 교육 수준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어도, 희망하는 가족 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어느 나라보다 자녀의 수가 많다.⁴⁸⁾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지부티, 에스와티니는 여성 1인당 3명 이하의 아이를 출산한다.⁴⁹⁾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10개국은 니제르, 앙골라, 말리,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감비아, 탄자니아, 차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목록에 삼입되지 않은 나이지리아는 금세기 급증한 국가로서 세계 인구 3위에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20년 출산율이 5.96%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인구가 74%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간다 인구는 2020년 4,570만 명에서 2030년 5,9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⁵⁰⁾ 전 세계에서 인구 성장률이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당분간 인구 증가의 대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인 고령화와 바닥난 연금, 고령화 시대의 딜레마, 이민자 앞에 달린 문⁵¹⁾은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43) 인스파일러, “[세계] (순위) 국가 인구(인구 많은 순) (2023년),” 인스파일러, https://insfiler.com/detail/rt_pop_world-0001/ 2023년11월16일 검색.

44) Jennifer D. Sciubba,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김병순 옮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서울: 오름출판 2023), 11-12.

45) 콩고민주공화국은 오랜 내전과 분쟁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CLÉMENTINE ANDRÉ,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IDMC, May 24, 2023,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democratic-republic-of-the-congo> 2023년11월16일 검색

46) Jennifer D. Sciubba,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14.

47) Jennifer D. Sciubba,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19.

48) John Bongaarts, “Can Family Planning Programs Reduce High Desired Family Size in Sub-Saharan Afric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on Health』37,no4(2011): 210.

49)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인구는 증가보다는 서서히 하향세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만난 S씨는 르완다의 경우도 급격한 인구 증가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2023년8월26일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만난 S씨와의 인터뷰.

50) Jennifer D. Sciubba,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61-62 재인용.

51) Nouriel Roubini, *Megathreats*, 박슬라 옮김 『초거대위협』(서울: 한국경제신문, 2023), 77-94.

3. 기후 환경 변화와 식량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2023년 여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산악지대에서는 낮 기온이 낮아 낮에도 겨울 잠바를 입고 다녔고 여름채소의 작황이 좋지 않아 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⁵²⁾ 연구자가 2023년8월15일-9월1일까지 르완다 키갈리과 지방에 체류하는 동안 건기임에도 비가 내리는 이상 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인구 증가,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구통계를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초강대국들의 지표를 아프리카에서 재고할 수 있을까?’라는 또 하나의 고민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한 통계와 분석 도구만 있다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해 기후 환경과 식량,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통계의 현실 사이에서 함의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엄청난 추위,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구,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안선, 갑자기 사라지는 동물, 농경의 발전, 기후변화와 인류의 이동(이주민)⁵³⁾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변화의 징후들이 많아지고 있다.⁵⁴⁾

제니퍼 D. 스쿠바(Jennifer D. Sciubba.)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현재 자기가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 2-4%의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다.⁵⁵⁾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언론은 중동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난민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정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문제에 대한 가시 돌진 논쟁거리를 보도하고, 정주민과의 문화적 충돌과 게토화에 대하여 걱정한다. 어느 누구나 정주민과 이주민, 난민과 관련된 논쟁에 익숙해지면 정주민보다 이주민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이동은 출산이나 사망보다 국내 인구의 변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국가들에서 기후 환경변화와 내전, 빈곤으로 인한 이주⁵⁶⁾는 극적으로 사회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이주보다 더 빠르게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통계적 추세는 없다. 2017년3월 이후 남수단과 나이지리아에서 살던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⁵⁷⁾으로 고통을 겪었다. 모두 종족 분쟁과 이슬람교 극단주의 테러 집단에 의해 고통을 받는 국가들이다.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에 의해 사망한 자가 2021년6월까지 무려 3만 명이나 되고, 2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다.⁵⁸⁾

2020년 이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8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분쟁과 폭력으로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강제 실향민은 2023년 1억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인구 80명 가운데 1명이 강제 실향민이다.⁵⁹⁾ 이 같은 현상을 보면 미래에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게 된다. 거기가 저물가, 저이자울, 불평등의 시대는 가고 고물가, 고이자울,⁶⁰⁾ 불평등이 완화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

52) 2023년 9월 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거주 S 선교사와의 전화인터뷰.

53) Parag Khanna, *MOVE: The Forces Uprooting Us*, 박흥경 옮김 『대이동의 시대』(경기 파주: 한울엠앤씨, 2022), 27-35.

54) 박정재, 『기후의 힘』(서울: 바다출판사, 2021), 19-40, 99-150, 263-290.

55) Jennifer D. Sciubba,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34.

56) Gaia Vince, *Nomad Century- How to Survive the Climate Upheaval*, 김명주 옮김 『인류세, 엑소더스』 (곰출판, 2023), 16-19. ; 미래사회의 이주는 아주 다양하게, 긴박한 엑소더스가 될 수 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략 10억 명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 온 지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57) 최근 몇 년간 가뭄에 시달린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3년10월에 시작된 비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홍수가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가 130명으로 집계되었다(2023년10월18일).; 유현민, “‘아프리카의 뿔’ 지역 홍수 사망자 130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2023년 11월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04900099> 2023년 11월18일 검색.

58) 장은교, “10년간 3만명 살해한 ‘아프리카의 탈레반’ 보코하람 리더 자폭 사망” 경향신문, 2021년6월7일.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106070832011#c2b> 2023년11월16일 검색.

59) UN난민기구, “세계 속의 난민, 우리 속의 난민” With You, 2023년07월31일. <http://withyou.unhcr.or.kr/2023/07/31/%EC%84%B8%EA%B3%84-%EC%86%8D%EC%9D%98-%EB%82%9C%EB%AF%BC-%EC%9A%B0%EB%A6%AC-%EC%86%8D%EC%9D%98-%EB%82%9C%EB%AF%BC/> 2023년11월16일 검색.

60)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타오르는 경제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는 2031년까지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세계적인 거시금융정책은 격동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와 식량⁶¹⁾으로 인한 기후 난민과 이주민은 증가할 것이다. 아프리카 해안 지역의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심화된다.⁶²⁾ 대역전은 곧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정부와 기독교가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정부와 기독교계는 이상과 같은 지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통념적인 관점을 반추하고 점검할 수 있을 때 미래를 향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

4. 아프리카 대륙의 스마트폰, 모바일 경제, AI 지도

최근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의 주제는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아프리카의 협력과 도전”이었다.⁶³⁾ 주제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아프리카는 협력 메커니즘의 과거,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에너지 전환시대의 화석연료 활용 논의와 과제, 농촌 개발협력 모델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 창출을 통념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의 신흥안보로 아랍의 봄 이후 이주와 수용국의 정치 안정성 연구와 정책 통합이론으로 분석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급변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체제로 새롭게 진출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은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형별 인터넷 보급, 인터넷에서 이미지넷으로의 호환⁶⁴⁾, 모바일 은행, 케냐의 M-Pesa, 아프리카의 모바일 머니 혁명⁶⁵⁾, AI 지도를 통한 데이터 구축⁶⁶⁾,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활성화 등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경제⁶⁷⁾는 역동적이다.

김광수 교수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형별 인터넷 보급률(2016-2026)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⁶⁸⁾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모바일 가게에는 번호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고객이 넘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는 젊은 세대의 글로벌 문화를 핵심적으로 주도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연구자도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시간제 혹은 15일 단위로 유심 칩을 구입해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을 사용한 바 있다. 아프리카는 2014년 이후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은행, 모바일 머니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AI는 국영기업과 군사 부문을 뛰어넘는 단계에서 군사화된 패턴 탐지 및 위협 판단이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와 기관에 대규모로 도입되고 있다.⁶⁹⁾ 김광수는 “케냐의 사파리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다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송금, 금융 등을 제공한다”⁷⁰⁾며 아프리카의 스마트화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 또한 2011-2014년까지 케냐 나이로비를 오고 가면서 사파리콤을 이용하여 국내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금융관련 업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과거 아프리카 대륙에서 ATM을 통하여 현금인출을 하였지만, 최근에 모바일 뱅크⁷¹⁾를 통한 입출금을 시도한 바 있다.⁷²⁾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 모바일 화폐

전망이다. 탈중국 수혜를 누리는 인도의 경제는 젊은 인구 8억으로 두려울 것이 없이 더 강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황성호, “2031년까지 연 7% 경제성장” …탈중국 수혜누리는 인도, 『동아일보』 2023년11월11일, 12.

61) Gaia Vince, *Nomad Century- How to Survive the Climate Upheaval*-, 42-43.; 지구가 1도 혹은 4도 상승할 경우 세계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리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농작물의 종류를 바꾸어 재배해야 한다.

62) Aslak Grinsted and Jens Hesselbjerg Christensen, “The transient sensitivity of sea level rise”, *Ocean Science* 17:1(2021): 181-183.

63)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의 협력과 도전” 자료집』, 2023.

64) Kate Crawford, *Atlas of AI: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노승영 옮김 『AI 지도책』 (서울: 소소의책, 2023)126.

65)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25-26.

66) Kate Crawford, *Atlas of AI: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26-227.

67)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27-28.

68)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25.

69) Ben. Green, *Smart Enough City: Taking off Our Tech Goggles and Reclaiming the Future of Cities*(Cambridge, Mass: MIT Press, 2019)를 참조.

70)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26.

71) 오은지, “아프리카, 모바일 뱅킹 열풍” 전자신문, 2014년11월3일. <https://www.etnews.com/20141103000031>

시장을 이끈다고 보아도 된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화폐 이용자 수는 전 세계 사용자의 45%이고 거래 규모는 전체의 64%나 차지한다. 특히 여성·농촌 주민 등 금융소외 계층에게 크게 인기 있는 분야이다.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화폐가 유행한 원인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비대면 서비스 인기에 한몫한 것이다. 금융 전산망 구축에서는 선진국보다는 뒤쳐진 감이 있지만, 아프리카는 이동전화로 결제하는 모바일 화폐에서 단연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전 지역에서 1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고, 모바일 사업 등록자가 5억5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다.⁷³⁾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머니 서비스⁷⁴⁾가 활성화되는 것은 데스크톱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금융거래는 모바일 경제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에 전기 모빌리티를 통한 국가 마스터플랜이 구축되면서 디지털 서비스의 신속한 전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 전자 상거래 정착, 국내 총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인터넷, 핸드폰 은행, 모바일 머니 서비스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 격차가 꽤 큰 폭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⁷⁵⁾ 이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 많은 경우에서 국가 내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불평등의 완화는 모바일을 사용한 자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어 평준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모바일 머니는 움직일 수 없는 자본축적 방식을 쉽게 공간적으로 이동⁷⁶⁾하게 해 준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바일 머니, 스마트폰 은행, 모바일 화폐는 여성, 젊은 층, 농촌 지역 주민 등 공식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섭은 국제빈곤 퇴치 연구 기관의 제이-팔(J-PAL)의 발표를 인용하여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등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바일 화폐 사용자들은 가족·친척 사이에서 손쉽게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한다.⁷⁷⁾ 아프리카 대륙에서 스마트폰은 농어촌을 연결하는 도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농촌 지역에 대한 이동통신 보급 확대, 금융사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화⁷⁸⁾가 주된 과제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낮은 은행⁷⁹⁾ 문턱에서 시작되는 디지털 금융으로, 이는 아프리카에 큰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내의 휴대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금융경제의 접근성 향상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밖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유튜브 채널이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는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는 세상을

2023년11월20일 검색.

72) 장훈태, 2011-2014년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체류.

73) 신기섭, “아프리카, 전 세계 모바일 화폐 시장 이끈다” 「한겨레」, 2021년9월20일자.

74) 아프리카에서는 모바일 계정을 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 이 중 143개 서비스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계좌를 만든 후 90일 동안 유지되는 모바일 머니 숫자가 1억10만 개이다. 이종현, “세계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절반 이상 아프리카에 몰려 열악한 금융 인프라 대신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활용” *economychosun*, 2017년11월21일.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0000.html 2023년11월20일 검색.

75) Charles Goodhart & Manoj Pradhan,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백우진 옮김 『인구대역전』 (서울: 생각의 힘, 2023), 167-168.

76) Harvey, D.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6), 101.

77) 신기섭, “아프리카, 전 세계 모바일 화폐 시장 이끈다” 「한겨레」, 2021년9월20일자.

78) 신기섭, “아프리카, 전 세계 모바일 화폐 시장 이끈다” 「한겨레」, 2021년9월20일자.

79) 2022년5월 기준으로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인구의 20%, 아프리카 인구의 30%만 은행계좌를 개설했을 뿐이다.: 이충복, “한강 기적은 낮은 은행문턱서 시작…디지털금융, 아프리카에 큰 기회로” 매일경제, 2022년5월10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15356> 2023년11월20일 검색.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활용을 통해 너드(Nerd)의 힘 곧 긍정적 태도와 공동의 열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국경을 넘고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유튜브는 풍자, 인증적 대표성, 온라인 영상에서 드러나는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유튜브는 인간의 감정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면서 틈새가 지닌 굉장한 가능성을 열어가게 한다. 일부 사업가들은 유튜브를 통해 광고, 천덕꾸러기에서 찾아보는 영상으로 활용하면서 회사의 광고가 멋지게 퍼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⁸⁰⁾

2024년, 아프리카 대륙의 혁신과 함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확산되는 이슬람교 극단주의의 활약⁸¹⁾, 종족 사회의 분쟁으로 인도적 위기 악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쿠데타, 테러 벨트⁸²⁾, 기독교인 협박(이슬람교 개종, 종교세 강요),⁸³⁾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⁸⁴⁾ 인터넷은 긍정적 측면 외에 부정적인 측면인 국제테러 단체 모집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⁸⁵⁾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 등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음을 인식하여 과거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AI 지도를 이용한 데이터 구축, 모바일 머니와 은행, 모바일 화폐 등 새로운 미래가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Ⅲ.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 함의

1. 14억5천만 명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한 도전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까지 빈곤, 테러, 쿠데타, 기근, 광활한 사막과 초원, 동물의 왕국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산업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기술발전과 세계화로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또한 거대한 물결을 따라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IT 기술의 도입과 유튜브 레볼루션을 통해 시간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이로 인해 개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에 관해 심오하고 독창적인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접근 없이 아프리카 땅에서 기회를 얻는 일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미래 세상에서 인재로 부상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부모와 젊은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조언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거대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에 나서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IT 기술과 의료, 교육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다양한 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변신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하 돌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⁸⁶⁾

2024년 아프리카는 대륙 곳곳에서 열리는 대선과 총선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 산업 시대를 기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정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4년 대선과 총선이 마무리되면, 아프리카 대륙은 하이컨셉(High concept)·하이터치(High touch)시대

80) Robert Kyncl & Maany Peyvan, *Streamponks: YouTube and the Revolutionaries Remaking Entertainment*, 신솔잎 옮김 『유튜브 레볼루션』 (서울: 더 웨스트, 2018), 260-290. 347-348.

81) 수단, 말리,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테러와 폭력, 종교적 차별 등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TCN R3,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사 등 살해”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2023년2월3일. <https://texaschristiannews.com/%EC%88%98%EB%8B%A8%EC%97%90%EC%84%9C-%EC%9D%B4%EC%8A%AC%EB%9E%8C-%EA%B7%B9%EB%8B%A8%EC%A3%BC%EC%9D%98%EC%9E%90%EB%93%A4%EC%9D%B4-%EB%AA%A9%EC%82%AC-%EB%93%B1-%EC%82%B4%ED%95%B4/> 2023년11월20일 검색.

82) 임기대,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밀매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어권 국가의 문화 다양성」 단국대학교 프랑코포니연구소 2020년 12월19일 정기학술대회(2020):7-13.

83) TCN R3,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사 등 살해”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2023년2월3일.

84) 진소영, “독립 이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아프리카와 미래」 제2호(2023): 83-84.

85) 장지향, 『최소한의 중동수업』 (서울: 시공사, 2023), 246-251.

86)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김명철 옮김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0), 9.

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젊은 정부 각료들이 비즈니스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젊은이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식근로자로 활동하면서 그들에 의한 풍요, 자동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모바일 화폐와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활성화, AI⁸⁷⁾와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정보화 사회에서 컨셉과 감성의 사회로 변환하기 때문이다.⁸⁸⁾ 이제 한국 정부와 기독교계는 아프리카 비즈니스와 선교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아프리카를 향한 발돋움은 조금 더 특별한 관점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로 한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인재가 파견되어 연구자로 활동해야 한다.

둘째, 아프리카인들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칼라의 업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고와 삶에 대한 접근하고, 이를 통해 활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프리카인들은 감성도 뛰어나고 종족마다 특별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할 때 기능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디자인(design)으로 승부하면서 이들의 감성을 터치해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스타일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롬 13:14) 사랑과 삶의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넷째, 아프리카인은 이야기를 잘한다. 각 종족마다 구전문화⁸⁹⁾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의 강조, 주장만으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그들을 위한 스토리(story)를 견비해야 한다.⁹⁰⁾ 아프리카 도시와 농촌은 각종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어 강력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테이블에 앉아, 본질적인 일을 위한 설득, 의사소통, 자기이해, 경청을 통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프리카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집중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로 ‘조화(symphony)’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산업화·정보화 시대에서는 선택과 집중·전문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업무가 아프리카로 넘어가거나 소프트웨어로 인해 줄어들에 따라 그 반대의 특질들이 첨가되기 시작했다. 즉 작은 부분들을 붙이는 능력(모자이크 능력)과 조화능력이 그것이다. 아프리카의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조화, 통합’이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능력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인류학적 차이와 문화의 격차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질적인 조각들을 결합해 내는 능력이다.⁹¹⁾

여섯째, 아프리카인을 만나면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공감’이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인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경청과 공감(empathy)은 그들의 감성을 흔들 수 있다. 그들과의 맞춤형 대화와 공감, 식탁에서의 경청은 ‘동행’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명랑한 마음에서 나오는 유머와 웃음은 비즈니스와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된다. 상대방과 만남과 대화를 나눌 때 진지한 태도는 분명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하이컨셉·하이터치 시대에는 비즈니스와 선교사역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14억 5천만 명과의 만남, 그들의 땅을 밟는 기쁨에 대한 의미(meaning)를 갖는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만남에 대한 의미와 상징을 두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중요한 가치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높은 호응과 함께 행복하게 된다.

87) Nouriel Robini, *Megathreats*: 256-287. 아프리카 대륙에서 AI의 신속한 도입과 정착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협에 있다. 기술적 실업의 시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위기, 초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와 노동의 종말을 고할지 모른다.

88)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70-92.

89) 이명석, “서부아프리카 종교적 특성연구: 구정형태(노래·기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미래』 창간호(2023.02): 178-192.

90)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95.

91)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95.

2. 정치·경제·사회와 선교 시스템 새 판 짜기

산업화 이전 지구는 온전하다는 평가였다. 산업화와 글로컬 문화, 제4차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 3도,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위기 시대가 오고 있다. 수많은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탄소 중립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막연한 설득과 홍보 대신에 급격하게 바꾸어야 할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2024년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전환점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토대 구축보다는 정치·경제·사회·교육 시스템의 새 판을 짜야 할 시기가 되었고, 종교계의 선교 방법도 다 각화되어야만 한다. 가이아 빈스(Gaia Vince)는 “전 세계 인류의 문제는 인류가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구 시민과 이주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복원해 인류세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⁹²⁾ “이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생존 비결이다”라고 덧붙인다.⁹³⁾ 그의 주장대로 인류가 이주하는 것만이 새 판 짜기라 한다면 모든 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인류에게는 커다란 혼란이 다가오게 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 빈곤에 허덕이는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와 각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새 판을 짚으로 위기⁹⁴⁾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새 판 짜기는 첫째,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가 대 국가, 종족과 종족,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54개국의 생존을 위한 방법은 상호 협력으로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우리 종만의 독특한 특성과 어떻게 기후를 지배하고 지냈는가, 종교적 삶과 철학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가정, 조직에서의 이주를 하도록 하는 일이다. 일부는 잠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주하거나,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 욕구를 해결하도록 하는 일이다.⁹⁵⁾ 셋째, 아프리카를 비롯해 기온이 섭씨 3-4도 상승한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유엔을 통한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사막에 녹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녹지의 조성으로 사막으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⁹⁶⁾ 이 계획에는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도시 건설과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의존하는 방법이다.⁹⁷⁾ 또 인구 감소와 증가에 적응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모두가 이주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문화를 잇는 가교로 우리 자신은 물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다. 새 판 짜기는 상호이해와 협동에서 비롯되기에 소중한 우정 쌓기, 다른 삶의 스타일에 대한 통찰, 이웃에 대한 친밀한 이해와 새로운 언어 능력으로 소통하는 일이다. 다섯째, 지나친 정체성, 이념을 강조하게 되면 아주 극명한 형태로 충돌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새 판 짜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창조의 때를 기억하고 되돌아가는 방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인간은 방관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제자로 활동하는 일이다. 새 판 짜기는 국제연합과 협력해야만 가능하겠지만 교파를 초월한 성경적 관점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급선무이다. 인류 최대의 경전이라 일컫는 성경에 지금까지의 보물을 숨겨 놓았는데 이를 찾으면 해답을 얻게 된다(잠 25:2).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보물을 찾는 대신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 즐거움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럼에도 그분의 옛길을 찾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⁹⁸⁾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거나 좋은 기회의 창을 가진다 해도 중국에는 닫힐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새 판 짜기는 준비와 언젠가 닫히게 될 중국을 준비하면서 인구통계학·경제와 사회통계학·종교 통계학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구를 만들어 가야

92)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48-69.

93)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73.

94) Jared Diamond, *Upheaval*, 강주현 옮김 『대변동-위기, 선택, 변화-』(경기파주: 김영사, 2019), 43-74.

95) 정주는 사회 구조 수준에서 이점이 있고 더 복잡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묶여 있을 경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96) 부르키나파소 서남쪽 지역은 사막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나, 최근 일본과 대만의 농촌진흥원에서 이 지역에 농업용 수로를 만들고 난 뒤 벼농사를 짓고 있다(필자 주).

97)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187-188.

98) Mark Biltz, *God's Day Timer*, 조용식 옮김, 『하나님의 시간표』(서울: 순전한 나드, 2019), 12.

한다. 그럼에도 인간 사회는 불평등은 확대되고 깊어질 것이고 북아프리카는 중동국가와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식량, 폭염, 자원, 인구증가와 감소, 이주, 정치적 폭력, 빈곤, 질병(황열병 확산)으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IV. 나가는 말

지금 전 세계는 2020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 고금리와 고유가, 식량 위기 및 기후위기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과감한 정치력과 통화 정책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 ‘모든 위기의 어머니’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 일부 국가의 2024년 대선은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뉴 블루오션으로 아프리카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략적 가치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는 경제적 섬이라 일컫는 도시 인구의 성장률과 인구 팽창으로 2023년 전 세계 인구의 17.89%를 차지하는 곳이자, 인구 평균 연령 18.8세인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상위 8개 국가의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 4.1%에서 2023년 3.8%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도 향후 2025년까지는 매년 4%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⁹⁾ 아프리카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한 모바일 산업의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2019년 이후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과 모바일 화폐 사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세계 각국의 모바일 산업의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26개 국가 가운데 16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속해 있을 정도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산업은 인터넷 보급, 핸드폰 은행, 모바일 머니 혁명과 머니 서비스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모바일 산업에 힘입어 AI를 통한 통계와 챗GPT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24년은 전 세계가 아프리카의 주요광물 부존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 개발에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고, 원유 매장량도 높아 광물을 놓고 분쟁 중에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체계적인 광해 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하고자 광산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고 있다.¹⁰⁰⁾ 분쟁자원과 함께 세계 경제 편입과 서구 열강의 구축,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와 아프리카의 착취,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와 함께 강대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2024년 일부 국가의 대선과 함께 아프리카는 또 하나의 비전을 향한 희망과 전망을 갖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의 국제관계는 쿠데타와 종족분쟁 종식, 냉전의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은 대륙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과 지역협력 강화 속에 실리주의 외교 전략으로 강화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국제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 지역협력기구의 협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러시아 지지로 돌아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튀르키예, 인도, 중국 가운데 한국은 새마을 운동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와 기근, 홍수, 전염병, 종족 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과 이동,¹⁰¹⁾ 난민의 유입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난민은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식수와 하수, 전기와 정보 분야¹⁰²⁾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다.

아프리카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전 세계의 관심 대륙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과제들은 단순하지 않지만 현지 조사와 종족 그룹과의 토의로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해답은 창조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창조자의 시간표에서 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변화와 발전과제를 알고 싶다면, 시작에서 그 형태들을 찾아야 한다(전 1:9). 우리는 모에드(מועד) 곧 ‘신성한 약속 시간’을 알고 창세기 1장 14절의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즐거

99)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자료 참조.

100) 심권용, “한·아프리카자원 개발협력-과거, 현재와 미래-”, 4.

101) Mimi Sheller, *Mobility Justice*, 최영석 옮김 『모빌리티의 정의』 (서울: 엘피, 2019), 234-235.

102) Amin A. & Thrift, N. *Cities: Reimagining the Urban* (Cambridge: Polity, 2002), 82.

로움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단행본

장지향. 『최소한의 중동수업』. 서울: 시공사, 2023.

A. Amin & N. Thrift. *Cities: Reimagining the Urban*. Cambridge: Polity, 2002.

Biltz, Mark. *God's Day Timer*. 조용식 옮김. 『하나님의 시간표』. 서울: 순전한 야드, 2019.

Crawford, Kate. *Atlas of AI: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노승영 옮김. 『AI지도책』. 서울: 소소의책, 2023.

D. Harvey,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6.

Diamond, Jared. *Upheaval*. 강주헌 옮김. 『대변동-위기, 선택, 변화-』. 경기파주: 김영사, 2019.

Duffy, Babby. *Generations*. 이영래 옮김. 『세대 감각』. 서울: 에크로스, 2022.

Green, Ben. *Smart Enough City: Talking off Our Tech Goggles and Reclaiming the Future of Cities*. Cambridge Mass: MIT Press, 2019.

Becker, Abraham S. "The Soviet Union and the Third World: The Economic Dimension," Andrzej korbonski and Francis Fukuyama eds., *The Soviet Union and the Third World: The Last Three Decad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Bongaarts, John. "Can Family Planning Programs Reduce High Desired Family Size in Sub-Saharan Afric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on Health* 37 no.4, 2011.

Boehm, C. Flaaen, A & N. Pandlai-Nayar, *Multinationals, Offshoring, and the Decline of U.S. Manufactur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5824, 2019.

Charles, Goodhart. & Pradhan, Manoj.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백우진 옮김. 『인구대역전』. 서울: 생각의 힘, 2023.

Khanna, Parag, *MOVE: The Forces Uprooting Us*. 박홍경 옮김. 『대이동의 시대』. 비즈니스맵, 2022.

Khanna, Parag, *Streamunks: YouTube and the Revolutionaries Remaking Entertainment*. 신솔잎 옮김. 『유튜브 레볼루션』. 서울: 더 웨스트, 2018.

Pink, Daniel.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김명철 옮김.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0.

Robini, Nouriel. *Megathreats* 박슬라 옮김. 『초거대위협』. 서울: 한국경제신문, 2023.

박정재. 『기후의 힘』. 서울: 바다출판사, 2021.

Sciubba, Jennifer D. *8Billion and Counting: How Population Trends Shape Our World*. 김병순 옮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서울: 오름출판, 2023.

Sheller, Mimi. *Mobility Justice*. 최영석 옮김. 『모빌리티의 정의』. 서울: 앨피, 2019.

Vince, Gaia, *Nomad Century- How to Survive the Climate Upheaval-*. 김명주 옮김. 『인류세, 엑소더스』. 곰 출판, 2023.

Westad, Odd Arne. *Global Cold War :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 옥청준, 오석주, 김동욱, 강유지 옮김.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서울: 에코리브르, 2020.

Zeihan, Peter.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홍지수 옮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서울: 김앤김북스, 2023.

논문자료

- 김현주. “프랑스어권 국가인 모로코의 경제적 변화와 도전.” *단국대학교 프랑코포니연구소 2020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0)*: 24-3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주화 진통 겪는 아프리카 각국, 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우려스러운 시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심권용. “한/아프리카자원개발협력 과거·현재와 미래.” *국회 아프리카 포럼* (2023): 1-29.
- 이명석. “서부아프리카 종교적 특성연구: 구전형태(노래·기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미래 창간호* (2023): 175-202.
- 임기대.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밀매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프랑코포니연구소 2020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0)*: 5-22.
- 정민지·박규태.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6권7호* (2023): 1-17.
- 진소영. “독립 이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 *아프리카와 미래 제2호* (2023): 75-94.
- 한국중동학회·한국아프리카학회, 『“세계 질서 다극화와 중동·아프리카의 협력과 도전” 자료집』, 2023.
- 한선이·김예진·정민지·박규태.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23권2호* (2023): 1-31.
- Grinsted Aslak, H. Christensen, Jens. “The transient sensitivity of sea level rise”, *Ocean Science* 17:1, 2021.

신문자료

- 박노필. “‘인구 폭탄’은 터지지 않는다…30년 안에 세계인구 정점” *한겨레*. 2023년4월17일.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88129.html> 2023년11월9일 검색.
- 김미향. “짐바브웨 대선, 80살 현직 vs 45살 야당 대표 초박빙” *한겨레*. 2023년8월24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5636.html 2023년11월8일 검색.
- 김서영. “치솟는 빈곤·정치 불안정…희망 찾기 힘든 짐바브웨 선거” *경향신문*. 2023년8월23일.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308231610001#c2b> 2023년11월8일 검색.
- 김아영. “개종 팬 사형… 목회자 손발 절단… 수단 ‘수난의 크리스마스’” *더미션*. 2023년 4월25일.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19> 2023년11월20일 검색.
- 노정연. “중국 초혼자 수 37년 만에 최저…유치원도 줄줄이 폐업” *경향신문*. 2023년11월21일.
- 신기섭. “아프리카, 전 세계 모바일 화폐 시장 이끈다” *한겨레*. 2021년9월20일.
- 오은지. “아프리카, 모바일 뱅킹 열풍” *전자신문*. 2014년11월3일. <https://www.etnews.com/20141103000031> 2023년11월20일 검색.
- 유현민. “‘아프리카의 빨’ 지역 홍수 사망자 130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2023년11월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04900099> 2023년11월18일 검색.
- 유현민. “아프리카 '쿠데타벨트' 5천600km …서쪽 기니에서 동쪽 수단까지” *연합뉴스*. 2023년8월1일. <http://www.yna.co.kr/view/AKR20230801152900099> 2023년11월1일 검색.
- 이경식. “아프리카 EV 산업 특징과 주목할 만한 기업” *The Korea Post*. 2023년11월3일. <https://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13> 2023년11월12일 검색.
- 이종현. “세계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절반 이상 아프리카에 몰려 열악한 금융 인프라 대신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활용” *economychosun*. 2017년11월21일.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0000.html 2023년11월20일 검색.
- 이축복. “한강 기적은 낮은 은행문턱서 시작…디지털금융, 아프리카에 큰 기회로” *매일경제*. 2022년5월10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0315356> 2023년11월20일 검색.

장은교. “10년간 3만명 살해한 '아프리카의 탈레반' 보코하람 리더 자폭 사망” *경향신문*. 2021년6월7일.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106070832011#c2b> 2023년11월16일 검색.

황성호. ““2031년까지 연 7% 경제성장”… 탈중국 수혜 누리는 인도” *동아일보*. 2023년11월11일.

한상춘. “인구절벽 원년이 될 2024년 세계 경제…과연 복합 불황에 빠지나” *한국경제TV*. 2023년10월30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0300030&t=KO> 2023년11월9일 검색.

Anmar Frangoul. “India set to overtake China as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in 2023, UN says” *CNBC*. 2022년7월11일. <https://cnb.cx/3P2j6CU> 2023년11월9일 검색.

Michael Bush. “Trust in Government Plunges to Historic Low” *Edelman*. 19 January 2014. <http://www.edelman.com/news-awards/trust-government-plunges-historic-low> 2023년11월9일 검색.

Lusa. “Mozambique: Country’s biggest gas-fired power plant 60% ready, on line in 2024 - minister” *clubofmozambique*. 2023년11월6일. <https://clubofmozambique.com/news/mozambique-countrys-biggest-gas-fired-power-plant-60-ready-on-line-in-2024-minister-248194/> 2023년11월9일 검색.

Pew Research Center, “Europe’s Growing Muslim Population”, *Pew Research Center*, 2017년11월29일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7/11/29/europes-growing-muslim-population/> 2023년11월21일 검색.

TCN R3. “수단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사 등 살해”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2023년2월3일 <https://texaschristiannews.com/%EC%88%98%EB%8B%A8%EC%97%90%EC%84%9C-%EC%9D%B4%EC%8A%AC%EB%9E%8C-%EA%B7%B9%EB%8B%A8%EC%A3%BC%EC%9D%98%EC%9E%90%EB%93%A4%EC%9D%B4-%EB%AA%A9%EC%82%AC-%EB%93%B1-%EC%82%B4%ED%95%B4/> 2023년11월20일 검색.

웹사이트

“시릴 라마포사.” 나무위키. 2023년11월8일. <https://namu.wiki/w/%EC%8B%9C%EB%A6%B4%20%EB%9D%BC%EB%A7%88%ED%8F%AC%EC%82%AC>

“폴 카가메.” 나무위키. 2023년11월8일. <https://namu.wiki/w/%ED%8F%B4%20%EC%B9%B4%EA%B0%80%EB%A9%94>

인스파일러. “[세계] (순위) 국가 인구(인구 많은 순) (2023년).” 인스파일러. https://insfiler.com/detail/rt_pop_world-0001/ 2023년11월16일 검색.

CLÉMENTINE ANDRÉ,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IDMC, May 24, 2023.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democratic-republic-of-the-congo> 2023년11월16일 검색

김영완. “르완다의 발전과 카가메 대통령.” 신흥지역정보 지식종합포탈. 2021년9월9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19799&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3&pageCnt=10 2023년11월9일 검색.

Moremi, Letlhogonolo. “[보츠와나] 보츠와나, 2024년 대선 준비중” 한·아프리카재단. 2023년10월30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10300030&t=KO> 2023년11월9일 검색.

KBC, The Star. “케냐정부, 국내 더 많은 댐 건설 승인.”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3년11월7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mid=a10500000000&systemcode=05&brdctsNo=356137> 2023년11월17일 검색.

This Day Live, ARISE News. “피치, 나이지리아 신용등급 안정... 인플레이션 21% 미만 전망.” 신흥지

역정보 지식종합포탈. 2023년11월8일.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56183&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tPage=1&pageCnt=10; 2023년11월 9일 검색.

UN난민기구. “세계 속의 난민, 우리 속의 난민.” With You. 2023년07월31일. <http://withyou.unhcr.or.kr/2023/07/31/%EC%84%B8%EA%B3%84-%EC%86%8D%EC%9D%98-%EB%82%9C%EB%AF%BC-%EC%9A%B0%EB%A6%AC-%EC%86%8D%EC%9D%98-%EB%82%9C%EB%AF%BC/> 2023년11월16일 검색.

인터뷰 및 기타

김광수, “왜(Why) 우리는 아프리카에 주목해야 하는가?-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동네 청바지인 문학-지식나눔-」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1층 금색소극장, 2023년11월8일 강연.

장훈태, 2011-2014년 동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체류.

2023년8월26일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만난 S씨와의 인터뷰.

2023년9월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거주 S 선교사의 전화인터뷰.

【 주제별 발표 제1세션 】

01 최근 알제리의 언어정책 현황과 쟁점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본회 부회장)

02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지역주의: 현황과 과제
김유원(동국대학교)

03 미아프리카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유네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백영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근 알제리의 언어정책 현황과 쟁점

부산외대 프랑스어과
임기대 교수



BU
FS

강좌

목 차

1. 몇가지 사실들
2. 마그레브 지역과 사람들
3. 알제리의 언어사용
4. 알제리의 언어사용과 체제변화
5. 그렇다면 현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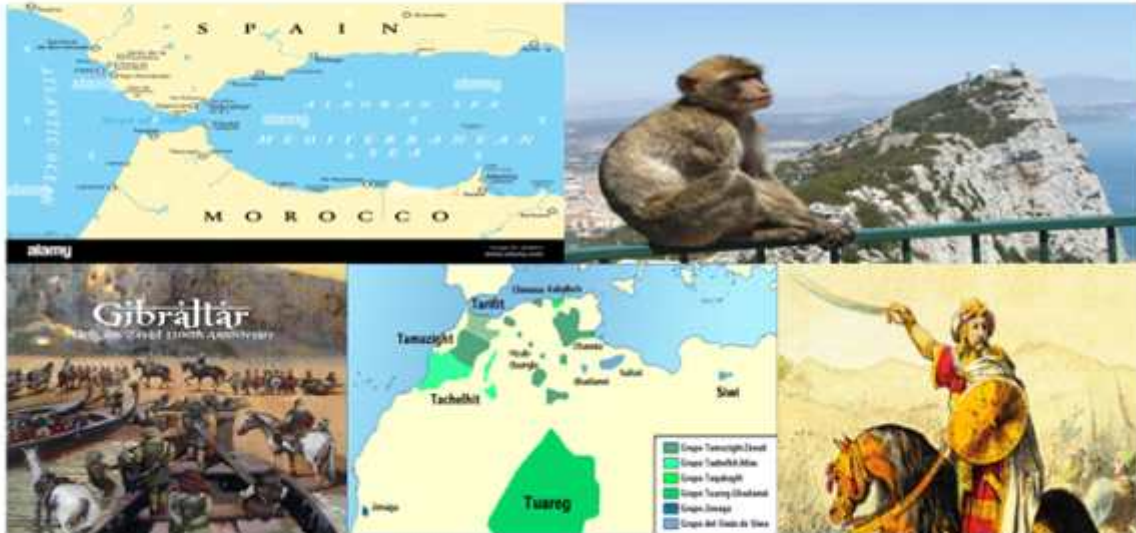
Conséquences Tifinagh-Dzani de base

Autres lettres Tifinagh Dzani, idéogrammes et lettres touaregues modernes utilisé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지브롤터(타리크 이븐 지야드)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역대하 12장, 열왕기상 11, 14장

Shoshenq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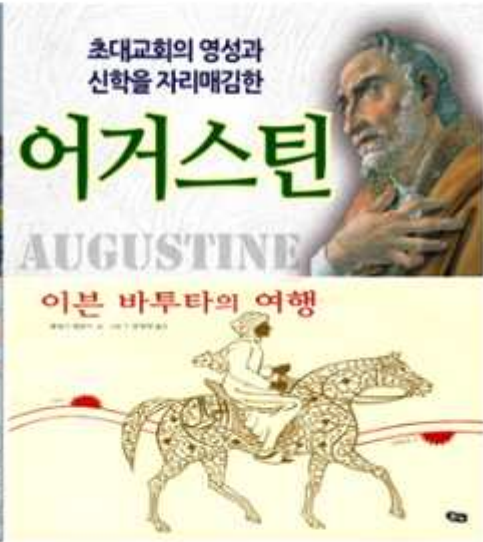
https://en.wikipedia.org/wiki/The_Tomb_of_King_Shoshenq_I



하나성경 www.hbible.co.k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과 이븐 바투타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13대(1996-1997),
17대(2009-2021), 19대(2022.12-현재) 총리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몇 가지...예체능 등의 분야



'마그레브'(Maghreb) 어떤 곳:

1. 마그레브 지역은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문화 지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곳
2. 이슬람국가이기에 중동과 이스라엘과도 연관성이 있는 곳
3.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와 로마 문명의 한 축이며, 아프리카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명의 '교차로'



지중해지역(건축)



평원



사막(사하라와 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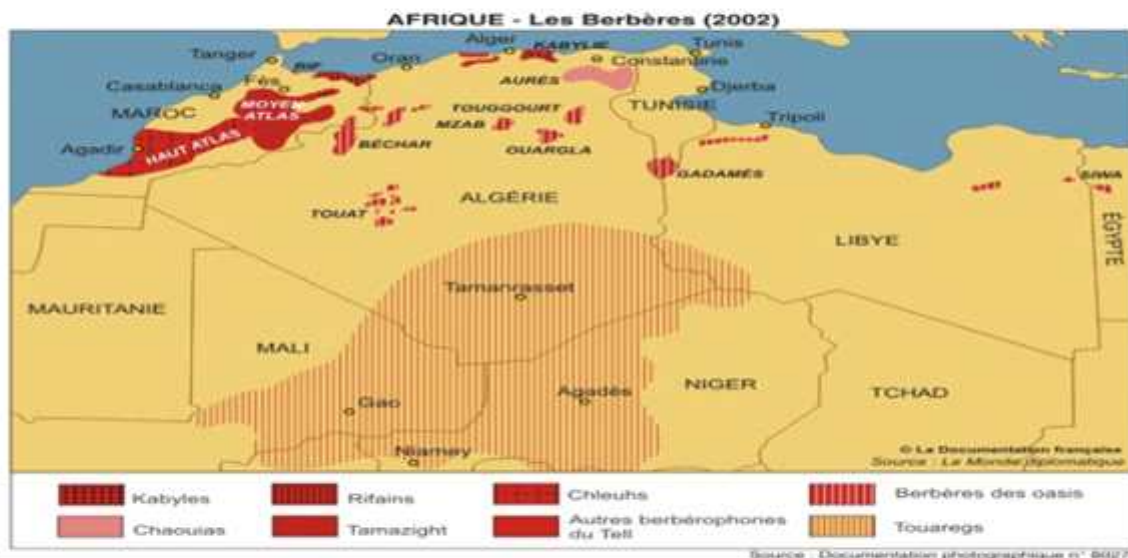
1. 알제리는 모로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명이 교차했던 지역
2. 언어 또한 이런 지리적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여 형성되어 있음
3. 아랍이슬람화 된 이후에는 아랍어, 그 이전에는 베르베르어와 라틴어, 프랑스의 식민지배 이후에는 프랑스어가 혼용
4. 이런 상황에서 형성된 언어 사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흥미롭게 보여짐



알제리의 언어사용: 주언어1,2,3+소수어

주언어1				주언어2				주언어3	소수어
아랍어(공용어)				아마지그어(공용어)				프랑스어 (상용어)	스페인어, 영어, 터키어
고전 아랍어	문학 아랍어	표준 현대 아랍어	다르자	카빌어	샤우이어	모자비트 어	투아 레그 어	전국의 대도시	특수 지역

아마지그어 분포: 프랑스어는 아마지그어 사용권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 현황이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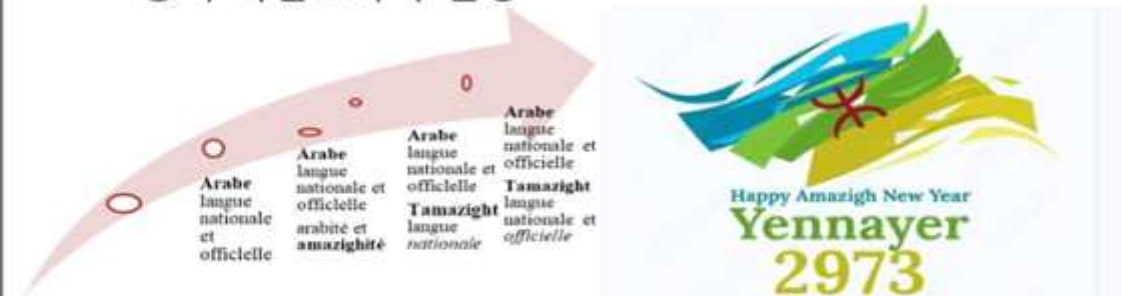




알제리의 언어사용의 특징:

- 알제리인 대다수는 여러 언어를 구사. 출신지, 가정 환경,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구사하는 언어가 다름
- 대도시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일상의 언어
- 공문서도 프랑스어로만 작성 가능. 과학 및 의학 등에서는 프랑스어가 강세
- 고등학교까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다가도 대학 들어와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독립 후 아랍이슬람화 정책 추진 : 프랑스어 문화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아마지그어까지 억압
- 하지만 아마지그인들의 반발과 시위, 아마지그어의 국어(Langue nationale) 지위 인정(1999), 공용어(Langue officielle) 지위 인정(2016)을 초래함
- 아마지그인들의 최대 명절인 '옌나예르'(Yennayer)를 공식 축일로까지 인정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아마지그 문화가 부활하면서 프랑스어 배제 정책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짐. 프랑스어 배제 정책은 실패
- 1990년대 테러리즘 시기를 거쳐 부테플리카 대통령(1999-2019)의 등장으로 알제리는 외자 유치 등을 위한 시장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오히려 프랑스어 사용자가 더 우대받는 상황이 됨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2019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알제리 정치 상황은 급변하게 됨
- 민중 시위, 즉 '히락'(Hirak)이 발생하면서 민중들은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정치 체제 요구
- 젊은이들은 우리가 왜 식민지배어인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는가? 등 기득권과 기존의 정치사회 문제를 제기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정권 내에서도 고등교육부 장관은 "박사과정부터 점차 영어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알제리 대학으로 장학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글로벌 언어이며 이 언어(영어)는 세계 대학 순위 기준에서 중요하다."(2019년 8월 오랑대학교 연설)
- 새로운 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명분으로 프랑스와 대립각을 세움
- 여기에다 마크롱 대통령의 알제리에 적대적인 발언(2021.9) 등이 문제를 키움
- 프랑스와의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커짐. 동시에 알제리에서는 압델마지드 테분 대통령이 취임(2019.12)하면서 더욱 관계 악화 됨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테분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알제리에서 공부한 첫 대통령. 프랑스와는 그리 밀착되지 않은 인물
-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는 결국 프랑스어를 대체할 언어로 영어를 격상시키려는 정부 정책을 제고하도록 해줌
- 테분 대통령은 2022년 9월부터 프랑스어를 9살부터 의무 교육한 것을 영어교육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발표. 마크롱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이 이어짐(2022.08.30)

"프랑스어는 전쟁의 산물이지만
영어는 말 그대로 국제어"

- 테분 대통령이 프랑스어를 배척하고 영어 사용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취약한 정치적 기반 하에 기존의 권력, 즉 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방편
- 이전 정권에서 프랑스어를 배척한다고 하면서 시행한 아랍어 정책의 실패. 그렇다면 영어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모국어인 아랍어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 영어 정책 발표를 체계적인 영어 교사 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대 혼란을 겪는 모습
- 서구에 반감을 갖는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등

- 프랑스어는 알제리인들의 삶의 일부이자 문화가 된지 오래라는 알제리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테분 대통령 또한 정작 일상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중성 (정상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프랑스어로 설명)을 보임
- 현재의 언어정책은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식민지배의 산물인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정권의 의지가 확고해 보임



감사합니다

BU
FS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지역주의: 현황과 과제

김유원(동국대학교 강사)

1. 서론

국제정치학의 연구 주제로서 에너지가 부상하면서 관련 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에너지 거버넌스의 중심 행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이를 다른 분석수준에서 고찰하려는 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지방정부나 도시¹⁾, 지역²⁾, 지구적³⁾ 차원 등 다층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석수준의 제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 특징, 한계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가가 추구하고 확보해야하는 목표로서의 에너지 안보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 경쟁을 야기한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지구 내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태양광, 풍력과 같이 끊임없이 생산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 또한 생산 설비와 건설 가능한 토지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 기술, 자본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국가가 항상 확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양차 세계대전 및 석유파동 시기부터 에너지는 전쟁 혹은 갈등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 또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에너지 소비국을 중심으로 모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나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있고 동지중해가스포럼(EMGF: East Mediterranean Gas Forum)이나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와 같은 지역기구도 설립된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의 국제기구들도 에너지 부문의 협력이나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를 중심으로 역내 회원국 간 에너지 협력을 고찰하려 한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기구인 ECOWAS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제도적 발전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과제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에너지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법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안보 상황, 협력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특히 서아프리카 가스 파이프라인(WAGP: West African Gas Pipeline)과 서아프리카 파워 풀(WAPP: West African Power Pool)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에너지 지역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2. 에너지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제사회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는 경제와 발전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 에너지 안보의 의미는 주로 석유 공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석유 수출 국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1) N. Edomah and S. Nwaubani (2014) "Energy security challenges in developing African mega cities: the Lagos experience," *Built Environment*, pp. 1-9 참고.

2) 관련 연구로는 Brigid Gavin and Sangsoo Lee (2007)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Lessons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Asia Europe Journal*, pp. 401-415; Benjamin K. Sovacool (2009) "Energy polic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history,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the trans-ASEAN gas pipeline network," *Energy Policy*, pp. 2356-2367 등 참고.

3) 예를 들어 Andreas Goldthau (2012) "A public policy perspective on global energy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3(1), pp. 65-84 참고.

내포했다⁴⁾.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접근성, 지불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에너지 안보는 최근에는 자연재해, 테러리즘, 환경적 위협,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에너지연구소는 물리적 에너지 안보, 경제적 에너지 안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 안보의 기본 요소로 정의하였다. 세계은행 또한 에너지 안보의 이러한 면을 포괄하여 에너지 안보란 “국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확충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한슨(Bengt Johansson)은 에너지 안보의 다면성을 정리하면서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문제로서의 에너지 시스템과 안보 위협에 노출된 대상으로서의 에너지 시스템을 나누어 설명하였다⁶⁾. 에너지 시스템은 자원 부족이나 자원의 저주와 같은 경제적·정치적 문제, 기술적 불안정성, 기후변화나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위협을 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인프라나 자원 접근성 문제로 인한 공급 측면의 교란,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수요 측면의 교란에 직면한 대상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지역주의’란 무엇이며, 왜 에너지 안보 연구에서 지역적 이해가 필요한가? 한콕(Kathleen J. Hancock)은 에너지 지역주의를 지역 내 셋 이상 국가를 한데 묶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도로 정의⁷⁾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지역성은 역사적인 우연의 결과, 경제적·지정학적·기술적·환경적 고려의 산물, 과거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규범적 대응 등의 유형⁸⁾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상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방법으로서 헤르만(Lior Herman)과 아리엘(Jonathan Ariel)은 제도, 인프라, 무역 면에서 0부터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기준⁹⁾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측면에서 가장 심화된 형태의 지역주의는 에너지 협력을 관리하는 기구의 존재, 공동의 에너지 시장 설립을 위한 규율의 존재, 인프라 규모와 다양성이 크고, 높은 역내 수출입 비중을 지닌다.

에너지 지역주의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중에서도 한콕(Kathleen J. Hancock), 팔레스티니(Stefano Palestini)와 슐레키(Kacper Szulecki)의 연구는 에너지 지역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에너지가 점차 지역적 수준의 이슈가 되고 있음을 크게 네 가지 배경¹⁰⁾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재생 에너지와 전력 시스템의 확대의 영향이다. 이들은 국가 단위보다 지역적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둘째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보편화되면서 이들이 연결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지역주의와 에너지 정치의 관계가 지역 경제 발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 혹은 부정부패와 같은 양면적 결과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의 범위가 기후위기 등으로 넓어지면서 국가에서 지역, 대륙, 지구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되었고, 특히 지역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은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에서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공동 전력시장이나 수 개의 국가를 넘나드는 가스 파이프라인 계획은 각 지역마다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에너지 문제가 점차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포괄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각 지역기구의 정책 목표로 통합되고 있다. 특히 서 아프리카 맥락에서 지역주의와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에너지 지역주의는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4) APEC Energy Research Centre (2007) “A Quest for Energy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p. 5.

5) World Bank Group (2005) “Energy Security Issues,” *World Bank Report*, Washington, D. C., p. 5.

6) Bengt Johansson (2013) “Security aspects of future renewable energy systems - a short overview,” *Energy*, 61, p. 599.

7) Kathleen J. Hancock (2023) “Electric regionalism: path dependence, development, and the African power pools,” *Review of Policy Research*, p. 2.

8) Corey Johnson and Stacy D. VanDeveer (2021) “Energy regionalisms in theory and practice,” *Review of Policy Research*, p. 3.

9) Lior Herman and Jonathan Ariel (2021) “Comparative energy regionalism: North America and the European Energy Community,” *Review of Policy Research*, p. 4.

10) Kathleen J. Hancock, Stefano Palestini, and Kacper Szulecki (2020) “The politics of energy regionalism,” in Kathleen J. Hancock and Juliann Emmons Alli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Energy Politics*, UK: Oxford University Press.

에너지원의 양은 일정하지 않다. 국가마다 지리적 위치, 기후 및 환경, 국토 크기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원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큰 다양성을 보인다. 매장된 자원이 풍부한 국가(나이지리아)도 있는 반면, 부족한 국가(토고, 베냉 등)도 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주변 국가와 협력할 동인을 갖게 되고, 반면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원을 수출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연결을 고려하게 된다. 즉, 지역 에너지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데¹¹⁾, 먼저 에너지 수출국은 에너지원 수출을 통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수출국은 자국의 잉여 전력을 수출하여 추가 수입을 얻고, 에너지 수입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에너지 연결을 통해 자국 내 고용 신장도 꾀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수입국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주요 목표인데, 주변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은 거리상 이점이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¹²⁾. 반면, 이러한 연결에 대한 위험성으로서 에너지 수출국은 에너지 수출에서 얻는 이득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수입국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의 저하와 수출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ECOWAS 회원국 간 무역은 2021년 현재 전체 ECOWAS 글로벌 무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¹³⁾. 에너지 협력은 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촉진하며 에너지 상황의 개선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기, 물, 지구처럼 모든 상품의 전제조건¹⁴⁾”이다. 산업 발전, 교육과 보건 체계의 유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 안보이다.

3.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현황 및 협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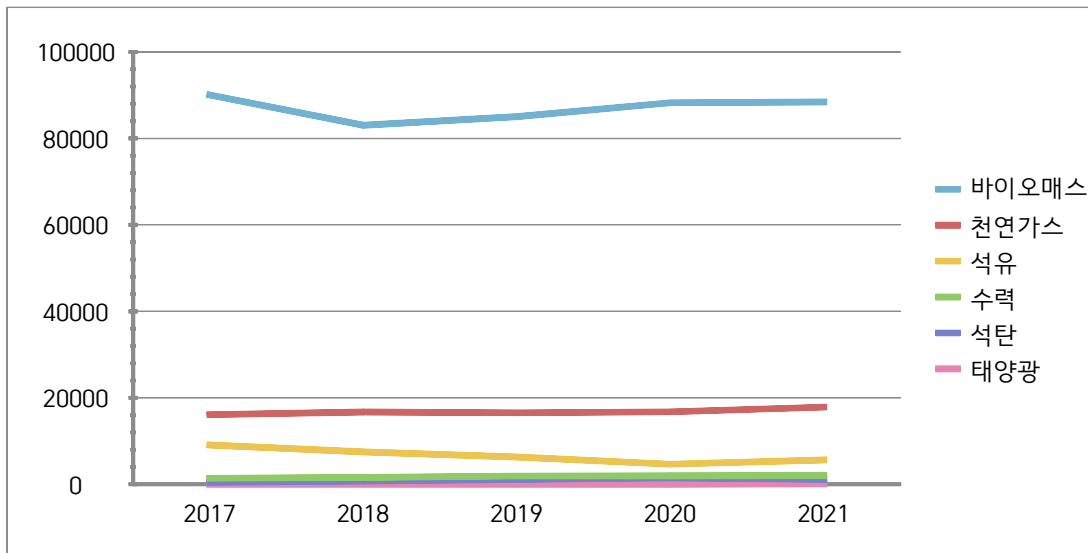


그림 16 2017~2021년 ECOWAS 역내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단위: ktoe)
(출처: ECOWAS Energy Information System)

- 11) Alfonso Medinilla, B. Byiers, and K. Karaki (2019) "African power pools: regional energy, national power," *Discuss Paper*, p. 23
- 12) Soumonni Ogundiran (2010) "A bottom-up approach to energy policy planning in West Africa: The case of distributed genera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 13) ITC News, "ECOWAS launches its regional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network," Centro de Comercio Internacional, <https://intracen.org/es/node/153>, 16 Jul 2021.
- 14) Benjamin K. Sovacool and Marilyn A. Brown (2009) "Competing dimensions of energy secur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hool of Public Policy Working Paper*, #4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 5.

그렇다면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안보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5년간의 1차 에너지원 그래프를 보면, ECOWAS 회원국들의 1차 에너지 총 공급은 주로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오매스란 동물 혹은 식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말하는데, 땀감, 동물의 배설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서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연료이다. 채취와 수집, 저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저장이나 이용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화된 에너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화석연료 사용량은 적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더 낮은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 기술 인력 양성, 강력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깨끗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은 도시보다 지방에서, 남성보다 여성과 아이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곤과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의 하나로 전기에 대한 접근율을 살펴볼 수 있다. 전기는 다른 1차 에너지원들을 통해 만들어내는 2차 에너지로 현대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에너지 형태다. 전기가 충분히 발전되고, 국가 곳곳으로 송전되고, 가정과 산업체가 안정적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ECOWAS 역내 전기에의 접근율은 지방과 도시 간 격차가 큰 편으로 지방의 경우 30%내외, 도시는 80% 후반이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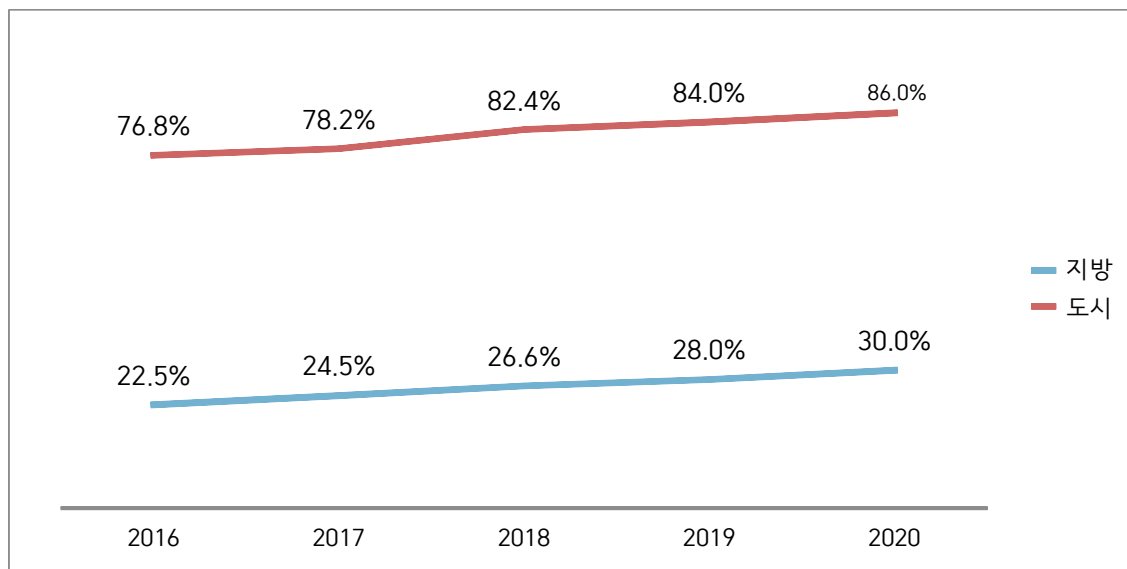


그림 17 2016~2020년 ECOWAS 역내 지방 및 도시 가정의 전기 접근율 (단위: %)
(출처: ECOWAS Energy Information System)

이러한 상황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부문은 역내 경제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ECOWAS 조약(ECOWAS REvised Treaty)은 역내 회원국 간 에너지 협력을 ECOWAS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COWAS 조약 3조¹⁵⁾는 역내 에너지원의 효과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화석연료의 정기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 기제를 마련하고,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증진하며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조화와 에너지 분야 연구와 사용에 있어 공동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6조는 지역 산업 협력에 에너지 부문도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조인된 ECOWAS 에너지 프로토콜(EEP: ECOWAS Energy Protocol) 또한 동 조약하에 역내 에너지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작용하고 있다. EEP는 ECOWAS가 “지역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및 기타 에너지 공급의 안보¹⁶⁾”를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각국이 자국의 에너지원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

15) ECOWAS Revised Treaty (1993), p. 18.

16) ECOWAS Energy Protocol (2003) Preamble.

중하고 있음¹⁷⁾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고유한 에너지에 대한 권한과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가 글로벌 공여자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며 WTO의 일반적인 시장 규범도 준수할 것임을 들어 지지하고 있다. 특히 EEP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환경적 측면으로 각국은 모든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되며 산업발전과 시민의 웰빙에 대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이지리아에 카인지 댐 건설(1968년), 토고-가나(1972년), 가나-베냉(1973년), 가나-코트디부아르(1983년), 나이지리아-베냉(2003년) 간 전력 연결망이 구축¹⁸⁾되었으며 이어서 WAGP, ECREEE(ECOWAS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WAPP와 같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AGP는 ECOWAS의 지역 에너지 이니셔티브하에 설립되었으며 서아프리카에 매장된 여러 에너지원 중에서도 천연가스 분야의 협력을 주로 하는 기구이다. 회원국 중에서도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출발하여 베냉, 토고를 거쳐 가나까지 해안가를 따라 가스관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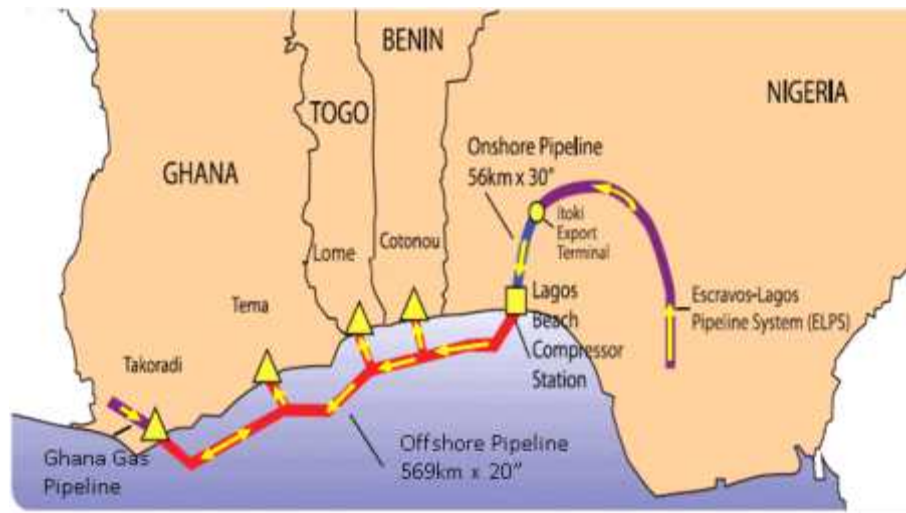


그림 18 WAGP의 개요 (출처: WAGP website)

WAGP의 목표는 먼저 나이지리아부터 가나까지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가나, 베냉, 토고에서 발전 사업을 구축,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치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680km에 달하며 사하라 이남에서 건설된 첫 지역 천연가스 수송 시스템이다. 1980년대부터 가스관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5년 처음 국가수반들 간의 협정이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1999년에는 양해각서 체결, 정부 간 협정이 2000년에 완료되었는데 특히 2000년 협정은 건설과 운영, 재정 정책 등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소유자와 분배업체를 포함하여 정부 수준에서 체결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¹⁹⁾. 이어서 2003년 WAGP 조약이 서명되어 2005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스관 건설이 시작되었다. 2008년, 가나에 처음으로 가스가 도착하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WAGP의 중요한 목적은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가스를 이용하여 주변 국가들에 전기 공급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기존에 역내 국가들은 주로 석유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발전 비용을 낮추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더불어 역내 가스 시

17) ECOWAS Energy Protocol (2003) Article 18.

18) Karim Karaki (2017) "Understanding ECOWAS Energy Policy,"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p. 5.

19) Bjerksund Petter (2010) "The Future of West Africa Gas Pipeline Project on Gas Market Development in the West African Sub Region," Master Thesi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p. 38.

장 조성으로 8만대 가량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탄소배출량 또한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²⁰⁾.

한편 WAPP은 1999년 제22회 ECOWAS 정상회의에서 첫 등장하여 2006년 조약이 통과된 기구로 역내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지역 수준으로 전기 생산 규모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약²¹⁾에 따르면, WAPP은 회원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기체계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전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어있다.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지역 전기 시장을 구축하여 역내 시민들이 전기 공급을 적절한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세웠으며, 전력과 관계된 인프라 개발도 촉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14개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ECOWAS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곳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도서국가인 카보 베르데뿐이다. 회원국 내에 36개의 전력 회사가 실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WAPP의 가장 우선적 목표는 단일 전력 시장 구축으로, 각국이 가진 에너지원의 종류와 규모가 일정하지 않음을 인식하되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위 지역의 전력 생산을 견인하고 전력 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전기 시장을 설립하는 것이 계획이다. 전기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을 하면서 전압과 같은 요소를 일치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서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동부, 중부, 서부로 주요 네트워크를 나누어 각 권역별 망 연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감비아, 기니 비사우는 이러한 전력망에서 고립되어있어 WAPP의 단기 목표로 보다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으로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ECOWAS 마스터플랜(ECOWAS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Infrastructure 2019-2033)을 통해 역내 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 또한 정책 우선순위로 적시하고 있다. WAPP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은 약 320억 달러의 수입과 비용절감 효과²²⁾를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4. 역내 에너지 협력의 과제

1) 에너지 빈부격차와 이익의 충돌

역내 회원국 간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에너지 부문에서의 빈부격차는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아프리카의 에너지 협력이 나이지리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역내 최대 가스 보유국으로 가스관의 출발 국가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은 장기적으로 수출보다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국내 사정에 따라 가스 공급을 차단할 우려도 존재한다. 게다가 WAGP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이지리아 쉘브론(36.7%)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25.0%)의 비중이 가장 크다. 향후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여 오히려 회원국들의 에너지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참여국 간 서로 다른 책임은 자국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충돌하게 하는 주요 동인이다. 예를 들어, 가나와 부르키나파소 간 WAPP 전력망 건설 비용을 가나가 대부분 지불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가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²³⁾. 게다가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원을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역적 목표는 개별 국가의 이익을 희생해야 얻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역외 수출로 인한 수입 증대나 자국 산업에의

20) Bjerksund Petter (2010) "The Future of West Africa Gas Pipeline Project on Gas Market Development in the West African Sub Region," Master Thesi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p. 41.

21) WAPP Articles of Agreement (2005), p. 7.

22) F. Mulangu (2019) "Africa's chronic power problems: West Africa power pool could be a game changer," *African Current Issues*, p. 4.

23) Ekeminiabasi Kingsley Eyita (2014) "Energy security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Case studies of the Southern African power pool and the West African power pool, Doctoral Disse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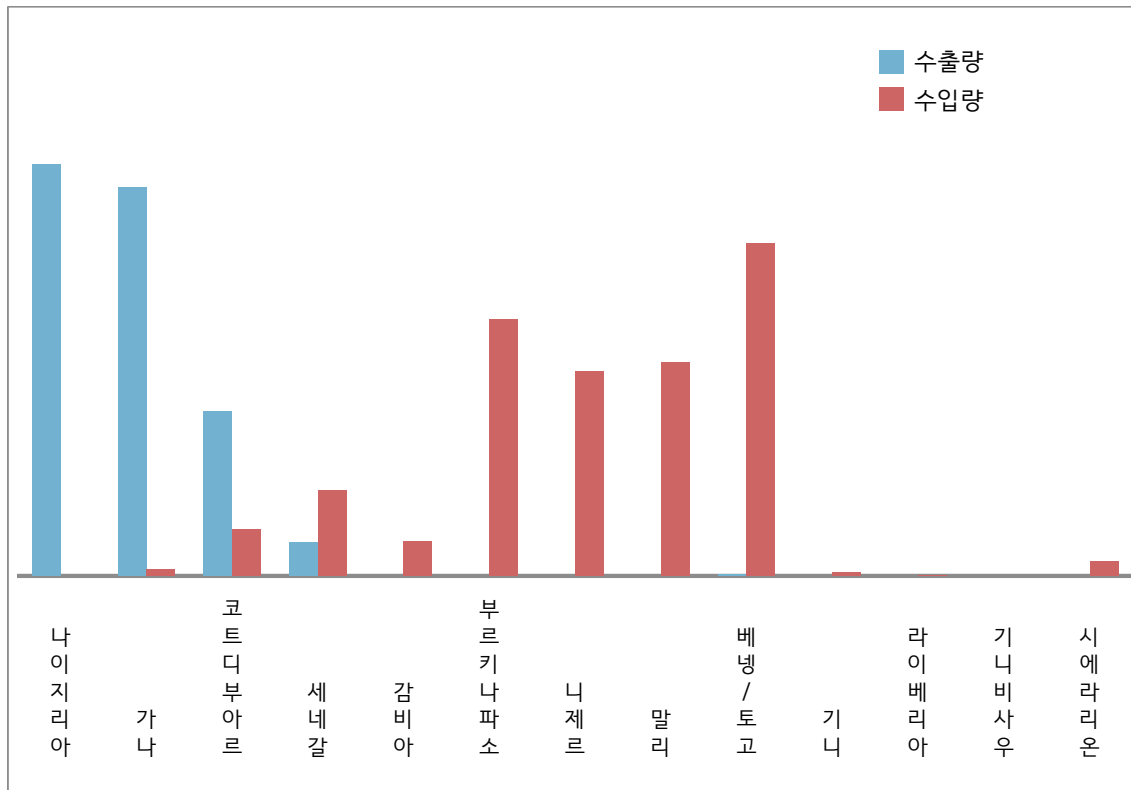


그림 19 2022년 ECOWAS 회원국의 에너지 수출입 비교 (출처: ECOWAPP website)

사용과 같은 이익을 포기하거나 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자국으로 에너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변 수출국에 투자와 지원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아 더더욱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²⁴⁾. 이처럼 각자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에너지 거래가 더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공재임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²⁵⁾.

2) 상호신뢰문제

ECOWAS 국가들은 공동의 규범과 정체성을 구축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신뢰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WAGP 가스관은 코트디부아르로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데 서아프리카 지역에 뿌리 깊은 영어권 국가와 불어권 국가들 간 갈등으로 인해 논란이다. 국가들 간 역사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나이지리아로부터 출발하는 또 다른 가스관인 사하라가스파이프라인(Trans-Sahara Gas Pipeline)을 통해 역내 갈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로부터 알제리를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여 북아프리카까지 다다르는 프로젝트인데, 동 관은 모로코와 모리타니아까지 연장하여 연결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나 모리타니아는 이전에 ECOWAS 회원국이었으나 2000년 탈퇴하였다가 2017년 재가입한 일이 있으며 서사하라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모로코와 알제리 간 갈등도 이러한 가스관 연장 논의에서 회원국 간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역기구의 역할이다. ECOWAS는 EEP를 통해 공동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오랜 시간 설득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WAPP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수립하여 세부 조율과 운영을 맡겼다. 비록 ECOWAS

24) Ekeminiabasi Kingsley Eyita (2014) "Energy security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Case studies of the Southern African power pool and the West African power pool, Doctoral Dissertation.

25) Daniel J. Plunkett (2001) "Policy challenges in the West African electricity project," *African Economic Policy Discussion Paper*, No. 38, p. 9.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역내보다는 역외 원조²⁶⁾로 이루어지며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의심 또한 상존하고 있지만, ECOWAS 기치 아래에서 각국은 기존의 규율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에너지 전환 문제

기후변화를 인간안보 위기의 원인으로 직면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향후 에너지안보 협력에 있어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문제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영역이다. 에너지 전환이란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로부터 기후 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신산업 발굴, 글로벌 규범에 편승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레버리지와 이미지 제고,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탄소세와 같은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실질적인 국내 기후위기 문제에 도움 등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ECOWAS의 경우 ECREEE와 같은 기구를 통해 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은 북반구 선진국들과의 탄소 감축 의무의 차이, 비용과 기술의 부족, 젠더 및 빈곤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같은 문제로 아직 그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ECOWAS의 에너지 지역주의는 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부국이 에너지 빈국과 연료를 나눠 쓰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 등의 에너지를 회원국 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인프라 구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화석연료 빈국이라 할지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을 수 있어 앞으로 회원국 간 역동성이 주목된다.

5. 결론

지역 에너지 협력은 쉽지 않은 일²⁷⁾이다.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자가 국경 간 에너지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일 한 국가의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해당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국제 거래를 통한 에너지 재분배는 항상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²⁸⁾.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다. 많은 경우 전기와 같은 에너지는 수송 과정에서 손실분이 생기면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충분한 수송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송망 건설 및 유지 역량이 부족하여, 가스관 가로채기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테러단체의 파괴 위험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에 대응할 재정과 대책이 충분히 없다. 그럼에도 한 연구²⁹⁾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의 최대 전력 공급량은 2018년 13,500 MW에서 2025년에는 30,400 MW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서로 간의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다변화를 장려하여 각국이 가진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국이 보유하지 않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³⁰⁾. 즉 에너지 지역주의 흐름은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앞에서 논한 서아프리카 협력의 과제는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역내 전반적인 통합의 심화에 동일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이렇듯 ECOWAS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힘의 차이는 지역 통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동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기구를 통한 국제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주의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너지 부문의 통합과 협력은

26) Pierre-Olivier (2008) "Electricity sector integration in West Africa," *Energy Policy*, 36.

27) William W. Hogan (1998) "Independent system operator: Pricing and flexibility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Center for Business and Government, J.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MA: Harvard University, p. 2.

28) Musiliu O. Oseni and Michael G. Pollitt (2014)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integration of electricity markets," The World Bank Group, p. 5.

29) USAID (2018) "Power Africa Transmission Road Map to 2030."

30) Heymi Bahar and Jehan Sauvage (2013) "Cross-border trade in electricity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based electric power: Lessons from Europe."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규범이 지구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fonso Medinilla, B. Byiers, and K. Karaki (2019) "African power pools: regional energy, national power," *Discuss Paper*.
- Andreas Goldthau (2012) "A public policy perspective on global energy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3(1), pp. 65-84.
- APEC Energy Research Centre (2007) "A Quest for Energy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 Bengt Johansson (2013) "Security aspects of future renewable energy systems - a short overview," *Energy*, 61.
- Benjamin K. Sovacool (2009) "Energy polic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history,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the trans-ASEAN gas pipeline network, *Energy Policy*, pp. 2356-2367.
- Benjamin K. Sovacool and Marilyn A. Brown (2009) "Competing dimensions of energy secur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chool of Public Policy Working Paper*, #4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Bjerksund Petter (2010) "The Future of West Africa Gas Pipeline Project on Gas Market Development in the West African Sub Region," Master Thesi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Brigid Gavin and Sangsoo Lee (2007)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Lessons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Asia Europe Journal*, pp. 401-415.
- Corey Johnson and Stacy D. VanDeveer (2021) "Energy regionalisms in theory and practice," *Review of Policy Research*, pp. 1-20.
- Daniel J. Plunkett (2001) "Policy challenges in the West African electricity project," *African Economic Policy Discussion Paper*, No. 38.
- ECOWAS Energy Information System, <https://eis.ecowas.int/> (검색일: 2023년 12월 5일)
- ECOWAPP website, <http://icc.ecowapp.org/list-stat#?> (검색일: 2023년 12월 10일)
- ECOWAS Energy Protocol (2003)
- ECOWAS Revised Treaty (1993)
- Ekeminiabasi Kingsley Eyita (2014) "Energy security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Case studies of the Southern African power pool and the West African power pool, Doctoral Dissertation.

- F. Mulangu (2019) "Africa's chronic power problems: West Africa power pool could be a game changer," *African Current Issues*.
- Heymi Bahar and Jehan Sauvage (2013) "Cross-border trade in electricity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based electric power: Lessons from Europe."
- ITC News, "ECOWAS launches its regional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network," Centro de Comercio Internacional, <https://intracen.org/es/node/153>, 16 Jul 2021.
- Karim Karaki (2017) "Understanding ECOWAS Energy Policy,"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 Kathleen J. Hancock (2023) "Electric regionalism: path dependence, development, and the African power pools," *Review of Policy Research*, pp. 1-22.
- Lior Herman and Jonathan Ariel (2021) "Comparative energy regionalism: North America and the European Energy Community," *Review of Policy Research*, pp. 1-23.
- Musiliu O. Oseni and Michael G. Pollitt (2014)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integration of electricity markets," The World Bank Group.
- N. Edomah and S. Nwaubani (2014) "Energy security challenges in developing African mega cities: the Lagos experience," *Built Environment*, pp. 1-9.
- Pierre-Olivier (2008) "Electricity sector integration in West Africa," *Energy Policy*, 36.
- Soumonni Ogundiran (2010) "A bottom-up approach to energy policy planning in West Africa: The case of distributed genera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 USAID (2018) "Power Africa Transmission Road Map to 2030."
- WAGP website, <https://www.wagpco.com/wagp/> (검색일: 2023년 12월 10일)
- WAPP Articles of Agreement
- William W. Hogan (1998) "Independent system operator: Pricing and flexibility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Center for Business and Government, J.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MA: Harvard University.
- World Bank Group (2005) "Energy Security Issues," *World Bank Report*, Washington, D. C.

아프리카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유네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백영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정치학박사)

I. 서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이미 인류의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고, 개인과 사회, 국가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화를 넘어 초연결 시대에 진입하였다 (김민정, 2023). 한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잠재적인 혜택과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UNESCO, 2021a). 특히, 아프리카는 인공지능의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접근권과 인적자원 부문에서 타 지역과의 격차가 현저하다 (UNESCO, 2019).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을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점검하고, 아프리카 국가의 인공지능 부문 정책 수립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중심 질문을 설정하며, 연구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하는 ‘유네스코’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Commission mondiale d'éthique des connaissances scientifiques et des technologies de l'UNESCO)가 정의한 바와 같이 “인지·학습·사고·문제해결·언어 기반 상호작용 및 창조적 작업 수행 등 인간 지능의 특정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일련의 기계 기술(... machines capable of imitating certain functionalities of human intelligence, including such features as perception, learning, reasoning, problem solving, language interaction, and even producing creative work)”로 정의한다 (COMEST, 2019).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접근 방식이 아프리카 대륙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균형 있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의 윤리 부문에서 현존하는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이 다자기구와의 협력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유네스코가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배경과 방식을 기구의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Global Priority Africa)’을 통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가 인공지능과 아프리카에 대해 취하는 접근방식의 맥락화를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아프리카 지역의 인공지능 이용과 개발에 대해 가지는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제5장에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며, 관련 함의를 도출한다.

II. 아프리카에서의 인공지능: 현황과 전망

디지털 전환, 자동화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례 없는 변형의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반면, 새로운 안보·보건·경제 위험을 초래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AU, 2020). 아프리카는 기술의 저발전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편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반면, 데이터 주권 문제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인공지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프리카 지역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한 주요 이슈를 규명한다.

1. 현황 분석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은 ‘(2020-2030) 아프리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프리카에 도약의 기회(leapfrogging opportunity)를 제공하며, 대륙 내 기존의 사회경제 부문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AU, 2020). 한편, 아프리카 대륙 내 54개 국가의 경제·ICT 기술 발전 수준은 각각 상이하므로, 지역 차원의 일관된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 역시 존재한다 (Marwala, 2019).

아프리카의 인공지능 기술 이용 현황은 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공지능 또는 ICT 기술을 접하는 주요 수단은 휴대전화이며, 휴대전화 이용에서 확인되는 기회와 위기 요인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정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현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의 강점·약점·기회·위기 요인에 대한 분석은 동 지역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에 유의미한 준거를 제공한다. AU는 <표 1>과 같이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전환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표 1>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대부분의 AU 회원국은 ICT 정책을 개발함. - 휴대전화 접근성이 강화됨. - 인터넷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역내 행위자 간 협력이 저조함. - 국가 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혁이 미흡함. - 인터넷 접근 비용으로 인해 사회 최취약층의 기술 이용 및 접근이 제한됨.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s)
- 아프리카의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of Africa)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 수립의 여지가 존재함. -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내 입법·규제 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됨. -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역내 기존 2억 명의 인구에 인터넷 접근을 제공할 경우 GDP, 경제 생산성, 성평등 부문의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AUC), Smart Africa,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조정위원회(AUDA-NEPAD), 아프리카 전기통신연합(ATU),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간 미흡한 조정·협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의제의 이행을 위한 자원 안배를 저해함. - 디지털 기술로 인한 위험을 규명하고 완화할 관리·감독 역량이 제한적임. - 휴대전화 이용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젠더,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출처: AU, 2020, pp.3-12. 내용을 필자가 번역·편집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 협력의 동인과 잠재력을 지니는 한편, 아직은 실효성 있는 협력과 조정의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의 인공지능 이용 현황과도 연계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은 아프리카 국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동시에, 아프리카 지역이 디지털 전환의 후발 주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도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존재한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져 올 수 있는 발전의 속도와 규모는 기존의 산업 기술로 인한 단계적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존재한다 (Ezeani, 2022).

아래 제2절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과 관련하여 아프리카가 직면하게 될 여러 이슈 중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전요인을 분석한다. 그중에서도 먼저 인공지능의 확산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산업의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의 핵심 자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의 ‘데이터 주권’ 이슈를 탐색한다.

2. 주요 이슈 전망

1) 불평등의 심화

마르왈라(T. Marwala)는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노동이 인공지능 기반 기계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술자본을 소유한 부유층과 사회 최취약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Marwala, 2019).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위험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The winner takes all.)’하는 방식의 이윤 창출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아프리카는 지역 내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훈련의 부족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고급 기술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2)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물질 자본이 아닌 ‘데이터’를 자본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Marwala, 2019). 데이터 주권은 아프리카에서의 인공지능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데이터 주권은 각 국가가 자국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적인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자국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의 ‘숨어 있는’ 특성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와 같이 친숙한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상욱, 2022). 더욱이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데이터의 이용 및 누출 문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지하기 더욱 어렵다.

점차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핵심 자본이 되어간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과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주권의 확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는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반대로,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법률, 기술적 토대를 적시에 수립하지 못할 경우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에 잠식될 위험 역시 존재한다 (Couldry & Mejias, 2019).

III. 유네스코의 접근: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

1. 「인공지능 윤리 권고」(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2021년 제41차 유네스코 총회(General Conference of UNESCO)에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네스코는 헌장 서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를 통해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그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역할(standard-setter)을 수행해 왔다.¹⁾ 유네스코가 만들어 내는 규범(normative instruments)은 구체성과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협약(conventions), 권고(recommendations), 선언(declarations)으로 구분된다.²⁾ 그간 유네스코가 인공지능과 같은 특정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윤리적인 규범을 제안한 바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지니는 윤리적 함의와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기구의 판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옥, 2022).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구성 및 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전문(preamble) 이후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지향점을 밝히며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뒤이어 이어지는 제1장은 권고의 적용 범위(Scope of application)를 규정하고, 제2장은 권고의 주요 목적과 목표(Aims and Objectives)를 명시한다. 제3장은 권고의 가치와 원칙(Values and principles)을 다루고, 제4장은 구체적인 정책 행동 영역(Areas of policy action)을 규명한다.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를 다루는 제5장, 권고의 이용 및 활용(Utiliz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에 관한 제6장, 권고의 확산(Promo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에 관한 제7장, 기타 사항(Final provisions)을 다루는 제8장은 권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부가 사항을 명시하고, 유엔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포함되었다 (UNESCO, 2021b; 이상옥, 2022).

2) 내용 및 특성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고려하고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윤리적 권고를 제시한다. 아울러, 권고의 핵심 내용을 회원국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총 4개의 가치와 10개의 원칙을 포함한다.³⁾ 유네스코가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다음과 같이 '적용

1) 유네스코가 스스로 설정한 기구의 5대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laboratory of ideas: 교육·과학·문화 부문 아이디어 제시, 관련 전략 및 정책 발굴
2. standard-setter: 주요 도덕적, 규범적, 지적 이슈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범 창출
3. clearing house: 정보, 지식, 선례의 수집·배포, 혁신 사업 발굴·시험
4. capacity-builder in Member States: 회원국들의 인적·제도적 역량 개발
5. catalys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출처: UNESCO; 외교부, 2022)

2) 출처: UNESCO, Standard-setting.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standard-setting> (2023.12.1. 검색)

3)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제시하는 4개의 가치와 10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4개 가치:

가치 1. 인권 및 인간 존엄성(Respect,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dignity)

가치 2. 환경과 생태계(Environment and ecosystem flourishing)

가치 3. 다양성과 포용성(Ensuring diversity and inclusiveness)

가치 4.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상호연결된 사회(Living in peaceful, just and interconnected societies)

10개 원칙:

성'과 '이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적응성

이상욱(2022)이 지적하듯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원칙 중에서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는 다자기구의 규범 설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적응적 거버넌스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여러 회원국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기술 발전의 각 단계에 맞게 적용되는 '적응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적응적 거버넌스가 인공지능 윤리 권고에 포함되는 과정은 다자기구에서 보편적인 규범을 설정할 때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초안 문서가 발표된 이후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수 아프리카 회원국은 권고의 구속력과 규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규범의 세부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아프리카 회원국은 국제문서에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should' 대신 'must'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영국과 같은 서구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은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산업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권고의 구속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처럼 회원국 간 상충하는 입장을 절충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적응적 거버넌스'이다 (이상욱, 2022). '적응성'은 보편성을 지니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내용이 다양한 회원국의 개별 상황에 적응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고안된 정책적 유연성으로 볼 수 있다.

(2) 이행 가능성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고의 내용을 각 회원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수단(tool)을 함께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영향 평가(EIA: Ethical Impact Assessment)'이다. EIA는 인공지능의 설계, 이용, 모니터링 평가 등 전 시스템 주기(AI system lifecycle)에 걸쳐 각 단계별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모든 행위자가 인공지능이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UNESCO, 2021b).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라는 실질적인 정책 행위를 회원국이 이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상욱, 2022). 유네스코가 제시한 두 번째 수단은 '준비 정도 평가 방법론(RAM: Readiness Assessment Methodology)'이다. 준비 정도 평가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내용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관련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⁴⁾. RAM의 결과는 회원국별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부족한 역량을 식별하고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각 회원국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기존의 법률, 정책, 제도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었다.

원칙 1. 비례의 원칙, 피해를 끼치지 말 것(Proportionality and do no harm)

원칙 2. 안전 및 안보(Safety and security)

원칙 3. 공정성 및 무차별(Fairness and non-discrimination)

원칙 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칙 5. 프라이버시 권리 및 데이터 보호(Right to privacy, and data protection)

원칙 6. 인간의 관리감독 및 결정(Human oversight and determination)

원칙 7. 투명성과 설명가능성(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원칙 8. 책임과 책무성(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원칙 9. 의식과 문해(Awareness and literacy)

원칙 10. 다중이해관계자, 적응적 거버넌스 및 협력(Multi-stakeholder and adaptive governance and collaboration)

(출처: UNESCO, 2021b.)

- 4) 유네스코는 회원국별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을 위한 준비 정도 평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고 있다. "UNESCO recognizes that Member States will be at different stages of readiness to implement this Recommendation, in terms of scientific, technological, economic, educational, legal, regulatory, infrastructural, societal, cultural and other dimensions." (UNESCO, 2021b, p.26)

2.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 (Global Priority Africa)

유네스코는 기구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구심점이자 전 기구 차원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우선순위(Global Priorities)를 ‘아프리카’와 ‘성평등’으로 설정하였다. 유네스코가 아프리카와 성평등에 집중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기구의 사명과 그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최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유네스코만의 고유한 접근방식 존재한다. 다른 한편, 유네스코가 특별히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구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창설된 1945년 이후 1960-70년대를 거치며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함에 따라 유네스코 안에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은 가중투표제를 채택한 일부 국제기구와 달리 1국 1표제의 의사결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유네스코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의 공동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황규득, 2021).

유네스코는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GPA: Global Priority Africa)’을 수립하고 운용함으로써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의 비전인 ‘통합되고 번영하는 평화로운 아프리카(An integrated, prosperous and peaceful Africa)’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기구 내 아프리카 회원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AU, 2015; 황규득 2021).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의 이행을 위한 ‘2022-2029 운용전략(Operational Strategy for Priority Africa 2022-2029)’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용전략은 유네스코의 권능영역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아우르는 총 5개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캠퍼스 아프리카(Campus Africa)’로,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유네스코가 발간한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서인 ‘아프리카 통사(General History of Africa)’를 아프리카 연합의 2063 의제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의 촉진 매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문화 부문에서 아프리카의 문화 유산과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지역의 오픈 사이언스·기초 및 응용과학·과학연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과학 부문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다. 아프리카 우선전략에 대한 운용전략은 아프리카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규명하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황규득, 2021).

이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의 핵심 접점을 이룬다. 유네스코는 기구의 권능영역 중 하나인 ‘과학’ 부문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숙고하며 관련 규범을 제정해 왔다. 2021년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 역시 과학기술이 사회 최취약 계층 또는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는 유네스코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저개발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를 전략적으로 우선시한다.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지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적용하고 있다.

IV. 사례분석: 유네스코 접근의 효과와 한계

유네스코는 제41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공식 채택하기까지, 권고 초안의 작성을 담당할 비상설전문가집단(AHEG, Ad Hoc Expert Group)을 구성·운용했다. 총 24명으로 구성된 AHEG는 유네스코의 6개 선거지역(electoral group)별로 각 4명씩 선발되었으며, 비록 각 전문가가 자국 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권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리적 형평성을 중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욱, 2022).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가나, 르완다, 카메룬, 남아공 국적의 총 4명의 전문가가 AHEG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윤리 권고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

<표 2> 인공지능 윤리 권고 초안 작성을 위한 AHEG 구성

선거그룹	국별 전문가 구성
그룹 I (서유럽·북미)	- 미국: Mr. Tim HWANG - 프랑스: Ms. Catherine TESSIER - 네덜란드: Mr. Peter-Paul VERBEEK - 영국: Mr. Adrian WELLER
그룹 II (동유럽)	- 러시아: Mr. Maxim FEDOROV - 폴란드: Mr. Robert KROPLEWSKI - 라트비아: Ms. Irena NESTEROVA - 슬로베니아: Mr. Luka OMLADIC
그룹 III (라틴아메리카)	- 우루과이: Ms. Carolina Inés AGUERRE REGUSCI - 멕시코: Ms. Constanza GOMEZ MONT - 아르헨티나: Mr. Octavio KULESZ - 브라질: Mr. Edson PRESTES E SILVA JUNIOR
그룹 IV (아시아·태평양)	- 인도: Mr. Amandeep SINGH GILL - 일본: Mr. Osamu SUDOH - 대한민국: Mr. Sang Wook YI (이상욱) - 중국: Mr. Yi ZENG
그룹 V(a) (아프리카)	- 가나: Ms. Teki AKUETTEH FALCONER - 르완다: Mr. Jean Philbert NSENGIMANA - 카메룬: Ms. Julie OWONO ASSEVINI - 남아공: Ms. Emma RUTTKAMP-BLOEM
그룹 V(b) (아랍)	- 사우디아라비아: Ms. Latifa Mohammed AL-ABDULKARIM - UAE: Mr. Mohamed ALLOGHANI - 이집트: Ms. Golestan (Sally) RADWAN - 모로코: Ms. Fatima ROUMATE

출처: UNESCO, 2020, pp.2-8. 내용을 필자가 편집

<표 2>와 같이, 유네스코는 권고 초안의 작성 과정에서 지리적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한편, 성평등의 기준에서도 균형을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AHEG의 형식상의 지리적, 성별 균형은 달성되었지만, 초안을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권고의 효과와 한계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아프리카 인공지능에 대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 효과

1) 아프리카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발전과 인공지능 연계 시도

유네스코는 기구의 권능영역과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Global Priority Africa) 간 유기적인 연계를

5) 총 24명의 국제 전문가는 여성 전문가 10명과 남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을 기구의 글로벌 우선전략(Global Priority Gender Equality)으로 내세우는 유네스코에서도 AHEG 국제전문가를 선별함에 있어서 성별 간 동수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여성 전문가의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구하며, 인공지능이 아프리카의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UNESCO, 2021a). 예를 들어, 유네스코가 2020년 아프리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 부문 수요조사(needs assessment survey in Africa)는 기구의 글로벌 아프리카 우선전략 중 네 번째 플래그십 프로그램(Harnessing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과 직결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정책 행동 영역(Areas of policy action)은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시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안함으로써, 각 영역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아프리카 사회·경제적 도전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향 제시

인구폭발, 빈곤, 식량안보, 도시화 등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맥락을 제외하고서는 다루기 어렵다 (Marwala, 2019). 즉, 기존의 서구 산업선진국식 발전 모델로는 아프리카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공지능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종의 도약기술(leapfrogging technology)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과 권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도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국별·지역별 이행을 촉진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아프리카 회원국과 서구 선진국 간 지식교류, 규범 제정, 정책 대화,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개발 등을 선도하고 있다 (UNESCO, 2021a).

2. 한계

1) 추상성(abstractness): 지역 단위 거대담론 제시

2021년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채택되까지 유네스코라는 다자기구의 틀 내에서 여러 회원국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조율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권고의 내용이 다자기구에서의 협의(consultation)와 토론(debate)을 통해 성안되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욱, 2022). 한편, 여러 이해관계와 입장을 다자협력의 틀 내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최종 권고 문서 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다자기구를 통한 국제 규범 제정 시 발생하는 이러한 ‘보편성 강화와 구체성 약화의 딜레마’는 분석의 초점을 지역 단위로 낮출 때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유네스코가 아프리카의 인공지능과 같이 특정한 지역 및 주제에 접근할 때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거대담론(metadiscourse)’을 생산해 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기구 접근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추상성은 2020년 유네스코가 아프리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 수요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아프리카 AI 수요조사 핵심 결과

핵심 결과	기타
AI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강화 (Policy initiatives for AI governance need strengthening)	32개 응답국 중 22개국은 AI개발 및 이용을 국가발전 계획의 우선순위로 선정
AI 거버넌스 관련 법률·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AI governance need to be fostered)	응답국 중 9개국만이 알고리즘 기반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 마련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Need for enhancing capacities for AI Governance is widely recognized)	AI 개발 및 이용 관련 정책·사법·행정·입법·인적 역량 강화의 필요성 공히 확인
AI 관련 국별 우선순위는 상이하지만 협력의 기회 제공 (AI priorities for countries in Africa are varied but offer an opportunity for cooperation)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경제발전, 교육·연구, 문화다양성, 성평등 부문에서의 협력 수요 확인
AI 교육, 연구, 연수 부문 추가 노력 필요 (More efforts are needed to advance on AI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	AI 교육 자원, 연구역량, 네트워크 부족 확인

출처: UNESCO, 2021, pp.9-12. 내용을 필자가 번역·편집

위의 아프리카 인공지능 수요 조사(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Assessment Survey in Africa, 2020)의 핵심 결과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이니셔티브와 제도 마련, 역량 강화, 교육·연구·연수 강화 등의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유네스코에서 수행하는 지역별 수요 조사의 작업방식(modus operandi)은 대개 정교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회원국의 상주대표부(Permanent Delegation to UNESCO)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앞으로 국가 수요 조사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많은 경우 국별 답변은 정책 단위의 거시적인 수요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구체적인 수요 정보는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인공지능 윤리 권고 역시 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 어젠다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글로벌 규범으로서 윤리적 고려사항에 관한 거대담론을 제시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2) 비구속성(voluntariness): 국제권고 수준의 약한 강제력

다자기구의 규범 제정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약한 구속성이다.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유네스코의 의결기구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어도, 회원국이 해당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여부는 각 회원국의 몫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성의 딜레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는 유엔의 접근방식인 ‘거론해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유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유엔은 직접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결여된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사무총장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조성한다.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naming and shaming 접근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이미 다수 존재(DeMeritt & Conrad, 2019)하지만,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연성 이슈(soft issue)를 다루는 국제 규범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에 더 큰 자발적 선택권이 허용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제정 당시 각 회원국이 권고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동 가능한(actionable)’ 형태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유네스코는 다자기구 접근의 약한 강제력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 권고 내 총 11개의 정책 행동 영역(Areas of policy action)을 규명하고, 각 회원국이 권고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평가하며, 이후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계되는 윤리 영향 평가 도구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정책 이행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인공지능에 대한 다자기구 접근의 효과와 한계를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유네스코는 다른 유엔 기구와는 달리 ‘아프리카’를 기구의 글로벌 우선전략(Global Priority Africa) 중 하나로 설정하며, 아프리카의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접근법은 아프리카의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 간 연계·접목을 시도하는 최초의 국제 규범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각 영역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도약기술(leapfrogging technology)로 이용하여 아프리카가 기존에 경험하고 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을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고려하고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행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상충하는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편성은 확보되지만 구체성은 결여되는 다자기구 의결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자기구 접근의 딜레마로 인해 인공지능 윤리 권고 역시 거대담론 수준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추상성을 지닌다. 특히, 규범의 실효성은 회원국의 이행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정책 이행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2021년 제정되어 인공지능의 윤리 부문에서 현존하는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시의성 있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까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이용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인식되는 한편,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산업의 핵심 자본인 ‘데이터’의 이용과 취급에 있어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 못지않게,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공지능 이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아프리카 회원국별 이행 결과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권고의 실효성을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참고 문헌>

외교부. 2022. 2022 유네스코 개황.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673&page=1

김민정. 2023. “생성형(generative)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과제 검토”.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2023년 제1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상욱. 2022.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이행과 국제협력”.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2022년 제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황규득. 2021. “유네스코 아프리카 우선전략과 대한민국”.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2021년 제3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frican Union. (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ramework Document.

African Union. (2020).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Africa (2020-2030),

<https://au.int/sites/default/files/documents/38507-doc-dts-english.pdf>

Calzati, S. (2022). ‘Data sovereignty’ or ‘Data colonialism’? Exploring the Chinese involvement in Africa’s ICTs: a document review on Kenya.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40(2). 270-285.

COMEST. (2019). Preliminary Study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7823>

- Couldry, N., & Mejias, U.A. (2019). *The Costs of Connection: How Data is Colonizing Human Life and Appropriating It for Capital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Meritt, J.H.R., & Conrad, C.R. (2019). Repression Substitution: Shif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sponse to UN Naming and Shaming. *Civil Wars*. 21(3). 1-25.
- Ezeani, C.C. (2022). Africa in the Face of the AI Wav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pfrog Opportunities, Developmental Backlogs, and Impediments. In Okocha, D.O., Onobe, M.J., Alike, M.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Connecting Philosophy, Media, and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 Rainie, L., & Anderson, J. (2017). The Future of Jobs and Jobs Training. Pew Research Center.
- UNESCO. (2021a).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Assessment Survey in Africa,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5322>
- UNESCO. (2020). Composition of the Ad Hoc Expert Group (AHEG) for th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S/BIO/AHEG-AI/2020/INF1.REV.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2991>
- UNESCO. (2021b).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S/BIO/PI/2021/1.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137>
- UNESCO. (2019). Steering AI and Advanced ICTs for Knowledge Societies: A Rights, Openness, Access, and Multi-stakeholder Perspectiv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8711?posInSet=2&queryId=ccca1a20-08f7-4b2f-b2b0-9b266e7961f5>
- UNESCO. (2022). Windhoek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uthern Africa,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3197?posInSet=3&queryId=043d6cfd-5e01-48cf-81cb-e7ca97ccb112>
- Marwala, T.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t Africa's door. *UNESCO Courier*. April-June 2019. 56-5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67850_eng?posInSet=1&queryId=74f55208-c6ed-42be-8100-985b66828f20

【 주제별 발표 제2세션 】

04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의 테러와 초국가적 안보위기
: 모잠비크-탄자니아 다공성 국경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김계리(고려대학교)

05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미래
김해영(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케냐 본부장)

06 민족집단에서 초국적 공동체로의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
: 무리디야를 중심으로
진소영(부산외국어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카보 델가도(Cabo Delgado)의 테러와 초국가적 안보위기: 모잠비크-탄자니아의 다공성 국경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김계리(고려대학교)

I. 들어가는 글

모잠비크(Mozambique)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하며 국토의 동쪽 면을 인도양과 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북단인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는 인도양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탄자니아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니아사(Niassa) 주와 남쪽으로는 남풀라(Nampula) 주와 접하고 있다. 카보 델가도는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최근에 더욱 주목하는 곳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시작해서 점차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 이슬람 테러 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안보 불안전 역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¹⁾

모잠비크는 가톨릭이 전체 인구의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는 전체 인구의 약 19%이다. 이슬람교의 모잠비크 유입은 7세기 혹은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후반에 수피 종파는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 널리 확산하였고 그 지역의 다른 종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이곳으로 본격 진출한 포르투갈이 모잠비크를 식민화하면서 이곳의 이슬람 전통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포르투갈 정부의 이슬람 억제 정책으로 인해 그곳의 무슬림 공동체는 모잠비크 사회에서 배제와 소외를 겪게 된다. 포르투갈의 식민 정책인 동화정책은 포르투갈의 언어와 문화를 현지에 주입했고 종교적으로도 가톨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잠비크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은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슬람 우호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1974년 모잠비크가 독립하자 사회주의를 표방한 FRELIMO(모잠비크 해방 전선: Frente de Libertação de Moçambique)²⁾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특히 이슬람교를 ‘후진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하였다. 하지만 독립 이후 1977년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FRELIMO와 RENAMO(모잠비크 민족 저항: Resistência Nacional Moçambicana)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자 FRELIMO는 북부 무슬림이 외국의 지원을 통해 RENAMO를 지지할 것을 우려하여 종교 억압 정책을 완화하였다.³⁾ 이렇듯 모잠비크 무슬림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부 이슬람 극단주의가 테러를 일으키며 모잠비크의 안보를 위협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잠비크의 극단주의 무장반란 세력의 등장과 테러가 그 시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발전하여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모잠비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모잠비크 테러 세력의 확장과 난민의 대거 유입을 양국 간의 다공성 국경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1) 김계리,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전략적 이점: 모잠비크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2(2023): 16-25.
2) 1964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성향 민족주의 독립 운동 단체였으나 독립 모잠비크 정부의 집권당이 됨
3) Bekoe, D. A., Burchard, S. M., & Daly, S. A., “Extremism in Mozambique: interpreting group tactic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the crisis in Cabo Delgado”,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3(2020): 3-4.

정부는 테러의 발생과 확장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그리고 정부의 그러한 입장은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는지 알아본다. 이로써 모잠비크의 안보 불안이 비단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와 대륙 차원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제2장은 다공성 국경이 테러와 난민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안보문제와 직결되는지, 제3장은 모잠비크 테러의 발생 원인과 전개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 제4장은 탄자니아의 모잠비크 테러 연루와 그로 인한 취약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II. 아프리카의 다공성 국경과 안보

1. 다공성 국경과 안보위협

국경은 국토의 경계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한정하며 행정 및 관할권이 적용의 기준이 된다. 이는 친족, 언어, 관습 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민족과 같은 ‘상상의 공동체’의 경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⁴⁾ 국경은 완벽하게 통제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유지되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다공성(Porous) 국경이라는 용어로 칭한다. 따라서 다공성은 국경이 완전한 통제가 아닌 이를 사이에 둔 국가 사이의 인적·물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공성 국경은 우거진 숲이나 호수 등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거나, 관리 되지 않은 외딴 지역에 형성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국경은 튼튼한 장벽 대신에 단순한 표지판으로 국경을 암시하거나 국경 수비대가 거의 기능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권이나 비자 혹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경을 넘는 일이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⁵⁾

다공성 국경은 비단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캐나다, 태국-미얀마-라오스 간의 국경과 같이 남미, 중동, 아시아, 유럽 등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현지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경계가 주권 국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다공성 국경의 발생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1884~1885년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베를린 회의(Berlin conference)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분할 협상을 통해 현지인들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상상의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듯하게 그은 국경을 주입한 결과이다.⁶⁾

따라서 아프리카 식민 잔재인 근대 국경으로 각기 다른 국가로 나뉜 친족들이 서로를 방문하거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영위해 오던 생업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식민 이후까지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은 더욱 유연한 것이 된다.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모잠비크 북부와 탄자니아 남부는 통제가 어려운 숲으로 인해 나뉘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경 지역은 친족, 언어, 문화, 역사, 경제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다. 야오(Yao)와 마쿠아(Makua)인들은 탄자니아 남부와 모잠비크 북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마콘데(Makondé) 인들은 모잠비크의 마콘데(Macondé) 인들과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왔다. 모잠비크의 음와니(Mwani)는 탄자니아의 스와힐리

4) Okumu, W., “Border management and security in Africa” *Concordis Briefing* 4/4(2011): 2.

5) Ikyase, J. T., & Beneth, O. C., “Porous Borders and National Security in Africa: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Nigeria’s Underdevelopment”, *State, Governanc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2019): 511.

6) 김계리, “정치적 수사로서의 ‘음분두(Mbundu)’와 ‘오빔분두(Ovimbundu)’ : 앙골라의 에스닉 정치화와 에스닉 담론 형성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 연구』 27/4(2023): 136.

(Swahili)어, 특히 잔지바르를 비롯한 탄자니아의 해안 지역 언어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는 모잠비크의 독립운동 기지로서 역할을 하며 FRELIMO의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역시 느슨하고 유연한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⁷⁾

다공성 국경은 관광과 같은 교류의 활성화, 주민들 간의 유대 형성 등과 같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⁸⁾ 반면 한 국가 혹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정치·경제·보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위협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다공성 국경은 대부분 주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주변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이나 밀수 등의 문제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⁹⁾

테러는 종종 이러한 다공성 국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 정부뿐만 아니라 대륙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경이 다소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공성 국경은 테러 집단의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그들의 물적·인적 자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공격 대상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아프리카의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Boko Haram)은 나이지리아(Nigeria) 보노(Bono) 주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카메룬(Cameroon), 차드(Chad), 니제르(Niger) 사이의 다공성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말리(Mali)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Al-Qaida) 역시 국경을 넘나들면서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니제르(Niger)와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¹⁰⁾ 따라서 다공성 국경은 테러 집단의 이동이나 대규모 난민의 이동과 같은 국가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난민문제의 안보화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국제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각각 3천530만 명과 5백70만 명으로 총 4천70만 명 발생하였다.¹¹⁾ 1951년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린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제2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들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혹은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치 않는 자들로 정의하였다.¹²⁾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는 위와 같은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아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다.¹³⁾

그동안은 난민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우세했다

7) El Ouassif, A., & Kitenge, S. Y., "Terrorist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Context, Analysis, and Spillover Effects on Tanzania", *Rabat: Policy Center for the New South*, (2021): 11.

8) Okumu, W., "Border management and security in Africa", 1.

9) Daimon, A., "Smuggling through fluid and porous African Borderlands and the state's response: the case of the Zimbabwe-South Africa Border", *ABORNE Conference on Cross-border Trade in Africa: The Local Politics of a Global Economy*, Basel. (2010): 3.

10) Mensah, I., "Border Control and Movement of Terrorist Groups in West Africa" *39th Afric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and the Pacific* (2017): 116.

11) UNHCR, "Refugee Data Finder?"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accessed 17 October 2023).

12) UNHCR,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07), 16.

13) Douglas, P., Cetron, M., & Spiegel, P., "Definitions matter: migrants, im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Journal of travel medicine* 26/2(2019):2.

면 현재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안보화(securitization)’하는 경향이 높아졌다.¹⁴⁾ 즉, 난민을 수용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위험 요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점차 더 힘이 실리고 있다.¹⁵⁾ 난민 문제를 안보화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외교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난민 수용은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수용국은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일정 부분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의 난민 수용의 유인책이 되기도 한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수용국이 난민에 대한 각종 경제적인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두고 수용국의 주민들과 난민이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각종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¹⁷⁾

난민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난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수용지, 나아가서는 수용국의 인구 구성과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혹은 국가는 이에 따라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¹⁸⁾ 그뿐만 아니라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은 질병 확산을 초래하여 수용국의 보건과 위생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처럼 난민의 급격한 증가는 수용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 문제의 안보화가 더욱 심화하는 이유는 난민 수용국이 대체로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²⁰⁾ 2023년 6월 기준 최빈국과 중·저소득국의 난민 수용률은 각각 20%와 76%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²¹⁾ 따라서 난민 심사 등의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외적인 갈등과 분쟁, 다양한 사회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²²⁾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보화 된 난민 문제의 핵심은 전통적 안보 위협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난민이 발생국의 안보 위기를 지역적으로 확장해 수용국의 주권과 영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난민 발생이 테러 혹은 쿠데타와 같은 반정부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심화한다. 이는 테러 집단과 연계되어 있거나 혹시라도 테러에 연루되었을지 모르는 난민이 수용국에서 유사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즉,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 집단 혹은 반국가 세력이 수용국의 잠재적 테러 집단과 연계하거나 새로운 테러 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14)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2014): 195-230.

15) Kiswii, E. M., “Refugee influx and (in) security: Kenya's Experiences, 1991-2012”(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airobi, 2013), 20, and Mogire, E., & Mogire, E. O., Victims as security threats: *Refugee impact on host state security in Africa* (New York: Routledge, 2011).

16) Barber, B., “Feeding refugees, or war? The dilemma of humanitarian aid” *Foreign Affairs* (1997): 8-14.

17) Martin, A.,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Refugee and Host Communit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2/3(2005): 329-346.

18) Weiner, M., “Security, stabilit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1992): 91-126.

19) Iqbal, Z., “Health and human security: The public health impact of violent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3(2006): 634.

20) 오승진, “전쟁난민의 보호”, 「강원법학」 68(2022): 144-146.

21) UNHCR, “Refugee Data Finder”.

22) 오승진, “전쟁난민의 보호”, 144-146.

러한 세력들이 수용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전투력을 향상해 다시 발생국 전복을 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난민은 발생국과 수용국 사이의 외교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²³⁾

또한, 난민의 안보화는 종종 국경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난민 발생과 수용이 대부분 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난민은 특히 인접 국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난민의 70%가 인접 국가에 수용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난민이 많이 발생한 10개국 중 7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²⁵⁾ 따라서 아프리카의 테러 혹은 안보 연구에서 난민과 국경 문제는 간과할 수 없으며 난민 발생 원인과 국경을 통한 침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III. 카보 델가도 테러 원인과 영향

2017년 10월 5일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의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Mocímboa da Praia)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다. 무장을 하고 복면을 쓴 약 30명의 남성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세 명이 사망하고 테러 용의자 두 명이 사살되었다.²⁶⁾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테러로 순식간에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고 수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다. 테러 집단은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뿐만 아니라 무이둠베(Muidumbe), 키상가(Quissanga) 등지를 점령했고 영상을 촬영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격 목적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을 통해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 건설에 있으며, 따라서 세속 정부인 FRELIMO를 전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해했다. 모잠비크는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를 자처하는 이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만큼 이를 외부 이슬람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규정하였다.²⁷⁾

모잠비크는 북부는 이슬람교가 우세인 지역이며 대부분 온건 수피 종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테러 집단은 종교적으로 기존의 북부 온건 무슬림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따르면 2015년 이래로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 유입되었으며 군사 조직과 통합되어 발전했다. 현지인들에게 이들을 알샤바브(Al-Shabaab)²⁸⁾ 혹은 마차바보스(Machababos)²⁹⁾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며 주로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의 젊은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차바보스는 안사르 알 순나(Ansar al-Sunna) 혹은 아흘루 순나 왈 자마(Ahlu Sunnah Wal-Jamâa) 종파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지 이슬람 당국은 그들의 종교적 실천을 ‘타락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마차바보스는 신발을 신고 무기를 소지한 채

23) Kennedy, P., *The Parliament of M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2007), and Salehyan, I., & Gleditsch, K. S., “Refugees and the spread of civil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2(2006): 335-366.

24) UNHCR, “Refugee Data Finder”.

25) IDMC, “Africa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publications/africa-report-on-internal-displacement> assessed 17 October 2023).

26) Bekoe, D. A., Burchard, S. M., & Daly, S. A., “Extremism in Mozambique: interpreting group tactic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the crisis in Cabo Delgado”, 7.

27) Nhamire, B. “Will foreign intervention end terrorism in Cabo Delgado?”,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1):3.

28) 아랍어로 ‘젊음’을 뜻함. 이들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와는 다름

29) ‘젊은이들’이라는 뜻. 본 연구에서는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마차바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모스크에 입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쿠란을 해석하는 방식이 북부의 주류 무슬림들과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반바지에 검정 가운과 삭발한 머리에 묶은 흰색 터번을 묶고 긴 수염을 기른 독특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한 세속의 교육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이 세운 쿠란 학교인 마드라사(Madrassa)에서만 자녀를 교육했다. 무엇보다도 마차바보스는 늘 마체테(Machete)와 같이 칼날이 긴 칼 등으로 무장하여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 대상이 되었다.³⁰⁾

모잠비크 정부는 마차바보스에 대한 지역의 우려에 침묵하였다. 그리고 마차바보스의 본격적인 테러가 시작되었을 때도 모잠비크 정부의 오판과 무능으로 초기 진압은 실패로 돌아갔다. 모잠비크 정부는 마차바보스의 테러를 국가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느 사건 중 하나로 경시했다. 정부는 즉각 경찰 병력을 파견하였고 강경한 대응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파견 병력은 마차바보스를 효율적으로 진압하지 못하였다.³¹⁾ 이 틈을 타고 마차바보스의 공격은 더욱 확산하고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차바보스의 테러는 다차원적 확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영역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던 마차바보스의 테러는 반국가적인 성격을 띄며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확산하였다.³²⁾ 그들의 초기 공격은 모잠비크 경찰서나 군기지, 행정기관이나 병원 등과 같은 기관에 집중되었다. 소수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주로 밤에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하지만 점차 공격 대상이 민가와 농장, 상점과 차량 등으로 확대되었다. 마차바보스는 민간인들의 생필품과 식량을 훔쳤다. 그들의 민간인 착취는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공격은 가옥을 불태우거나 참수를 감행하는 등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변모하였다.³³⁾

테러의 다른 측면의 확산은 지역적인 차원이다. 마차바보스는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에서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산했다. 그들은 팔마(Palma), 낭가데(Nangade)를 비롯한 카보 델가도 내 도시들에 대한 테러와 점령을 계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카보 델가도 인근의 니아사주와 남풀라주에서도 마차바보스의 공격은 이어졌다.³⁴⁾ 점차 외국인을 테러 세력에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테러는 모잠비크 정부와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IV.1. 참조).³⁵⁾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 대한 마차바보스의 공격은 카보 델가도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진출해 있는 기업과 노동자들로 향했다. 당시 카보 델가도 지역 주민들은 근해 로부마(Rovuma) 지역에서 발견된 대량의 천연가스로 인해 지역 개발에 대한 꿈에 부풀

30) Habibe, S., Forquilha, S., & Pereira, J., “Islamic radicalization in northern Mozambique. The Case of Mocimboa da Praia”, *Cadernos IESE* 17(2019):10-11.

31) Sabbagh, D., “Africa and west must unite to halt Mozambique insurgency, experts sa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pr/04/countries-must-unite-halt-mozambique-insurgency-experts-say> accessed 17 October 2023).

32) 김계리,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전략적 이점: 모잠비크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21.

33) Bekoe, D. A., Burchard, S. M., & Daly, S. A., “Extremism in Mozambique: interpreting group tactic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the crisis in Cabo Delgado”, 9.

34) ACAPS. “Impact of the the five-year conflict in Cabo Delgado” (https://www.acaps.org/fileadmin/Data_Product/Main_media/20230707_ACAPS_Thematic_report_Mozambique_impact_of_the_five-year_conflict_in_Cabo_Delgado.pdf accessed 15 October 2023).

35) 김계리,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전략적 이점: 모잠비크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21.

어 있었다. 따라서 모잠비크 국영가스회사 ENH(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atos)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모잠비크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개발 사업은 마차바보스의 테러로 인원 감축 등 사업 연기와 중단, 사업 재개와 재중단으로 위기에 처했다.³⁶⁾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마차바보스의 공격은 일정 부분 지역민들이 직면한 불평등과 착취가 영향을 끼쳤다. 지역민들은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생업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약속했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³⁷⁾

마차바보스 테러로 인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거주지를 떠나 카보 델가도 안팎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국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oples)이 되어 임시 거처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모잠비크의 누적 국내 실향민의 숫자는 이미 백만 명을 넘겼다.³⁸⁾ 그 밖의 테러 피해자들은 인근 국가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난민 지위를 얻어 국경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된다.³⁹⁾ 이렇게 모잠비크 국경을 넘는 피난민 중 대다수는 탄자니아 등 인근 국가로 향했다.⁴⁰⁾ 특히 탄자니아는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모잠비크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36) Siteo, “Terrorismo em Moçambique? Que Soluções de Política? Um Olhar aos Ataques de Mocímboa da Praia”, Revista Moçambicana de Estudos Internacionais 1/01(2019): 171.

37) 하태균, “가스 부유국 모잠비크, 재앙 직면 위기” <http://www.newsp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7> 접속일: 2023년 10월 15일.

38) OCHA, “Mozambique Cabo Delgado - Update, Internal Displacement Response - February 2023”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unhcr-mozambique-cabo-delgado-update-internal-displacement-response-february-2023-enpt> accessed 17 October 2023).

39) UNHCR, “Nearly 1 million people have fled five years of northern Mozambique violence” (<https://www.unhcr.org/news/briefing-notes/nearly-1-million-people-have-fled-five-years-northern-mozambique-violence> accessed 17 October 2023).

40) Matsinhe, D. M., & Valoi, E., “The genesis of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ISS Southern Africa Report*, 2019/27(2019): 8.

<그림 1> 모잠비크 지도⁴¹⁾



IV. 탄자니아의 모잠비크 테러 연루와 취약성

1. 모잠비크-탄자니아 국경 문제와 위기의 확산

탄자니아는 모잠비크 테러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 영향력 안에 놓인다. 무엇보다도 탄자니아는 마차바보스 테러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처가 되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다. 카보 델가도 테러 집단이 형성에 있어 외부의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중에는 현지와 탄자니아, 케냐(Kenya), 소말리아(Somalia) 및 동부 아프리카의 대호수 지역(Great lakes) 출신 사업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리비아(Libya), 수단(Sudan), 알제리(Algeria) 등지로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 영적으로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마차비보스는 탄자니아, 케냐, 소말리아, 대호수 지역의 종교적, 군사적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차바보스는 모잠비크 안팎으로부터 구성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그결과 카보 델가도 인근의 남풀라(Nampula)주와 탄자니아와 대호수 지역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⁴²⁾ 테러 집단에 합류시켰다. 이들은 교육과 고용 등을 빌미로 사람들을 모집했다. 새로운 구성원 모집은 주로 혼인이나 비공식 연망, 쿠란 학교, 모스크, 비공식 경제 활동, 지역 청년 무슬림 커뮤니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테러 집단은 지역의 모스크에서 시작한 50여 명의 비군사적 선동가들로부터 시작해 곧 300여 명에 이르는 군사 집단으로 변모하였고

41) UN, Mozambique, (<https://www.un.org/geospatial/content/mozambique-1> accessed 15 October 2023).

42) 이들 중에는 범죄 집단에 연류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포함되어 있어 안보 우려가 더욱 커짐

그 과정에서 지역 이슬람의 급진화가 시도된다. 케냐나 탄자니아 등지의 급진주의적 무슬림 남성들이 모심보아 다 프라이어아에서 결혼을 통해 정착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을 현지에 점차 확산시켜 왔기 때문이다.⁴³⁾

카보 델가도 테러집단은 모잠비크 밖에서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 지금을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밀매와 같은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고 둘째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테러의 근원지인 모심보아 다 프라이어의 지도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금한다. 기부금은 주로 Mpesa, Mkesh, Mmola와 같은 전자 금융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밖의 불법적인 수익은 비밀 연망을 통해 목재, 숯, 루비 등을 밀매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목재 밀매의 경우 탄자니아에 형성된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탄자니아와 콩고 지역의 불법 목재 사업가들은 모잠비크에서 벌목과 목재 가공을 위해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이를 탄자니아나 중국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불법 목재 사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이 자금은 모심보아 다 프라이어와 주변 지역의 테러 집단 지도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는 모심보아 다 프라이어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탄자니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심보아 다 프라이어 방문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그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에서 생산된 숯이 탄자니아의 선박을 통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모잠비크의 풍부한 루비는 탄자니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Ethiopia), 대호수 지역의 불법 사업가들을 모잠비크로 끌어들이고 모잠비크에 정착하고 혼인이나 여러 수단을 통해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은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 무역을 장악하고 모스크 건설 등을 지원하며 지역의 종교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상아 밀매 역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되는 상아는 주로 탄자니아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약 밀매 역시 카보 델가도 해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불법 무기 유통에도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⁴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 사이의 국경을 넘어 마차바보스에 가담하는 탄자니아인들의 존재는 탄자니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탄자니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테러 집단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차바보스가 탄자니아를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차바보스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탄자니아는 그들의 공격에 마냥 취약한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탄자니아의 급진주의 이슬람 세력이 모잠비크 반란 세력의 지도자급에 포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탄자니아가 모잠비크 테러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탄자니아가 그들 공격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집단이 모잠비크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남부 지역까지 통합하여 독립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실은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⁴⁵⁾ 실제로 모잠비크 반군 세력은 2019년 6월에 탄자니아 농부 9명을 공격하고 살해하였다.⁴⁶⁾ 2020년에도 탄자니아 남부 지역이 공격받아 최소 2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⁴⁷⁾

43) Habibe, S., Forquilha, S., &Pereira, J., “Islamic radicalization in northern Mozambique. The Case of Mocimboa da Praia”, 11-20.

44) ibid. 28-30.

45) UCDP, “ASWJ” (<https://ucdp.uu.se/actor/7032> accessed 17 October 2023).

46) Cabo Ligado, “Cabo Ligado Monthly: February 2021” (<https://acleddata.com/acleddatanew/wp-content/uploads/2021/03/Cabo-Ligado-Monthly-February2021.pdf> accessed 15 October 2023).

47) El Ouassif, A., & Kitenge, S. Y., “Terrorist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Context, Analysis, and Spillover Effects on Tanzania”, 12.

이러한 배경에서 2022년 1월, 누시 대통령은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사이의 다공성 국경이 반군의 기술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불법 밀매를 촉진하는 반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두 국가 간의 엄격한 국경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국이 공유하는 국경은 인도양에서 니아사(Niassa) 호수까지 길이가 백 킬로미터에 걸쳐 숲으로 이어져 있으며 인구가 적어 반군 세력의 은신처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시 대통령은 탄자니아의 아미아 실루후 하산(Amia Siluhu Hassan)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국경에서 반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이는 너무 ‘늦게’⁴⁸⁾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⁴⁹⁾ 이렇듯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탄자니아와 남아공 등의 이웃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차바보스의 테러 활동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⁵⁰⁾

2. 모잠비크 난민과 탄자니아의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사이의 다공성 국경은 모잠비크의 마차바보스 연계 세력이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며 양국 국경 문제에 대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난민 문제의 안보화를 더욱 촉진하고 망명자 입국 금지와 강제 송환 문제를 초래한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탄자니아에는 25만 5천여 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중 약 2/3가 정치 탄압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룬디에서 왔고 나머지 1/3은 토지와 자원을 두고 무장 전투가 빈번한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왔다. 그뿐만 아니라 1994년 르완다 학살(Rwanda Genocide) 당시에는 르완다 난민이 대거 유입을 허용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도 반정부 투사들을 적극 수용하였다. 이처럼 탄자니아는 관대한 난민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정책의 기조가 크게 변하였다. 탄자니아는 2018년에 포괄적 난민 대응 체제(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에서 탈퇴하며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대통령 존 마구풀리(John Magufuli)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룬디 난민들에게 귀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다.⁵¹⁾

이러한 탄자니아의 입장은 모잠비크 망명자에게도 동일했다. 2020년 9월 이후 탄자니아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⁵²⁾ 이듬해 3월 마차바보스가 팔마를 공격했을 당시에도 테러 피해자들은 대거 탄자니아 국경 근처로 이동하였고 그들의 입국은 거부되었다.⁵³⁾ 강제 송환된

48) ADF, "O Cabo Esquecido" (<https://adf-magazine.com/pt-pt/2022/11/o-cabo-esquecido/> accessed 17 October 2023).

49) Miguel R., "Terroristas atravessam fronteira com a Tanzânia e "estão a melhorar" as suas técnicas, diz Presidente Nyusi" (<https://www.voaportugues.com/a/terroristas-atravessam-fronteira-com-a-a-tanzania-e-estão-e-malhorar-as-suas-técnicas-diz-presidente-filipe-nyusi/6416979> accessed 3 March 2023).

50) El Ouassif, A., & Kitenge, S. Y., "Terrorist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Context, Analysis, and Spillover Effects on Tanzania", 11-14.

51) Ruzibiza, Y & Turner, S., "Tanzania's Open Door to Refugees Narrow"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tanzania-refugee-policy> accessed 17 October 2023).

52) OCHA, "Mozambique - Update, Cabo Delgado Situation, 12 - 25 June 2021"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mozambique-update-cabo-delgado-situation-12-25-june-2021> accessed 17 October 2023).

53) Schlein, L., "Tanzania Told to End Forced Deportations of Mozambican Asylum Seekers" (https://www.voanews.com/a/africa_tanzania-told-end-forced-deportations-mozambican-as

사람들은 2021년 5월 한 달에만 약 3천 8백여 명에 달하며⁵⁴⁾ 7월 기준으로 9,753명에 달한다.⁵⁵⁾ 송환자 숫자는 같은 해 9월 1만3백 명 이상으로 늘었다. 탄자니아의 이런 조치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the principal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탄자니아와 모잠비크는 탄자니아에 모잠비크 난민 수용 캠프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은 탄자니아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에 합의했다.⁵⁶⁾ 따라서 양국의 합의에 따라 송환자들은 네고마노(Negomano) 지역의 양국 국경 지점에 대피하였고 탄자니아 입국을 거부당한 채 고립되었다.⁵⁷⁾

V. 나오는 글

모잠비크 북부 마차바보스로 인한 위기는 지역적, 대륙적, 세계적인 것으로 변모하여 종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⁵⁸⁾ 이는 전 세계가 카보 델가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마차바보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모잠비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러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마차바보스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모잠비크, 특히 테러의 중심 지역인 카보 델가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남쪽 지역은 모잠비크 내에서 테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사이에 형성된 다공성 국경이 테러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 위기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마차바보스의 테러는 지도자로 알려진 보노마데 마슈데 오마르(Bonomade Machude Omar)의 사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미국 국무부에 의해 마차바보스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2023년 8월 모잠비크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오마르뿐만 아니라 마차바보스의 부사령관과 서열 2위의 인물로 알려진 아부 키탈(Abu Kital)과 알리 모한도(Ali Mohando) 역시 제거되었다.⁵⁹⁾ 이로써 국제사회는 모잠비크 북부의 안보 불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마차바보스의 테러는 종식될 것인지 아니면 조직과 전력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을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견하기 어렵

ylum-seekers/6206914.html accessed 17 October 2023).

54) Lusa, “Tanzânia recusa campo de refugiados por razões de segurança” (https://www.rtp.pt/noticias/mundo/tanzania-recusa-campo-de-refugiados-por-razoes-de-seguranca_n1326947 accessed 17 October 2023).

55) OCHA, “Mozambique - Update, Cabo Delgado Situation, 12 - 25 June 2021”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mozambique-update-cabo-delgado-situation-12-25-june-2021> accessed 17 October 2023).

56) Lusa, “Tanzânia recusa campo de refugiados por razões de segurança” (https://www.rtp.pt/noticias/mundo/tanzania-recusa-campo-de-refugiados-por-razoes-de-seguranca_n1326947 accessed 17 October 2023).

57) Schlein, UNHCR Calls on Tanzania to Stop Deporting Mozambican Asylum Seekers (https://www.voanews.com/a/africa_unhcr-calls-tanzania-stop-deporting-mozambican-asylum-seekers/6205981.html accessed 17 October 2023).

58) 김계리,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전략적 이점: 모잠비크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21.

59) Carta de Moçambique, Estado Islâmico reivindica ataques com explosivos a militares em Cabo Delgado, Moçambique (<https://cartamz.com/index.php/politica/item/14932-estado-islamico-reivindica-ataques-com-explosivos-a-militares-em-cabo-delgado-mocambique> accessed 15 October 2023).

다. 하지만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잠비크 테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더욱 이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도서 및 논문

- 김계리.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전략적 이점: 모잠비크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2(2023): 7-44.
- , “정치적 수사로서의 '음분두(Mbundu)'와 '오빔분두(Ovimbundu)': 앙골라의 에스닉 정치화와 에스닉 담론 형성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 연구」 27/4(2023): 133-154.
-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2014): 195-230.
- 오승진. “전쟁난민의 보호”. 「강원법학」 68(2022): 144-146.
- Barber, B. “Feeding refugees, or war? The dilemma of humanitarian aid” *Foreign Affairs* (1997): 8-14.
- Bekoe, D. A., Burchard, S. M., & Daly, S. A., “Extremism in Mozambique: interpreting group tactic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s response in the crisis in Cabo Delgado”,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3(2020).
- Daimon, A., “Smuggling through fluid and porous African Borderlands and the state’s response: the case of the Zimbabwe-South Africa Border”, *ABORNE Conference on Cross-border Trade in Africa: The Local Politics of a Global Economy*, Basel. (2010): 1-19.
- Douglas, P., Cetron, M., & Spiegel, P., “Definitions matter: migrants, im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Journal of travel medicine* 26/2(2019): 1-3.
- El Ouassif, A., & Kitenge, S. Y. *Terrorist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Context, Analysis, and Spillover Effects on Tanzania*. Rabat: Policy Center for the New South, 2021.
- Habibe, S., Forquilha, S., & Pereira, J., “Islamic radicalization in northern Mozambique” *The Case of Mocimboa da Praia. Cadernos IESE* 17(2019).
- Ikyase, J. T., & Beneth, O. C.. “Porous Borders and National Security in Africa: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Nigeria’s Underdevelopment” *State, Governanc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2019): 511-524.
- Iqbal, Z. “Health and human security: The public health impact of violent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3(2006): 631-649.
- Kennedy, P. *The Parliament of Ma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2007.
- Kiswii, E. M. “Refugee influx and (in) security: Kenya's Experiences, 1991-2012”.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airobi, 2013
- Matsinhe, D. M., & Valoi, E., “The genesis of insurgency in northern Mozambique” *ISS Southern Africa Report*, 2019/27(2019): 1-24.
- Martin, A.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Refugee and Host Communit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2/3(2005): 329-346.
- Mensah, I., “Border Control and Movement of Terrorist Groups in West Africa” *39th Afric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and the Pacific* (2017): 116-123.
- Mogire, E., & Mogire, E. O., *Victims as security threats: Refugee impact on host state security in Africa*. New York: Routledge, 2011.

Nhamire, B. "Will foreign intervention end terrorism in Cabo Delgado?"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1): 1-12.

Okumu, W., "Border management and security in Africa" *Concordis Briefing* 4/4(2011): 1-18.

Salehyan, I., & Gleditsch, K. S.. "Refugees and the spread of civil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2(2006):335-366.

Sitoe, R., "Terrorismo em Moçambique? Que Soluções de Política? Um Olhar aos Ataques de Mocimboa da Praia." *Revista Moçambicana de Estudos Internacionais*, 1/01(2019): 158-186.

UNHCR,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2007.

Weiner, M. "Security, stabilit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1992): 91-126.

2) 인터넷 자료

하태균. "가스 부유국 모잠비크, 재앙 직면 위기" <http://www.newsca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7> 접속일: 2023년 10월 15일).

ACAPS. "Impact of the the five-year conflict in Cabo Delgado" (https://www.acaps.org/fileadmin/Data_Product/Main_media/20230707_ACAPS_Thematic_report_Mozambique_impact_of_the_five-year_conflict_in_Cabo_Delgado.pdf accessed 15 October 2023).

ADF. "O Cabo Esquecido" (<https://adf-magazine.com/pt-pt/2022/11/o-cabo-esquecido/> accessed 17 October 2023).

Carta de Moçambique, Estado Islâmico reivindica ataques com explosivos a militares em Cabo Delgado, Moçambique (<https://cartamz.com/index.php/politica/item/14932-estado-islamico-reivindica-ataques-com-explosivos-a-militares-em-cabo-delgado-mocambique> accessed 15 October 2023).

Cabo Ligado. "Cabo Ligado Monthly: February 2021" (<https://acleddata.com/acleddatanew/wp-content/uploads/2021/03/Cabo-Ligado-Monthly-February2021.pdf> accessed 15 October 2023).

IDMC. "Africa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publications/africa-report-on-internal-displacement> accessed 17 October 2023).

Lusa. "Tanzânia recusa campo de refugiados por razões de segurança" (https://www.rtp.pt/noticias/mundo/tanzania-recusa-campo-de-refugiados-por-razoes-de-seguranca_n1326947 accessed 17 October 2023).

Miguel R. "Terroristas atravessam fronteira com a Tanzânia e "estão a melhorar" as suas técnicas, diz Presidente Nyusi" (<https://www.voaportugues.com/a/terroristas-atravessam-fronteira-com-a-a-tanzania-e-estao-e-malhorar-as-suas-tecnicas-diz-presidente-filipe-nyusi/6416979> accessed 3 March 2023).

OCHA, "Mozambique Cabo Delgado - Update, Internal Displacement Response - February 2023"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unhcr-mozambique-cabo-delgado-update-internal-displacement-response-february-2023-enpt> accessed 17 October 2023).

----- "Mozambique - Update, Cabo Delgado Situation, 12 - 25 June 2021" (<https://reliefweb.int/report/mozambique/mozambique-update-cabo-delgado-situation-12-25-june-2021> accessed 17 October 2023).

Ruzibiza, Y & Turner, S., Tanzania's Open Door to Refugees Narrow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tanzania-refugee-policy> accessed 17 October 2023).

Sabbagh, D., "Africa and west must unite to halt Mozambique insurgency, experts sa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pr/04/countries-must-unite-halt-mozambique-insurgency-experts-say> accessed 17 October 2023).

Schlein, L., "Tanzania Told to End Forced Deportations of Mozambican Asylum Seekers" (https://www.voanews.com/a/africa_tanzania-told-end-forced-deportations-mozambican-asylum-seekers/6206914.html accessed 17 October 2023).

----- "UNHCR Calls on Tanzania to Stop Deporting Mozambican Asylum Seekers" (https://www.voanews.com/a/africa_unhcr-calls-tanzania-stop-deporting-mozambican-asylum-seekers/

um-seekers/6205981.html accessed 17 October 2023).

UCDP, “ASWJ” (<https://ucdp.uu.se/actor/7032> accessed 17 October 2023).

UN, Mozambique, (<https://www.un.org/geospatial/content/mozambique-1> accessed 15 October 2023).

UNHCR. “Refugee Data Finder 2023”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accessed 17 October 2023).

----- “Nearly 1 million people have fled five years of northern Mozambique violence”
<https://www.unhcr.org/news/briefing-notes/nearly-1-million-people-have-fled-five-years-northern-mozambique-violence> (accessed 17 October 2023).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미래

김해영(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케냐 본부장)

I. 들어가는 말

식민지화는 많은 원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떠나 유리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 원주민의 토지, 자원 및 문화에 대한 지배권은 배제되었고, 임의로 그어진 국경선으로 인해 소수종족 공동체는 분산되었다. 원주민은 이주민이 되고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¹⁾ 역사적으로 케냐의 소수종족은 식민 시대와 독립 이후에 이어진 주류 중심의 정치·사회 제도에서 소외되고, 학대당하며, 분리되었다. 산업화와 국제화는 소수종족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가뭄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케냐의 메뚜기 떼 공격, 에티오피아의 내전, 남수단의 종족 분쟁의 심화, 농장 파괴, 수확량 고갈 등은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것은 농업이나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케냐의 소수종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²⁾

케냐는 전체 47개 부족을 공식화하고 있다. 2017년 케냐의 소수종족 44번째는 아시아계이며³⁾ 43번째 부족은 케냐 해안 지역인 탄자니아 남동부와 모잠비크 북부 인종 집단의 후손인 마콘데(Makonde)족이다.⁴⁾ 케냐의 주요 부족으로 인정받은 부족 이외에 각 부족의 하위 부족의 숫자는 70여 개가 넘는다.⁵⁾ 일부 자료는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소수종족의 현황을 제시한다. 케냐의 소수 민족 또는 원주민 공동체는 루오족 400만 명에서 2,398명의 다할로(Dahalo)족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냐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뛰어난 나라라고도 평가한다.⁶⁾

그런 한편, 누비아인, 소말리아인 등 소수종족은 케냐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인종 간의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다.⁷⁾ 테릭(Terik), 쉐웨르(Sengwer) 및 수바(Suba)족 등의 언어 소수 민족은 부족 및 언어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소수종족은 농업인과 목축인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의 분열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오지에크(Ogiek), 쉐워, 야쿠(Yaaku) 족은 수렵채집 공동체인데, 오랫동안 토지 몰수와 강제 퇴거를 당하면서 케냐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에 직면해 왔다.⁸⁾

케냐의 원주민이자 소수종족은 주로 나쿠루, 나록, 키암부, 난다루아, 미고리, 이시올로 및 분고마 등지의 케냐 전 지역에 산재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 도시에서 떨어진 깊은 숲속이나 농사와 목축도 하

1) Tone Bleie, Sheryl Lightfoot and Elsa Stamatopoulou, ed., *Indigenous peoples and borders*,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2024), 1.

2) Abdi Dahir, "War in Ukraine Compounds Hunger in East Africa," New York Times, 2022년 4월 1일, <https://www.nytimes.com/2022/04/01/world/africa/food-crisis-africa-drought-ukraine.html>. 2023년 11월 16일 검색.

3) Zain Verjee, "Kenya's 44th tribe: Why I'm finally a first-class citizen of my country, August 7, 2017, CNN World, 2017년 8월 7일, <https://edition.cnn.com/2017/08/04/africa/kenya-asian-community/index.html>. 2023년 11월 11일 검색.

4) Angela Wakini, "Kenyan Tribe Facing Extinction Begs for Recognition," Kenyans.co.ke, 2022년 11월 15일, <https://www.kenyans.co.ke/news/81818-torobeek-community-petitions-govt-recognition>. 2023년 11월 10일 검색.

5) African Studies Center, "Kenya -- Ethnic Groups,"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www.africa.upenn.edu/NEH/kethnic.htm>. 2023년 11월 12일 검색.

6) World 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Kenya," Minority Rights Group, <https://minorityrights.org/country/kenya/>. 2023년 11월 11일 검색.

7) Jeong Kyung Park, "Claiming and Ethnic Identity in the midst of statelessness: Oral Testimonies collected from Nubians in Kibera, Nairobi, Kenya," Vol. 39, No. 1,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2013), 257.

8) World 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Kenya," 2023년 11월 11일 검색.

기 어려운 황무지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기 어렵고 사회 공공시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⁹⁾ 2023년 11월 우기 시즌에 닥친 폭우는 케냐의 이시올로 카운티의 경우 약 12,000여 가구가 수해를 입고 식량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기마다 소수종족이 산재한 카운티에서 되풀이되고 있다.¹⁰⁾

2022년 8월 취임한 케냐의 루토 정부는 '상향식 경제(bottom up economics)를 구호로 농업, 중소기업 경제, 주거, 보건 의료,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digital superhighway)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했다.¹¹⁾ 루토 정부의 정책은 친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케냐의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은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문화 시설 건설이란 항목에서 반건조/ 건조 지역에 가축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연관 있어 보이는 정도이다.¹²⁾

소수종족의 용어를 보면, 국제사회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을, 케냐 헌법과 정책에서는 인종 그룹(ethnic Group), 소외된 공동체(marginalized community) 및 소외된 그룹(marginalized group)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케냐의 소수종족을 인구 구성에서 숫적으로 적은 집단으로,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주류 사회와 구별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소수종족의 범위는 케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47개 종족 외에, 앞서 정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소수종족과 그 하위 종족들과 환경과 역사적 변혁기에 발생한 이주민들을 포함한다. 케냐 정부 정책은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다양성 정책(diversity policy)¹³⁾으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와 케냐 정부 및 유엔 등의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현재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여 연구의 깊이와 폭을 제한시켰으며, 케냐 소수종족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케냐 소수종족의 문제를 분석하였으나, 이 역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늘 접하던 케냐 소수종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케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연구의 열매라고 본다. 이 연구는 들어가는 말,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배경과 의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향한 당면과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II. 케냐 정부 소수종족정책의 배경과 의의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케냐 소수종족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창세기 1장 26-27절, 레위기 19장 18-19절, 마태복음 22장 34-40절에 근거한 당위성을 갖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다. 소수종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삶을 향상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하며, 예수님의 사랑 실천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기독교 신학에서, 한 국가의 사회구성원이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부정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특정 대상을 배제하거나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 및 구조는 정의가 행하여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과 기관에 의해 방향 설정”¹⁴⁾이 된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은 보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정부, 민간단체, 종교기

9) 홍성룡, “리프트 밸리 오모강 지역의 투르카나 원시부족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 연구”, 한구사지리학회지, 제23권 2호, 2013, 94.

10) Maureen Kinyanjul, “Isiolo starts food distribution to 12,000 households affected by floods,” The Star, November 17, 2023, <https://www.the-star.co.ke/news/2023-11-17-isiolo-starts-food-distribution-to-12000-households-affected-by-floods/>. 2023년 11월 17일 검색.

11) 정민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32, 2022, 5.

12) 정민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9.

13) 본 연구의 제목을 “케냐 정부의 다양성 정책의 미래”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양성 정책에서 성평등, 소수자 인권 등의 주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소수종족에 집중하는 의미의 제목을 정했다.

14) 엘레인 노이어펠트, 이지성 역, 『젠더 정의-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Lutheran

관 등은 이러한 보편적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¹⁵⁾

국제사회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위치와 환경에 놓인 소수종족을 포함하여, 장애인, 아동, 고아, 원주민, 난민, 한 부모 가정, 재소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하여 인권과 권리, 생존권 보장을 비롯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소수종족은 각 지역과 국가에 만연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소수종족 정책과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의 배경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와 케냐 정부는 모두 소수종족의 존엄성, 사회적 정의, 정체성 및 다양성의 존중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소수종족정책의 배경

국제사회가 원주민 또는 각 지역에 산재한 소수종족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20세기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원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 채택되면서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선언서는 원주민의 생존과 존엄성 보장, 원주민 강제 이주와 토지 몰수, 다른 문화로의 통합 강요 등을 시정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고, 원주민에게 자체 제도와 관습, 종교 및 전통적으로 의미를 갖는 장소에 대한 통제권과 함께 원주민 자체 교육제도를 운용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¹⁶⁾

<표 1> 참고문헌에

원주민 권리 선언이 나온 지 10년 만에,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채택되었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내용은 정부, 대표 기관, UN 기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¹⁷⁾ 이 선언서의 내용은 포괄적이지만, 유엔 회원국 중 자국 국회를 거쳐 비준한 국가는 이 선언을 바탕으로 원주민에 대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¹⁸⁾ 케냐 정부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서는 아직 채택하지 않았고, 비준하지 않았지만, 자국 내 원주민 혹은 소수종족을 소외계층으로 명시하여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¹⁹⁾

케냐는 1963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케냐 공화국 헌법’을 발표했다.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었고, 의회와 지방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었으며,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감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케냐는 족벌·주류 부족 중심으로 정치가 이어졌다. 케냐는 2000년대까지 오랜 기간 정치적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적 병폐가 깊어졌다.²⁰⁾ 케냐 국민은 이러한 정치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 및 사회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²¹⁾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잦은 국난을 겪은 케냐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해 ‘케냐 헌법 2010’을 채택했다.²²⁾ 개정된 이 헌법이 가지는 의의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케냐 사회에 존재하는 다

World Federation GENDER JUSTICE POLICY (서울: 한국루터란아워, 2015). 6.

15) 엘레인 노이어펠트, 이지성 역, 『젠더 정의-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6.

16) 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Unmasking Ethnic Minoritie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in Kenya Who and Where?*, NGE, 2017, 2-6.

17)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Indigenous Peoples’ Sustainability,” April 23, 2021, United Nation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1/04/indigenous-peoples-sustainability>. 2023년 11월 14일 검색.

18) “UN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에 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안”, British Columbia Assembly of First Nations, <https://www.bcafn.ca/sites/default/files/2019-10/UNDRIP%20Information%20-%20Korean.pdf>. 2023년 11월 14일 검색.

19) Indigenous Navigator- Data by and for Indigenous Peoples, “Kenya,” Indigenous Navigator, <https://indigenousnavigator.org/indigenous-data/countries/kenya>. 2023년 11월 14일 검색.

20)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 (2013), 1.

21)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10.

양한 소수종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는 점이다.²³⁾ 케냐 헌법은 ‘소외된(marginalized)’, ‘원주민의(indigenous)’ 및 차별된(discriminated)’란 용어를 개인/집단/공동체와 연결하여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소수종족과 관련하여, 케냐 헌법 2010의 용어 해석에 보면, 이들의 지역, 직업, 거주 환경 등을 명시하고 이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²⁴⁾

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케냐 사회는 도시 중심으로 몇 개의 주류 부족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차지하고, 소수 부족은 소외되어 있었다.²⁵⁾ 케냐 전체 인구의 약 20%인 천만 명이 전체 국토의 70%에서 수렵채집, 사냥, 목축, 유목 등을 하면서 고립된 지역에서 소수 정착 공동체 구성하고 있다. 케냐 헌법은 취약지역인 사바나 기후 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원주민(IPs: Indigenous People)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과 소외계층(VMGs: Vulnerable & Marginalized Groups)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헌법은 케냐 사회의 경제 공동체로서 법적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케냐의 국가개발 계획인 ‘케냐 비전 2030(Kenya Vision 2030)’은 소수종족을 개발 집중 대상으로 명시하고, 반건조 기후와 가뭄으로 인해 목축업이 위기를 겪으며,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각종 정책을 세우고, 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²⁶⁾

케냐 정부는 다양한 부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케냐의 사회구성원을 통합하게 하는데 국가 정책 방향이 세워져 있다. 2008년에 마련된 국가통합위원회(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NCI Act)법에 따르면, 단일 부족이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1/3 이상 구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공자원의 접근 및 배포에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케냐의 인구 다양성과 빈곤 지수를 고려하여 지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공공자원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²⁷⁾

2016년 제정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성 정책’은 케냐 사회의 구성원의 나이, 피부색, 소수자나 소외계층, 장애, 민족, 가족 또는 결혼 여부, 성별, 언어, 신체적 정신적 능력,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각 구성원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육성, 배양 및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정책에 있어 중심이 되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아래 표에 정리했다.

<표 2> & <표 3> -참고문헌에

2. 소수종족 정책의 의의

케냐 국토의 약 80%는 사바나 기후로 인해 덤불과 관목으로 뒤덮여 있는 비농경지이다. 케냐의 47개 카운티 중 14개 카운티가 ‘취약지역(marginalized areas)’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취약지역이 케냐 국토의 72%를 차지한다.²⁸⁾ 케냐의 인구 중 약 25%가 목축업자들로, 주류 부족과 그 부족의 하위 부족으로 구

22)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11.

23) Government of Kenya, 국회도서관 역, 『케냐 헌법 (2010)』 (서울: 국회도서관, 2014), 4-57.

24) The Kenya Constitution 2010. 국회도서관 역, 『케냐 헌법 (2010)』 (서울: 국회도서관, 2014).

<소수 공동체에 대한 범위 및 정의>

(a) 케냐 전체 통합사회와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소수 부족, 그 밖의 이유를 가진 소수 공동체, (b) 케냐 전체의 통합사회와 경제활동에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 보존의 이유로 소외되어 있었던 전통 공동체, (c) 수렵채집과 전통 생활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착 공동체, (d) 다음 각호의 유목민이나 공동체: (i) 유목민족, (ii) 케냐 전체의 통합사회와 경제생활에 참여해 왔던 고립된 지역의 정착 공동체 소수만

25) Oanda Ogachi, “Economic reform,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ethnic conflict in Kenya,” Africa Development/ Afrique et Développement, Vol. 24, No. 1/2, 1999, 89-90.

26) Commission on Revenue Allocation, Survey report on marginalized areas/ counties in Kenya, March (Nairobi, CRA, 2012), 3.

27) 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Kenya, Ethnic & Diversity- Audit of the County Public Service 2023, NCI, (Nairobi: NCI, 2023), 20.

성되어 있다. 유엔은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후 변화, 사막화, 공해, 난개발, 다양성의 소실로 인해 원주민과 소수종족은 생계와 전통 양식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다.²⁹⁾

원주민 취약계층은 (IPS/VGMs) 케냐의 5개 국가의 국경선에 인접한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 케냐의 전통 산업인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연중 만성적인 가뭄, 고온,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대부분 유목민은 계절에 따라 목초지 확보를 위해 이동한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부족한 목초지로 인해 인접한 부족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일부는 살상을 위한 전쟁까지 일어난다. 2023년 케냐의 상반기 목초지 확보로 인한 폭력적 사건이 전체 사건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결과적으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³⁰⁾

유목민이 사는 지역은 도로, 병원, 학교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사회 시설 접근성이 매우 낮다.³¹⁾ 국제사회는 케냐의 소수종족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며 정책적 지원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케냐의 소수종족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교육, 의료, 경제적 참여 기회 제한, 정체성 보존의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물과 식량부족은 케냐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산재한 소수종족의 멸종위기로 나타난다. 케냐의 멸종 위기에 처한 부족이 케냐 정부에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케냐 리프트벨리(Rift Valley) 지역에 사는 토로비크(Torobeek)족은 자신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했다.³³⁾ 토로비크 공동체협회(Torobeek Community Association)은 부족의 멸종을 막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토지 할당, 교육 기회 부여 및 취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케냐의 소수종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사회구성원의 통합을 이루며, 헌법과 국가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종족 혹은 원주민에 대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케냐 정부의 정책은 소수종족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케냐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 이후 주류종족 중심의 경제 개혁을 추구하던 1990년대까지 종족 간 차별은 무력 충돌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갈등은 케냐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³⁴⁾ 케냐 정부는 소외되어 있던 소수종족을 국가 정책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케냐 정부 정책을 통해 다양한 언어, 문화, 전통 방식으로 공존하는 소수종족의 문화와 권익을 보호하고,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수소 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는 소수종족과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소수종족은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소수종족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교육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청년의 취업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을 통해 케냐 사회의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소수종족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인권 존중 이미지를 높이하고자 한다. 소수종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 문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수종족 대표를 정부 기관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소수종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은 각 지역에 산재한 소수종족의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고, 이들을 국가개발의 동

28) Kenya Power, *Kenya electricity system improvement project*, (Nairobi: KP, 2019), 14.

2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Indigenous Peoples' Sustainability," 2023년 11월 14일 검색.

30) Kang Chun Cheng, "Drought and conflict are hurting Kenyan forests. Can the army fix things?" August 10, 2023,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3/8/10/drought-and-conflict-are-hurting-kenyan-forests-can-the-army-fix-things>, 2023년 11월 24일 검색.

31) Kenya Power, *Kenya electricity system improvement project*, 13.

32)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3년 11월 14일 검색.

33) Angela Wakini, "Kenyan Tribe Facing Extinction Begs for Recognition," Kenyans.co.ke, <https://www.kenyans.co.ke/news/81818-torobeek-community-petitions-govt-recognition>, 2023년 11월 15일 검색.

34) Oanda Ogachi, "Economic reform,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ethnic conflict in Kenya," 98-99.

력원으로 만들고, 케냐 국가의 시민으로서 평등을 누리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 정책은 교육 및 의료 지원, 경제적 기회 제공, 문화 및 전통 보존 등에 집중하고 있다.

III. 소수종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동아프리카는 만성적 가뭄과 자연재해를 겪는 지역이다. 2006년 케냐는 대 가뭄을 겪었는데, 정부는 이 때를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³⁵⁾ 이에, 2009년 한국 정부는 케냐의 수자원개발 프로젝트에 61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지원금은 케냐의 타나강 유역과 아웬도(Awendo) 지역 수자원개발에 지원되었다.³⁶⁾ 2012년 아웬도 지역 식수 개발로 식수난에 직면했던 부족민들 약 3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³⁷⁾ 케냐는 지속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수자원개발을 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는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소수종족은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명 이상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1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죽음을 당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온 대규모의 극심한 가뭄은 케냐의 소수 부족에게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채 정부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³⁸⁾ 정부는 가뭄 퇴치를 위해 1,6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추가로 국제사회에 약 8,320만 달러를 모금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³⁹⁾

식량과 물 부족,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위에, 소수종족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과 의료 접근성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마련이다. 우선, 교육과 의료 접근성 강화는 부족민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케냐 정부는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시민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헌법과 2013년 기본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교육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모든 케냐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갖고 있다.⁴⁰⁾

케냐는 2003년부터 초등교육을 무상화했는데,⁴¹⁾ 케냐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소수종족 어린이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2003년 57%에서 2023년 91%로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수종족 출신 학생을 포함한 취약계층인 고아, 도시 빈곤층, 취약계층 청소년, 여학생 등을 위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으로는 장학금, 기숙사비, 교통비, 입학금 감면 학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⁴²⁾

교육 접근성 확대는 경제적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교육받은 소수종족은 더 나은 직업을 갖거나, 가계의 소득증가로 이어진다. 물론 교육받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의

35) 코이카 블로그, “코이카의 대 케냐 개발협력 사업 - ‘식수 개발 사업’”, 코이카, 2015년 6월 19일,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koica&logNo=220395421339&categoryNo=31&parentCategoryNo=0>, 2023년 11월 14일 검색.

36) 이동우, “한국, 케냐 수자원 프로젝트 지원”, 전기신문, 2009년 2월 13일,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51>, 2023년 11월 14일 검색.

37) 코이카 블로그, “코이카의 대 케냐 개발협력 사업 - ‘식수 개발 사업’”, 2023년 11월 14일 검색.

38) Abdi Dahir, “War in Ukraine Compounds Hunger in East Africa”, New York Times, April 1, 2022, <https://www.nytimes.com/2022/04/01/world/africa/food-crisis-africa-drought-ukraine.html>, 2023년 11월 16일 검색.

39) Andrew Wasike, “Kenyan president announces \$16.4 million to fight drought,” Anadolu Ajansi, November 1, 2022, <https://www.aa.com.tr/en/africa/kenyan-president-announces-164-million-to-fight-drought/2726738>, 2023년 11월 24일 검색.

40) Lidoro Charles Mulinyai and John Aluko Orodho, “Free Primary Education Policy: Coping Strategies in Public Primary Schools in Kakamega South District, Kakamega County, Kenya,”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Vol. 6, No. 12, 2015, 162.

41) Benta A. Abuya, Kassahun Admassu et al., “Free Primary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in Kenya: The Role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Addressing the Policy Gap,” Sage Journals, Vol. 5, Issue 1, 2015, <https://doi.org/10.1177/2158244015571488>, 2023년 11월 16일 검색.

4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enya Education Sector Support Programme 2005-2010,” Republic of Kenya, 2005.197.

무교육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종족은 경제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받은 소수종족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각 부족의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도 배운다. 이것은 소수종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루토 정부에서 기존 의료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료 인하 및 특정 질환에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 광범위한 토지를 가진 케냐는 소수 부족을 위한 기존 의료정책으로 주요 거점 지역에 병원건립, 진료소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 등을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⁴³⁾ 아쉽게도 의료정책은 주로 수도권과 도시거주자 및 주류 부족 중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2018년 기준 케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0%, 수도 나이로비는 40%, 소수종족 거주 지역 가입은 1%이다.⁴⁴⁾

의료정책의 실행은 현장의 형편에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한 주에서 실행한 예로 낙타를 이용하여 소수 부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있다. 케냐의 삼부루 카운티(Samburu County)는 가혹한 기후 조건과 지형으로 인해 50% 이상의 인구가 적절한 위생 시설 없이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출산이나 말라리아, 설사, 파상풍, 물질 감염병 및 눈과 피부 감염 등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카멜 클리닉(Camel Clinics)’으로 불리는 낙타이동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반건조 기후로 가시덤불과 덩불이 우거진 지역에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대체 수단이 되고 있다.⁴⁵⁾

모터바이크 구급차(Motorbike ambulances)도 소수종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체 수단이다. 케냐의 투르카나 카운티(Trukana County)는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데, 인구 5만 명당 한 명의 의사가 있다. 보건국은 이 지역에 6대의 모터바이크 구급차를 준비하고, 응급환자를 인근 카운티로 이송하거나 긴급한 의료 물품을 이송하고 있다. 케냐 정부는 탄자니아와 남수단 및 소말리아 국경선에 인접한 카운티에 속한 소수종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낙타 이동 클리닉이나 모터바이크 구급차를 점차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⁴⁶⁾

다음은 경제적 기회 제공정책으로 2023년 케냐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칼렌진(Kalenjin), 키꾸유(Kikuyu), 루야(Luhya) 등을 비롯한 주류 부족의 고용률이 87.6%에 달하고, 단 12.4%만이 35개 주에 걸쳐 고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⁴⁷⁾ 공공기관이나 기업 혹은 특정 사업체에 고용될 만한 교육이나 기술이 없는 소수종족은 고용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경제적 향상 기회도 낮아진다. 정부는 소수종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케냐 정부의 정책 중에 엘도렛(Eldoret), 나록, 이시올로, 와지르(Wajir) 등에 가죽 공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다. 가죽 공업단지 개발 사업은 국제개발 협력기구(ODA)의 지원을 받아 케냐의 가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국, 인도와 경쟁하고 있고, 숙련된 노동자 부족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계획대로 일이 되어 간다면, 일부 소수종족의 경제 참여 기회 및 경제적 향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화와 전통 보존 정책으로 케냐 정부는 소수종족 문화원 설립과 전통 축제 개최 등을 카운티별로 실행하고 있다. 삼부루 카운티의 경우, 문화, 사회복지, 양성, 스포츠 및 청소년 문제 부서의 주도로, 2017-2018 회계연도에 세 곳의 하위 카운티에서 세 개의 사회 문화회관을 건설했으며, 세 곳의 경기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부서는 다양한 소수 부족 여성 그룹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소수 부족인 삼부루족의 정체성, 문화, 전통 보존 등이 지켜질

43) Kwamboka Oyaro, "Taking health services to remote areas," African Renewal, Dec 2016-Mar 2017, <https://www.un.org/africarenewal/magazine/december-2016-march-2017/taking-health-services-remote-areas>, 2023년 11월 17일 검색.

44) 정민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11.

45) Kwamboka Oyaro, "Taking health services to remote areas," 2023년 11월 17일 검색.

46) Kwamboka Oyaro, "Taking health services to remote areas," 2023년 11월 17일 검색.

47) 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Kenya, 37.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의 문화원과 전통 축제 등은 각 부족의 전통 양식, 의상, 춤, 의식 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부족 축제 행사는 케냐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통 축제 행사는 매년 혹은 분기별로 부족의 전통에 따라 치러지는데, 케냐 북부 지역의 투루카나 문화 행사(Trukana Cultural Festival), 서쪽 지역의 전통 마사이 은노토 축제(Traditional Maasai Eunoto Ceremony), 포코모 문화 축제(Pokomo Cultural Festival) 및 마울리디 문화 축제(Maulidi Cultural Festival) 등이 있다.⁴⁸⁾ 한편, 일부 학자들은 전통문화를 통일하고 표준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케냐의 무형·유형의 다양한 전통문화 양식의 원형 보존 및 정체성 보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한다.⁴⁹⁾

케냐 소수종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소수종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의료, 사회 참여 기회 제공, 경제적 기회 제공,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케냐 국경과 인접해 있는 소수 부족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한편,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IV. 미래를 향한 당면과제와 정책의 방향성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와 정책의 방향성은 루토 정부의 정책과 기타 학술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독립 이후 2010년에 마련한 헌법에 따라, 소수종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도한 케냐 정부의 정책적 성과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케냐 정부가 인정한 47개의 부족 외에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하위 부족은 인구 숫자는 적으나 케냐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되거나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실행을 하는 것이다. 케냐의 소수종족의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와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

소수종족 정책은 사회 통합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 부합하면서도 각 부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각 부족의 언어, 문화, 전통 및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케냐 전체 사회 구성원 일부로서도 위화감이 없이 통합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⁵⁰⁾ 케냐 정부 정책은 사회 통합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기치 아래, 소수종족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면서 케냐 소수종족을 위한 미래의 당면 과제는 1) 부족한 제정, 2) 지역 격차, 3) 사회적 편견 극복이다. 우선,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초등교육 무상, 중·고등교육지원, 경제적 기회 제공, 전통문화 보존 지원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케냐 정부의 재정은 도전받고 있고,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⁵¹⁾ 올해 초 국내외 신문은 케냐가 경제 위기 혹은 정부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정부 제정의 감소, 건축 혹은 축소는 결

48) National Museums of Kenya, "5 Cultural Festivals of Kenya," Arts and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5-cultural-festivals-of-kenya-national-museums-of-kenya/ggVB5HVf0OBXKw?hl=en>. 2023년 11월 20일 검색.

49) Orinda S. Okumu,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enya," Conserv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 Kenya: A Cross-Disciplinary Approach, edited by Anne-Marie Deisser and Mu gwima Njuguna, 1st ed., (London: UCL Press, 2016), JSTOR, <https://doi.org/10.2307/j.ctt1gxxpc6.10>. 2016. 49.

50) 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Minority and Marginalised," NGEK, <https://www.ngeckenya.org/SpecialInterestGroups/MinorityandMarginalised>. 2023년 11월 20일 검색.

51) Moses Kinyanjui, "President Ruto Admits Gov't Facing Financial Challenges, But Maintains 'We Will Not Borrow To Pay Salaries'," Citizen Digital, 2023년 4월 11일, <https://www.citizen.digital/news/president-ruto-admits-govt-facing-financial-challenges-but-maintains-we-will-not-borrow-to-pay-salaries-n317786>. 2023년 11월 20일 검색.

국 제한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고 소외계층을 돌볼 여지는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⁵²⁾는 제조, 보편적 의료, 저가의 주택 공급 및 식량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우후루 정부에 이어 집권한 루토 정부는 단기적 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둔 경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⁵³⁾ 현재 치솟는 물가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⁵⁴⁾ 케냐 정부의 소수종족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국가 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종족을 위한 지원 정책 실현 및 지원은 소원해 보인다.

소수종족을 위한 사회보장지원은 결국 국내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조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⁵⁵⁾ 국제기관의 조건부 지원이 종료되면 소수종족은 이전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제정 지원의 제한과 한계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가뭄, 장마 등의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해지기도 한다. 소수종족이 외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것은 케냐 정부 정책의 한계이기도 하다.⁵⁶⁾ 이것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또한, 부족의 지역 격차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케냐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에 있어, 주류 부족 고용인력에 고용이 쏠려 있는 현상이 심각하고 소수종족의 고용이 매우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소수종족에 대한 제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케냐 사회의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았다.⁵⁷⁾ 공공기관의 특정 부족 편애 현상과 소수종족 제외 현상은 민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수자 혹은 소수종족을 대표하는 자의 공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있다.

정부 정책의 기울어진 실행이나 특정 종족 혹은 부족에게 쏠리는 현상은 결국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부족, 종교, 전통에 대한 편견은 식민 시대를 겪으며 강화되었고, 차별과 분리를 통해 통치하려 했던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⁵⁸⁾ 특정 종족이나 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치 활동은 케냐 사회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편협한 부족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치와 정책 개발은 결국 소수종족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이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재정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다.

2. 소수종족정책의 방향성

앞에 연구를 통해, 케냐 소수종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케냐 정부는 유엔이 채택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비준하고, 2017년 채택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원주민/소수종족의 자치결정권, 차별금지, 토지·자원 및 문화 계승, 교육·건강 및 사회보장, 참여 및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을 기반으로,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원주민 토지회복 계획 및 개발, 원주민 권리에 대한 정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52) 2013년 4월 9일 취임하고 2017년 선거에 재선하여 2022년 9월 13일 퇴임.

53) 정민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7.

루토 정부 부임 시 달러 대 케냐 화폐 가치는 1:120이었고, 2023년 11월 1:150을 기록하고 있음.

54) CLYED&CO, “Review of charges and fees with respect to immigration application in Kenya,” CLYED&CO, <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3/11/review-of-charges-and-fees-with-respect-to-immigra>. 2023년 11월 25일 검색.

2023년 11월 14일 공표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이민법은 기존의 비용에서 적게는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 각종 항목의 비용을 인상함.

55) Marion Ouma, “Social Protection Policymaking in Kenya: Power and Resistance in a Globalised World,” *Africa Development/ Afrique et Développement*, Vol. 45, No. 2, 2020, 129.

56) Marion Ouma, “Social Protection Policymaking in Kenya: Power and Resistance in a Globalised World,” 130.

57) Committee on National Cohesion and Equal Opportunity, *First Report on Employment Diversity Audit in Public Institutions*, Republic of Kenya, (Nairobi: CNCEO, 2023). 196-197.

58) 김광수, “케냐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년 7월): 21.

있다.

케냐 정부는 유엔이 2011년 채택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을 2019년에 비준했다. 이 이행 원칙은 정부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인간과 자원, 환경을 보호(Protect), 존중(Respect) 및 치유(Remedy)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⁵⁹⁾ 가장 최근에 비준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원주민 선언의 이행을 위한 지침의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원주민을 제도와 정책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며 치유해 나가는데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케냐 정부는 국제법을 수용하여 헌법에 적용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유엔과 지속가능개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⁶⁰⁾ 한편, 국제기구의 케냐의 소수종족을 위한 사회정책에 주는 영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⁶¹⁾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은 소수종족 이해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통합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한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케냐의 소수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한다.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 중 교육, 의료, 경제적 기회 제공 등의 정책은 지역과 소수종족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장기적 지원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교육 기회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의료시설 및 의료적 처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부족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단기적 지원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와 민간 주도의 식수/용수,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하며, 클리닉을 통한 예방 접종, 질병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기반 시설(병원, 클리닉, 도로, 학교 등)을 설치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빈번한 피해에 놓인 소수종족의 필요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3. 기후변화 및 소수종족의 빈곤 문제 대응

소수종족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그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케냐의 소수종족은 주로 농업, 목축, 어업 등에 주로 종사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식량부족, 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와 민간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소수종족의 이해와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야 한다. 소수종족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수종족에게 기후변화 관련 인식 교육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초래하는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식량생산성 향상, 생태계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케냐 정부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수종족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케냐의 소수종족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대응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케냐 소수종족을 위하여 정부는 인접한 카운티나 국가와 협약을 통해 소수종족의 생존권, 이동권, 자원 사용권 등을 보호할 수 있다. 목초지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인 소수종족, 카운티,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지만, 정부가 소수종족의 필요와 갈등에 관심을 두어야만, 토지와 자원 자원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및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59) The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 introduction,” OHCHR, January 2011,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023년 11월 21일 검색.

60) United Nations Kenya,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Kenya:2022-2026,” UNK, Nairobi: UNK, 2017, 1.

61) Marion Ouma, “Social Protection Policymaking in Kenya: Power and Resistance in a Globalised World,” 132.

케냐 소수종족은 자연재해 피해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유엔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하여 국제적 과제로 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종족이 직면한 빈곤과 기아 문제는 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차별 해소 및 소수종족의 자립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케냐 정부는 2019년부터 ‘소수종족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세계은행은 ‘농업 및 임업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민간 기업 차원에서 소수종족에게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해서 생활환경이 변하는 소수종족이 참여하는 법률 및 정책 마련 및 자립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외부와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지만, 소수종족이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V. 나가는 말

케냐 나이로비에 거주하며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접한다. 2023년 11월, 케냐 전역은 거의 매일 내리는 비로 인해 홍수 피해를 보았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본문에서 언급한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로써 케냐 소수종족이 사는 지역의 취약한 도로 기반 시설과 주거 시설이 만성적인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소수종족을 구제하기 위한 물, 식량, 약품, 의류 등의 구호품이 적기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취약하므로, 정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식적인 법과 정책에 불과하다. 케냐 헌법과 정책은 민주주의적 개념이 담긴 법으로써, 케냐 사회를 구성하는 취약계층의 인권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케냐 사회를 구성하는 취약계층에는 원주민 혹은 소수종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데, 전통적 생활방식인 목축, 수렵, 어업, 채집, 사냥 등을 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케냐 정부의 케냐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은 사회통합적 관점으로서, 교육과 의료 접근성 개선,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및 인권과 권리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수종족은 케냐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한편, 부족이 가진 전통문화, 삶의 방식, 주거지와 정체성 보존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케냐는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부족중심주의가 강화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특정 부족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종족은 빈곤, 차별,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케냐 헌법 개정으로 소수종족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되면서, 소수종족의 문제는 국가 과제로 부각 되고, 연구와 정책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소수종족은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케냐의 소수종족은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인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언어, 문화, 전통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케냐의 소수종족은 교육 부재, 낮은 의료 접근성, 부족 문화·언어·전통의 멸종위기 등에 직면한 채,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케냐 소수종족을 위한 정책은 천천히 그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수종족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외부의 도움이나 국제 원조 등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케냐 정부는 소수종족이 처한 빈곤, 자연재해, 멸종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케냐의 소수종족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고, 각 부족의 언어, 문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접근이 필요하다.

<표 1> 국제사회의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정책 개발 역사

년도	기 구	내 용
1921	국제연맹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요구 결의 채택
1945	유엔 창설	원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활발
1957	유엔인권위원회	원주민에 대한 권리 선언 채택
1960	유엔총회	원주민에 대한 선언 채택
1992	유엔총회	유엔 소수자 선언
2007	유엔총회	UN 원주민 권리 선언
2017	유엔총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의 이행을 위한 지침 채택

<표 2> 국민통합위원회의 국제법 프레임 워크

비준	국제법
1992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58 2001	ILO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ILO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No.11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2009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표 3> 국민통합위원회의 국제법 프레임 워크

비준	국내법
2003	공직자윤리법 (Public Officer Ethics Act)
2007	고용법 2007 (Employment Act, 2007)
2008	국민통합법 (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Act)
2010	케냐 헌법 2010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2010	카운티공공서비스(CPS) 설립 (Establishment of the County Public Service (CPS))
2012	2012년 카운티 정부법 (County Government Act 2012)
2015	공공서비스(가치 및 원칙)법 (Public Service (Values and Principles) Act)
2016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성 정책 (Diversity Policy for the Public Service)

<참고 문헌>

- 김광수. “케냐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월호. 2009:20-25.
- 노이어펠트, 엘레인. 이지성 역. 『젠더 정의-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지침서』 *Lutheran World Federation GENDER JUSTICE POLICY*. 서울: 한국루터란아워, 2015.
- 정민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5 No. 32. 2022:1-17.
-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 2013.
- 홍성룡. “리프트 밸리 오모강 지역의 투르카나 원시부족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3권 2호. 2013: 87-97.
- 이동우. “한국, 케냐 수자원 프로젝트 지원”. 전기신문. 2009년 2월 13일.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5>. 2023년 11월 14일 검색.
- 코이카 블로그. “코이카의 대 케냐 개발협력 사업 - ‘식수 개발 사업’”. 코이카. 2015.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koica&logNo=220395421339&categoryNo=3>. 2023년 11월 14일 검색.
- Government of Kenya. 국회도서관 역. 『케냐 헌법 (2010)』, *The Kenya Constitution*. 서울: 국회도서관, 2014.
- Park, Jeong Kyung. “Claiming an Ethnic Identity in the midst of statelessness: Oral Testimonies collected from Nubians in Kibera, Nairobi, Kenya”.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Nol. 39. No. 1. 한국아프리카학회. 2013: 243-262.
- The Kenya Constitution 2010. 국회도서관 역, 『케냐 헌법 (2010)』. 서울: 국회도서관, 2014.
- Abuya1, A. Benta. Admassu, Kassahun at all. “Free Primary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in Kenya: The Role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Addressing the Policy Gap.” Sage Journals. Vol. 5, Issue 1. 2015.
- Commission on Revenue Allocation, *Survey report on marginalized areas/ counties in Kenya*. CRA. Nairobi: CRA, 2012.
- Committee on National Cohesion and Equal Opportunity. “First Report on Employment Diversity Audit in Public Institutions.” Republic of Kenya. Nairobi: CNCEO, 2023:196-197.
- Kenya Power. *Kenya electricity system improvement project*. Nairobi: KP, 2019.
- Lightfoot, Sheryl. and Stamatopoulou, Elsa. eds. *Indigenous Peoples and Borders*. Duke University Press, 2024.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enya Education Sector Support Programme 2005-2010*. Republic of Kenya. Nairobi: GoK, 2005.
- National Cohesion and Integration Commission Kenya. *Ethnic & Diversity- Audit of the County Public Service 2023*. NCI. Nairobi: NCI, 2023.
- 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Unmasking Ethnic Minorities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in Kenya Who and Where?* NGEC. Nairobi: NGEC, 2017.
- Mulinyal, C. Lidoro & Orodho, A. John. “Free Primary Education Policy: Coping Strategies in Public Primary Schools in Kakamega South District, Kakamega County, Kenya.”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Vol. 6, No. 12. 201: 162-172.

Ogachi, Oanda. "Economic Reform,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ethnic conflict in Kenya." *Africa Development/ Afrique et Développement*. Vol. 24, No. 1/2. 1999: 83-107.

Okumu, S. Orinda.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enya." *Conserv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 Kenya: A Cross-Disciplinary Approach*. edited by Anne-Marie Deisser and Mugwima Njuguna. 1st ed. London: UCL Press, 2016, JSTOR, <https://doi.org/10.2307/j.ctt1gxpc6.10>. 2016:45-58.

Ouma, Marion. "Social Protection Policymaking in Kenya: Power and Resistance in a Globalised World." *Africa Development / Afrique et Développement*. Vol. 45, No. 2. 2020:125-42.

United Nations Kenya.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Kenya:2022-2026. UNK. Nairobi: UNK, 2017.

<온라인 자료>

African Studies Center. "Kenya -- Ethnic Groups".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www.africa.upenn.edu/NEH/kethnic.htm>. 2023년 11월 12일 검색.

Cheng, Kang Chun. "Drought and conflict are hurting Kenyan forests. Can the army fix things?". August 10, 2023.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3/8/10/drought-and-conflict-are-hurting-kenyan-forests-can-the-army-fix-thin> gs. 2023년 11월 24일 검색.

Clyed&Co. "Review of charges and fees with respect to immigration application in Kenya". CLYED&CO. <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3/11/review-of-charges-and-fees-with-respect-to-immigra>. 2023년 11월 25일 검색.

Dahir, Abdi. "War in Ukraine Compounds Hunger in East Africa". New York Times. April 1, 2022. <https://www.nytimes.com/2022/04/01/world/africa/food-crisis-africa-drought-ukraine.html>. 2023년 11월 26일 검색.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Indigenous Peoples' Sustainability". April 23, 2021. United Nation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2021/04/indigenous-peoples-sustainability>. 2023년 11월 14일 검색.

Indigenous Navigator- Data by and for Indigenous Peoples. "Kenya". Indigenous Navigator. <https://indigenousnavigator.org/indigenous-data/countries/kenya>. 2023년 11월 14일 검색.

Kinyanjui, Moses. "President Ruto Admits Gov't Facing Financial Challenges, But Maintains 'We Will Not Borrow To Pay Salaries'". Citizen Digital. April 11, 2023. <https://www.citizen.digital/news/president-ruto-admits-govt-facing-financial-challenges-but-maintains-we-will-not-borrow-to-pay-salaries-n317786>. 2023년 11월 20일 검색.

Kinyanjul, Maureen. "Isiolo starts food distribution to 12,000 households affected by floods". The Star. November 17, 2023. <https://www.the-star.co.ke/news/2023-11-17-isiolo-starts-food-distribution-to-12000-households-affected-by-floods/>. 2023년 11월 17일 검색.

National Gender and Equality Commission. "Minority and Marginalised". NGECE. <https://www.ngeckenyakya.org/SpecialInterestGroups/MinorityandMarginalised>.

2023년 11월 20일 검색.

National Museums of Kenya. “5 Cultural Festivals of Kenya”. Arts and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5-cultural-festivals-of-kenya-national-museums-of-kenya/ggVB5HVf0OBXKw?hl=en>. 2023년 11월 20일 검색.

Oyaro, Kwamboka. “Taking health services to remote areas”. African Renewal.

Dec 2016-Mar 2017. <https://www.un.org/africarenewal/magazine/december-2016-march-2017/taking-health-services-remote-areas>. 2023년 11월 17일 검색.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 introduction”. OHCHR.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023년 11월 21일 검색.

Verjee, Zain. “Kenya’s 44th tribe: Why I’m finally a first-class citizen of my country”.

August 7, 2017. CNN World. <https://edition.cnn.com/2017/08/04/africa/kenya-asian-community/index.html>. 2023년 11월 11일 검색.

Wakini, Angela. “Kenyan Tribe Facing Extinction Begg for Recognition”. Kenyans.co.ke.

Nov. 15. 2022. <https://www.kenyans.co.ke/news/81818-torobeek-community-petitions-govt-recognition>. 2023년 11월 15일 검색.

Wasike, Andrew. “Kenyan president announces \$16.4 million to fight drought”.

November 1, 2022. Anadolu Ajansi. <https://www.aa.com.tr/en/africa/kenyan-president-announces-164-million-to-fight-drought/2726738>. 2023년 11월 24일 검색.

World 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Kenya”. Minority Rights Group.

<https://minorityrights.org/country/kenya/>. 2023년 11월 11일 검색.

“UN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에 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안”, British Columbia

Assembly of First Nations. <https://www.bcafn.ca/sites/default/files/2019-10/UNDRIP%20Information%20-%20Korean.pdf>. 2023년 11월 14일 검색.

민족집단에서 초국적 공동체로의 서아프리카 이슬람 연구: 무리디야를 중심으로

진소영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지역학과

목차

1.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2. 무리디야
3. 무리디야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4. 결론

1.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서아프리카에 이슬람이 확산된 배경

- 서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와 달리 정복 전쟁으로 이슬람이 전파된 것은 아님.
- 북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서아프리카에 교역과 종교활동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슬람이 확산하게 되었음.
- 이슬람이 서아프리카에 확산하면서 토착 종교와 융합되었고, 중동의 이슬람과 비교해 교리나 의식이 완화되어 변화했음.

1.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현황

서아프리카			
국가명	무슬림 비율	국가명	무슬림 비율
모리타니	100	니제르	98.3
세네갈	96.1	감비아	95.7
기니	89.1	말리	95
시에라리온	78.6	부르키나파소	61.5
나이지리아	49.6	기니비사우	45.1
코트디부아르	42.9	베냉	27.7
라이베리아	20	토고	20
가나	18	카보베르데	2



<아프리카대륙의 무슬림 비율>

2. 무리디아

- 창시: 1883년
- 창시자: 아마두 밤바 (Amadou bamba, 세네갈 출신)
- 구성원 수: 1,840만 명 추정(2023년 기준)
- 확산 지역: 세네갈, 감비아, 말리, 코트디부아르, 기니
- 종교적 특징
 - ① 창시자에 신성 부여 ② 창시자 영묘 순례와 성지순례
 - ③ 교리(경제적 자립, 근면)
- 확산배경
 - ① 이슬람의 현지화 ② 외세 저항 운동
 - ③ 서아프리카의 농업 생활 양식에 적합한 교리



<아마두 밤바 모습>

2. 무리디아

무리디아 종교적 특징 ①_창시자에 신성 부여

- 무리디아 창시자의 초상화나 그림을 가까이에 함.
- 무리디아는 창시자의 영묘에 성지순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무리디아의 창시자는 바라카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라카는 그의 제자와 후손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묘에도 존재한다고 믿음.



2. 무리디아

무리디아 종교적 특징 ② 영묘 숭배 및 성지 순례

- 그랜드 마갈은 이슬람력 2월 18일에 진행되는 무리디아 성지 순례 의식을 의미함.
- 매년 300만 명의 무리드는 세네갈 중부의 투바(Touba)로 순례로 온집함.

성지순례	2021년	2022년	2023년
메카	6만 명	100만 명	250만 명
투바	400만 명	350만 명	500만 명

출처: al jazeera, jeune Afrique, xiba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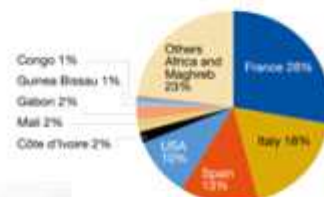


2. 무리디아

무리디아 종교적 특징 ③_교리(경제적 자립)

- 무리디아는 농업, 무역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은 무리디아의 핵심 이념으로 작용함.
- 무리디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많은 다른 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

<세네갈 이민자의 주요 송금 경로(IFAD 2022:13)>



3. 무리디야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무리디야의 정치적 영향

- ① 선거 수단: 무리디야는 영적 지침인 온디겔(Ndigue)이 있는데, 무리디야의 창시자 또는 그의 후계자가 내린 영적인 지시나 계명을 뜻함. 이 지시는 신의 뜻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종교적 관행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생활 영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② 투바의 지방자치법 시행: 성지 투바(Touba)는 자치법으로 도시가 운영되고 있음. 알코올, 담배, 도박, 영화를 비롯한 축구 게임 및 시청까지 금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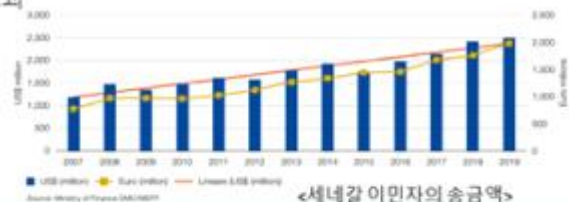


〈무리디야의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

3. 무리디야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무리디야의 경제적 영향

- ① 창시자 영묘 순례의 경제적 파급효과(관광 인프라 구축, 성지순례 상품 출시)
- ② 종교적 교리에 따라 농업, 상업,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자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며, 종교적 의무와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도 간의 경제적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음.
- ③ 무리디야 해외 이민자의 송금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세네갈 이민자의 송금액〉

3. 무리디아가 서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무리디아의 문화적 영향

- ① 학문적 영향: 다라(Daara)라고 불리는 이슬람 학교를 통해 교육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다라는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등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② 토착어의 문자 문화 보급(아자미 Ajami)으로 인한 이슬람 확산에 기여: 아자미는 서아프리카 토착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 표기 체계로서, 아랍어의 음을 활용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함. 무리디아 창시자는 이슬람 교리를 아자미로 표현하여, 아랍어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전달하였음.



결론

- 무리디아의 초국적 이동과 외국에서의 경제 활동은 세네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국으로 송금되는 자금은 국내 프로젝트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무리디아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바를 성지로 여기며,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있음.
 - 무리디아의 초국적 이동은 종교적 신념과 경제적 활동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줌.
 - 종교적 신념이 경제적 활동을 유도하며, 경제적 성공이 종교 공동체를 강화함.
- 서아프리카 이슬람인 무리디아는 지역적인 종교 공동체 및 민족집단을 넘어 초국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아프리카미래학회 임원 명단(2023)

자문위원회

전호진(前캄보디아신학교 총장), 신인호(AFA 부회장), 이진상(항공대), 진미정(AFA), 백성철(코트디부아르), 김요한(A-PEN이사장), 이강호(부산.사랑의병원 이사장), 박해경(문형장로교회), 박종근(CICU명예총장), 이대형(토고.아미나부사장), 최병락(서울벤틀교회), 윤용수(부산외대), 김윤진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정서(한국복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이경하(R플러스 치과 원장), 성재호(다사랑공동체), 장금석(서울광명교회), 변순복(하임대학교), 임영섭(수원은혜교회), 이용태(백석대학교), 박경순(안양열린문교회), 조귀삼(다문화진흥원), 김만형(합신.친구들교회), 이원규(원남교회), 김양욱(호주개혁총회장), 정관창(친구들교회), 민필원(반석교회), 이규환(목양교회), 한승돈(CICU총장), 마경훈(비전교회), 강유식(글로벌교회), 송경근(명지대 은퇴교수).

상임이사회

- ☐ 회 장 : 장훈태(백석대)
- ☐ 부 회 장 : 임기대(부산외대), 황규득(한국외대)
- ☐ 총무이사 : 진소영(부산외대), 김희진(칼빈대)
- ☐ 학술이사 : 손동신(백석대), 임정혜(조선대), 강지훈(부산외대)
- ☐ 대외협력이사 : 김현주(단국대), 이현주(I-GOODNEWS)
- ☐ 재무이사 : 이광주(연세대), 최유석(백석대)
- ☐ 섭외이사 : 베텔(한국외대), 백명식(따뜻한공동체)
- ☐ 서무이사 : 맹미영(ACTS), 장경숙(AFA), 김장식(CICU)
- ☐ 홍보이사 : 박문규(충남대), 김경식(청주대), 김해영(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케냐)
- ☐ 정보통신이사 : 홍진근(백석대), 송은섭(해피트리머스)
- ☐ 국제이사 : Jacob S. Pyun(Director Bible & Talmud Edu Academy in USA)
- ☐ 편집위원장 :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 ☐ 각 지회 및 지회장

경기지회	경상지회	전라지회
신인호	임기대	송은섭, 임은실
충청지회	동부아프리카지회	북부아프리카지회
이영인	박숙경(르완다). 이호영(우간다)	허영희(튀니지)
서부아프리카지회	중부아프리카지회	인도차이나지회
박소현(부르키나파소)	김해영(케냐)	이성원(라오스)
남미지회	서울지회	유럽지회
장화경(브라질)	이현주	김요한

학회연락처

전화 : 010-8310-5558. 임기대 010-8516-0857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 가입 신청서

각 학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오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	☐ 일반회원
------	-------------------------------	-------------------------------

년 월 일

회원의 개인기록은 본 학회의 활동(학회지 발송, 학회업무연락, 소식지 발송 등)에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소속 기관	기관명	
생년월일				전공 (과목)	
E-mail			휴대전화		
주소 및 전화번호	소속기관	(우편번호) ☎			
	자택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 직장 ☐ 자택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회원구분 필수) 2. 학회 입회비 및 회비 - 일반회원: 50,000원(입회비 20,000원/연회비 50,000원) - 임원: 100,000원(아프리카미래학회 임원) - 평생회원: 1,000,000원(입회비/평생회비) -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510-914111(아프리카미래학회) 예금주: 장훈태(아미학) 3. 아프리카미래학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735701-01-340752 예금주: 장훈태(AFA) 4. 학회 연락처 총무: 진소영(010-8682-5965) / 김희진(010-8310-5558)				

제8회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공동정기학술대회 논문 자료집

인 쇄 일 2023년 12월 15일

발 행 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기관 아프리카미래학회

발 행 처 아프리카미래학회

협력기관 아프리카미래협회

국제난민연구소

홈페이지 www.afs.re.kr